금주의 법구-〈법구경〉
항상 새벽처럼 깨어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53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8월 13일)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9월 23일 길상사 다라니원에서 진우 스님의 총무원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마인드풀 피크닉에는 2030 청춘남녀 20여 명이 참여했다.



진우 스님은 9월 22일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사회복지사와 특수교사, 전문지원교사를 격려했다.

취임 1주년 진우 스님, 안심법문으로 '소통'

2030 청년세대와 명상 주제로 대화 나서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임직원 격려 방문도

9월 23일 서울 길상사에서
청년 20여 명과 대화의 장
"화내는 것도 버릇이 된다"

22일엔 사회복지 종사자에
안심법문 전하며 자비 손길
"여러분 모두가 보살" 위로

신중일 · 윤호섭 기자

"절집에서 50년을 넘게 보낸 저도 때로는 화가 납니다. 다만 우리의 화는 어떤 현상에 대한 반응이고, 그것은 100% 내 감정이란 걸 알아차리면 됩니다.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내가 만든 거라고요. 그걸 알아차려야 감정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 1주년을 앞둔 진우 스님이 2030 청년세대와 마주앉았다. 지난해 9월 28일 임기 시작과 동시에 청년불자들을 만나 불교를 바라보는 미래세대의 시각을 이해하고자 했던 스님은 1년이 지나 젊은이들의 인생 멘토를 자처했다. 9월 23일 서울 길상사 다라니원에서 열린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함께하는 마인드풀 피크닉' 현장. 행사에 참가한 20여 명의 청춘남녀는 자신의 이름과 요즘 느끼는 감정을 서로 공유하며 인사를 나눴다. 진행은 청춘상담소 좀놀아본언니들 대표인 상담가 장재열 씨가 맡았다.

"편안함과 동시에 불안감을 느낍니다." "설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진우 스님은 이런 청년세대의 다양한 감정들이 당연하다고 봤다. 스님은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사회적으로도 불편한 일이 많다"며 "젊은이들일수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공감했다.

스님은 여러 법문과 대담에서 누차 강조한 '감정의 공식'을 다시 한 번 설명했다.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이 생겨나고, 젊기 때문에 나이가 드는 것처럼 행복이 생기면 그만큼 불행도 생기기 때문에 행복만을 추구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진우 스님의 말에 한 참가자가 "저는 이번 생에 중생의 맛을 너무 크게 느끼는 것 같다"고 답하자 곳곳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행복을 크게 느끼는 만큼 불행도 크게 느껴야 한다면 동기부여가 중요한 청년들은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 노력해선 안 되는 걸까요?"

초반의 어색함이 한풀 꺾이고 조금은 진지한 고민이 나왔다. 그러자 진우 스님은 괴로움이 없는 게 좋은지, 아니면 행복한 게 좋은지 물었다. 이어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삶'이 마냥 행복하기만 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성공한 사람으로 굳이 따져보자면 히틀러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행복했을 것 같나요? 그림 한 점이 수천 억원인 세계적인 화가 고갱도 삶을 들여다보면 행복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유명하고 돈이 많아도 그것이 꼭 행복한 것은 아니죠."

진우 스님은 큰 행복에 대한 집착보다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편안함을 강조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더 나은 형편을 욕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스님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다는 강박관념에서만 벗어나면 된다"고 조언했다.

대화중엔 막간을 이용한 퀴즈시간도 마련됐다. 바로 진우 스님의 MBTI 검사유형 맞추기. 몇 번의 오답 끝에 한 참가자가 'ISFJ(별칭 용감한 수호자)'를 외치며 정답을 맞혔다. 이 참가자는 "스님께서 법문을 많이 하셔도 어느 정도 내향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다. 또 공감해주시고 수행자이시기에 규칙적일 것 같아 골랐다"고 설명했다.

진우 스님은 "MBTI가 신용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큰 관심은 없지만 젊은이들을 따라 해본 적은 있다"고 답했다.

행사명이 '마인드풀 피크닉'인 만큼 명상과 관련된 대화도 이어졌다. "화가 나서 명상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고민에 진우 스님은 "화를 낸다는 건 과거 그 행위를 통해 무언가를 얻거나 잃은 경험이 있어 반복되는 것"이라며 "왜 화를 냈는지 스스로 성찰하다보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스님은 또 생활에서 누구나 가볍게 해볼 수 있는 명상법으로 수식관을 제안했다. 이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의 '멍 때리기'나 염불도 언급하며 "5분이든 10분이든 습관이 되도록 노력해보라"고 말했다.

스님은 끝으로 "나 역시도 젊은 시절에 우울증을 느껴 죽으려고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 때가 괴로운 업이 나타날 시기였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나가버린 과거와 오지 않은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는 〈금강경〉의 '과거심불가득(過去心不可得) 현재심불가득(現在心不可得) 미래심불가득(未來心不可得)'을 설명했다.

진우 스님은 "막연하게 사회적인 성공을 위한 도전이나 노력도 좋지만 내가 이걸 왜 꼭 해야 하는지 돌아보고 감정의 고리를 해결하면 삶의 로드맵을 보다 선명하게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스님은 이어 참가자들을 위해 준비한 단주를 직접 손목에 채워주며 응원의 말을 전했다.

행사가 끝난 뒤 불교크리에이터 강산 씨는 "또래와는 명상에 대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는데 총무원장스님 덕분에 명상이 어떤 건지 조금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진우 스님은 22일에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사회복지사와 특수교사, 전문지원교사를 격려하고 장애인 이용자들에게 추석 선물을 전달하며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추석을 앞두고 이뤄진 진우 스님의 방문은 최근 무분별한 장애인 학대 신고로 인해 특수교사의 인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특수교사와 전문지원교사를 격려하고 복지관 이용 장애인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진우 스님은 복지관 시설을 둘러보며 직접 프로그램을 체험했으며,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을 찾은 장애인들에게 직접 음식을 배식했다. 또한, 스님은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용자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다.

배식봉사 이후 진우 스님은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전문지원교사와 점심공양을 하며, 현장의 고충을 경청했다. 자리에는 최종환 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 조윤경 사무국장, 서창경 특수교사, 이선아 작업치료사, 김보연 음악치료사, 임은철 놀이치료사, 가경은 언어치료사, 김대중 성인발달장애인 지원 팀장, 박채은 장애 아동 · 청소년 지원 담당, 이미영 장애가족 위기 지원 담당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장의 어려움을 진우 스님에게 전하며 심리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미영 장애가족 위기 지원 담당은 "고립가구를 발굴할 때 이미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마다 트라우마 상황을 맞이한다. 마음을 치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임근철 놀이치료사는 "장애인들의 도전적 행동들 때문에 직원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다. 기관에서 병가, 템플스테이 등을 보내주며 직원들의 심리치료를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김대중 성인발달장애인 지원 팀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보니 직원들의 퇴사율이 높다. 때문에 직원 유출을 줄이기 위해 교육자들의 복지가 좋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인과와 연기법을 설명하며 기도와 명상을 통해 스스로 업장을 소멸시켜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경제적 비용과 제도적인 문제는 현실에 맞게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저 역시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게 의견을 개진하며, 여러분들의 현실이 나아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복지관 소강당에서 진우 스님은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에게 안심법문을 내렸다. 진우 스님은 "여러분들은 보살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근면하고 성실한 최고의 삶을 구가하고 있다"면서 "완전한 행복을 구가하는 보살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어려움을 인욕하며 극복하길 바란다"고 설했다.

진우 스님 취임 1주년 특집 2~6면

추석연휴 관계로 다음 주는 휴간합니다.

우주생명을 살리는 사찰음식

2023 제14차 봉녕사 사찰음식대향연







봉녕사 사찰음식대향연은 자연의 맛과 나눔의 마음을 함께 하는 축제입니다.
올해는 '우주생명을 살리는 사찰음식'이라는 주제로 현대의 화두인 환경문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준비하여 자연과 생태, 우주의 생명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찰음식의 이익을 대중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모든 생명이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한 축제의 마당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 시 : 2023년 10월 6일(금요일) ~ 10월 7일(토요일)
▶장 소 : 수원 봉녕사 경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6-54)

YouTube 봉녕사
※ 본 행사는 봉녕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 주관 봉녕사 사찰음식대향연 운영위원회 후원 경기도 수원시 SUWON CITY

시 간	10월 6일(금)	10월 7일(토)
07:00~09:00	사찰음식 전시 및 경연대회 세팅	
09:00~09:30	사찰음식 경연대회 시식 및 평가 09:00~10:10 육화당	금비라 졸업식 09:00~09:30 대적광전
09:30~10:00		차명상 09:30~10:30 부도탑 앞
10:00~10:30	두부 만들기 시연 퍼포먼스 10:20~11:00 대적광전 앞	
10:30~11:00		육법공양 10:30~11:00 불탑 앞
11:00~11:30	차명상 11:00~12:00 도서관 2층	선재스님 사찰음식 특강 11:00~12:00 야외무대
11:30~12:00		탁발시연 12:00~12:30 도량 내
12:00~12:30	육법공양 12:00~12:30 금탑 앞	
12:30~13:00	사찰음식 실습강좌 법송스님(더덕대추전, 우엉찹쌀전) 12:40~13:30 야외무대	사찰음식 실습강좌 선재스님(배추김치, 좁쌀알타리) 12:40~13:30 야외무대
13:00~13:30		
13:30~14:00	탁발순례 13:40~14:20 도량 내	조선마술패, 우담화합창단 리허설 시상식 준비 13:30~14:20 야외무대
14:00~14:30		
14:30~15:00	무아(無我)차회 (헌다와 나눔 찻자리) 14:30~15:30 금탑 앞	1부 : 사찰음식 경연대회 시상식 신도회 공덕상 시상식 2부 : 조선마술패 공연 우담화합창단 공연 14:30~16:30 야외무대
15:00~15:30		
15:30~16:00		
16:00~16:30		
16:30~17:00	판매 종료	행사 · 판매 종료

취임 1주년 인·터·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MZ세대 이해가 현대사회 '포교 열쇠'



취임 이후 광폭행보를 보이며 1년의 시간을 보낸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집행부는 1년간 많은 성과를 냈지만 진우 스님은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해 아쉽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지난 1년은 '광폭행보'로 표현할 수 있다. 2022년 9월 28일, 임기 시작과 동시에 미래세대인 청년불자들을 만나 청년이 느끼는 불교는 어떤지 질문부터 던졌던 진우 스님. 이후 스님의 발길은 전국 사찰뿐만 아니라 종단 안팎의 기관을 비롯해 사회의 그늘진 곳까지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누볐다.

종단 행정수장으로서의 1년. 여전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진우 스님에게 그간의 소회와 총무원장으로서의 원력, 불교중흥을 위한 청사진을 청해 듣고자 9월 15일 총무원 청사에서 스님을 만났다.

잔잔한 미소와 함께 인터뷰를 시작한 진우 스님은 "여러 사안에 집중하다보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다"면서도 "더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쉽다"고 말문을 뗐다. 문화재관람료 감면 정책이나 종부세 폐지, 종단 직영의 아미타불교요양병원 개원 등 성과로 꼽을 만한 사안이 많았음에도 스님은 겸손으로 일관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처럼 덤덤한 모습. 앞서 취임 300일을 맞아 부산에서 청년들을 만나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여름 캠프에서도 소통의 시간을 보낸 스님은 예상보다 포교의 진척이 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진우 스님은 "보람을 느낀 것들이 있지만 불교가 국민적으로 호응 받고 불자가 더 늘어나야 하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진척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 더욱 매진해야겠다고 한 번 더 다짐했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이지만 자연재난이 삶의 터전을 할퀸 지역과 사회적 참사의 아픔이 서린 현장에 늘 함께했다. 종교인으로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곳곳을 찾아간 스님은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 더 많은 곳을 가지 못했다"고 오히려 안타까워했다. 국제적인 전쟁이나 최근의 모로코 지진 피해에 발 빠르게 성명을 낸 것도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다.

"자연재난과 사회적 참사 현장에 누구든 함께 위로해주고 슬픔을 나누는 것이 공존하는 사회에 이웃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얼마 전 대규모 개각을 통해 2기 집행부를 새로 꾸린 진우 스님의 여정은 사실상 이제 시작이다. 총무원장 취임과 더불어 불교중흥을 위한 밑그림을 지난 1년간 그렸다면 앞으로의 3년은 색을 더해 작품을 만들어내는 시간이다.

"포교 활성화, 명상 보급, 종단의 대사회활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로 인해 사회가 안정된다면 그야말로 불국정토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다양한 방편으로 세상과 소통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님과의 일문일답.

Q 지난 1년간 종단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바쁜 한 해를 보내셨는데, 우선 취임 1주년을 맞는 소회가 어떠신지요.

바쁘게 시간이 참 빨리도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사안 하나하나마다 집중을 했는데 당초 구상했던 것에 비하면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느끼지는 못하겠습니다. 더 많은 걸 빨리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지요. 그리고 개인적인 변화가 있다면 어떤 사안을 총무원장이 아닌 자리에서 볼 때와 총무원장 소임을 맡고 난 뒤를 비교했을 때 관점이 조금 달라졌다고 할까요?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일을 성취하기 위한 안목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미래세대와의 소통 시작으로
1년간 전국 누비며 '광폭행보'
"현안에 바쁜 나날 보냈지만
더 많은 성과 못내 아쉽기도"

자연재난 · 참사 현장 찾아가
함께 슬픔 나누며 위로 전해
"사회 안정이 불국정토 구현"

Q 최근에는 청년들과의 소통이 두드러졌습니다. 부산, 충남 공주에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 이야기도 듣고, 또 인생의 조언도 해주셨는데요. 청년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인상 깊으셨던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포교는 너무나도 중요한 종단의 과제이지요. 도제양성과 포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단의 미래는 정말로 암울하고 소수 종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교의 핵심에는 청년불자들이 중요합니다. 청년세대가 불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어야 종단의 미래가 밝아 올 것입니다. 요즘 MZ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전통적인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의 성향을 중요시합니다. 다양한 문화에 노출되어 있어서 가치관이 다양하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여 감각적인 세대이고 현재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이런 세대에게 기존 방식으로 포교를 접근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MZ세대의 특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시선에서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문, 경전과 더불어 활동적인 신행활동이 필요합니다.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수행법이 있어야 합니다. 참선이나 명상이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MZ세대를 자주 만나고 있는데 나름 인생이나 불교에 대하여 진지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 총무원장이시자 상월결사의 회주 스님이신 자승 스님께서 대학생 포교에 원력을 세워 범종단적으로 대학생전법위원회를 출범하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마땅히 종단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인데 자승 스님께서 먼저 챙겨주시고 상월결사에서 이렇게 전폭적으로 펼쳐나가시니 감사한 마음입니다. 종단에서도 미래세대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는 대학생 포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학생전법위원회의 활동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Q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지역 지원이나 신당역 사고 현장 애도 등 종단이 대사회 현안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스님께서도 직접 피해 지역을 방문해 의미를 더했는데요. 종단 대사회활동의 기조는 무엇인가요?

많은 자연재난과 사회적 참사의 현장에 누구든 함께 위로해주고 슬픔을 나누는 것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이웃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단의 직책을 맡다보니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다만,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슬픔의 현장을 찾아가 스님으로서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유족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지도자로서 저의 행보가 그러한 어려운 현장의 모습에 국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자연 재해, 사회적 참사 그리고 개인에 의한 범죄 등 모든 것은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것을 둘러싼 많은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이죠. 그 원인과 해결방법을 사회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모색해보자는 의미입니다.

최근 국내 사건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국제적으로 전쟁과 모로코 지진 참사 등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단의 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연대 활동과 함께 종단 차원에서 사회 현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공감과 치유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3면에 계속



“내년 ‘K-명상’ 프로그램 공개 목표”

‘진우 스님’ 인터뷰 2면에서 계속



진우 스님은 현재 종단차원에서 개발 중인 선명상 프로그램을 내년이면 대중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도심에 건립할 명상센터도 현재 검토 중인 부지만 확정된다면 내년 착공이 예상된다.

Q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세우기를 비롯해 다양한 종책사업이 원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명상의 대중화’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진행 상황과 그에 따른 청사진이 궁금합니다.

마음이 현재의 순간에 깨어 있지 못한다면, 삶에서 주어지는 행복과 평안함을 맛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란한 마음과 흔들리는 감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분별하는 마음과 집착하는 마음만 내려놓으면 곧바로 청정한 마음, 고요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쉬면 긴장이 풀려서 행동이 여유로워지고 몸 또한 건강해집니다.

작년 말부터 종단 안팎의 명상 전문가들과 스터디 모임을 시작하였고, 꾸준히 회의를 거듭하면서 명상프로그램 개발에 매진해왔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선명상 프로그램 초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고, 지금은 국내외 명상프로그램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토대로 각종 명상 프로그램을 분류하여, 명상에 관심을 가진 분들의 상담과 안내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종단에서 개발하는 선명상 프로그램은 수정 보완을 거쳐 내년에는 대중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상센터 건립은 몇 군데 대상 부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서울 안암동 개운사 부지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명상센터 건립 기본설계 작업이 완료되었는데, 만약 개운사 부지로 최종 결정되면 더 구체적인 건립계획서를 만들 것입니다. 내년에 착공할 경우, 3년 정도면 결실을 맺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선명상 프로그램을 만들고 명상센터 건립이 끝나면, 우리 종단은 명상 컨트롤 타워 기능을 완비하게 됩니다. 이 거점을 중심으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템플스테이 시설이나 시민선방 등을 활용하여 명상 붐을 일으켜 나가야 합니다. 명상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사회의 최신 트렌드와도 잘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문화재보호법 개정 등 불교계에 불합리하게 작용했던 법률에서도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종단이 정부와의 소통, 입법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스님께서도 전통사찰의 가치 재평가를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전통사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전통사찰은 한국불교의 수행도량임과 동시에 한국의 전통문화를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복합유산입니다. 한국불교 1700여 년의 역사를 통해 가꿔온 전통사찰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찬란한 불교문화가 꽃피어 전승되어 왔습니다. 수많은 성보 문화유산은 국민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많은 감흥을 주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그 자체로 역사 · 문화적, 생태적, 관광 · 휴양의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사찰의 종교성과 역사성, 문화성, 생태 경관 보전을 위해서는 사찰의 면 단위 보존이 중요합니다. 전통문화의 진정성을 보존해 나가는 일입니다.

또한 전통사찰은 항상 자연과 함께 공존해왔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장성 백양사라고 부르지 않고 백암산 백양사라고 하며, 사찰의 입구를 산문이라고 할 정도로 산과 사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하기에 근대 어려운 시절에도 사찰은 산감이라는 제도를 두고 사찰림을 보호해왔습니다. 산림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당시에 사찰림을 지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존해온 사찰림은 깨끗한 자연환경과 수려한 산수를 만들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 치유를 위해 사찰과 사찰림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치유와 건강의 상징으로 인식하는 것에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와 국민이 전통사찰을 종교와 문화재, 국립공원과 숲 등을 별개로 인식하기보다는 우리 사찰이 가진 전통문화의 상징적 가치와 생태 및 사회적 가치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종단에서 적극 홍보하고, 정책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지난 1년간 펼친 다양한 사업과 활동 가운데 개인적으로 스님께 가장 뜻깊었던 것은 무엇인지요.

문화재관람료 감면 정책, 종부세 폐지, 아미타불교요양병원 개원, 국가법령 개정 등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다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문화재관람료로 인해 그동안 발생했던 여러 갈등이 해소됐다는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사찰 방문객이 늘어나고, 관람료를 내던 과거에 비해 조심성이 줄어 사찰 관리에 어려움은 조금 커진 것 같기도 하고요.

모두 중요한 성과들이지만 천년을 세우다 사업은 향후 미래 불교를 열고 불교 중흥을 위한 토대를 닦는 불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불교의 존재 이유인 중생의 고통의 덜고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화입니다.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사업과 명상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통해 우리 전통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청안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국내외 재난재해 등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 불교계에서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지원하고자 했던 부분들과 세계인들의 관심이 모인 세계잼버리대회에 불교계가 적극 지원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Q 민주연구원장 예방에서 종단차원의 ‘통합연구소’를 언급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은 내용인데, 자세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중앙종무기관 내에 불학연구소, 포교연구실, 불교사회연구소 등 정책 연구 부서들이 있으나 주로 교재 개발이나 특정 분야 정책 연구에 머물러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수년 전부터 통합연구소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 과정에서 사회와 호흡하는 미래 불교정책과 시대에 맞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할 종책연구소로 통합 개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Q 종단개혁 30년에 따른 중앙종무기관 개편 의지도 밝히신 바 있습니다. 복안이 궁금합니다.

종단개혁 30주년을 앞두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 종단 운영 시스템에 대해 평가하여 시대 상황에 부응하고 불교 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조직으로 재점검하려 합니다.

총무부, 기획실 등 현 조직 체계로는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에 맞는 대정부 정책 대응, 뉴미디어 홍보 등을 진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스님, 사찰 등 종단의 주요 자원을 지원하는 기능이 각 부서에 나눠져 있어 통합적 정책 시행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출가자 감소에 따른 출가 전담부서가 없는 현실도 기존 조직의 한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흥을 향한 전법 및 대사회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직 평가를 통해 3원 체제에 대한 재편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앙종무기관이 종단의 변화를 주도하고 미래를 대비하여 시대와 함께하는 효율적 조직으로 위상을 재정립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종회, 교구본사 등 종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Q 매일 108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이제는 스님뿐만 아니라 일반불자들 사이에서도 108배를 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출가수행자로서 108배를 하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진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108가지 번뇌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서원으로 하고, 더불어 우리 불교가 잘 중흥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는 염원이죠. 개인적으로는 원력을 다지고 몸을 건강히 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으로 108배를 함께하신다면 당연히 좋은 일이지요.

Q 총무원장으로서 늘 마음에 어떤 부처님 가르침을 새기고 계신지요.

저는 총무원장이 되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출가수행자이기 때문에 부처님 법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좋고 나쁜 두 가지 극단적인 분별, 감정을 없애는 게 수행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중흥’ 원력 세우고 실천한 1년

사진으로 본 진우 스님의 1년

정리=신중일 기자

2022년 9월 28일 취임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1년은 원력을 이루기 위한 실천행, 그 자체였다.

매일 아침을 108배 정진으로 열고, 종무행정 처리와 각종 종단 행사, 사찰 법문을 다녔다. 틈틈이 시간을 쪼개 청소년 · 대학생들을 만나 소통을 했고, 장애인과 이재민 등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했다.

이 같은 초인적 행보를 할 수 있던 것은 모두 진우 스님이 취임 초 세웠던 원력 때문이다. 스님은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와 K-명상 개발 및 명상센터 건립을 ‘과거 · 미래 천년을 세우는’ 불교 중흥 불사로 천명했으며, 이를 위한 행보를 1년 동안 이어왔다.

진우 스님이 보인 ‘원력의 1년’은 불교가 더 가까이, 대중 속으로 나아가기 위한 보살행이었다. 그 ‘원력의 1년’을 화보로 정리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해 10월 5일 조계사 대웅전 특설무대에서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사부대중이 반야심경을 봉독하는 모습.



지난해 11월 1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진우 스님.



진우 스님과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5월 1일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



2월 6일 봉행된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법회’에서 진우 스님과 윤석열 대통령 내외 등이 화합 떡케이크를 커팅하고 있는 모습.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지난해 9월 28일 임기를 시작했다. 중앙종무기관과 조계사 사부대중의 환영 속에 진우 스님이 집무실이 있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으로 입장하고 있다.



1월 11일 개최한 진우 스님 신년 기자회견. 총무원장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이었다.



진우 스님과 내빈들이 5월 3일 아미타불교요양병원 개원을 축하하며 기념 떡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1월 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진우 스님과 제37대 집행부 스님들이 108배 정진을 하고 있다.

제52차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귀의삼보하옵고,
온갖 빛으로 물들어가는 운문 도량으로 각처에서 수행정진하고 계시는 동문 스님들을 초대합니다.
함께하시어, 소중한 인연과 추억의 자리를 빛내 주십시오.

일시 불기 2567(2023)년 10월 12일(음력 8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
장소 운문사 선열당
안건 동문회 임원 선출 건 / 장학금 전달(필히 본인 참석) / 모교발전과 기타 여러가지 안건
문의 054)372-8800 (운문사종무소)

대한불교조계종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장 동언 합장

전국 곳곳 다니며 법문·소통의 보살행



올해 5월 20일 열린 연등행렬을 구경하는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는 진우 스님.


4월 21일 강릉 산불 피해 현장을 찾은 조계종 위문단이 전소 피해를 입은 인월사를 찾아 성금 50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6일 진우 스님이 난치병 환아들에게 선물을 전하고 있다.



3월 23일 조계사에서 열린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식에 참가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한 순례단원과 진우 스님 등 내외빈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7월 6일 열린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출범식에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과 진우 스님 등 사부대중이 파이팅 구호를 외치고 있다.


8월 6일 대불련 영부디스트 캠프서 강연을 하는 진우 스님.


광주 자비신행회에서 배식봉사를 하는 진우 스님.

2023년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3년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을 공고합니다.

신청자격

1.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으로 매 안거 결계신고를 필하고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스님
2.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한함)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

※ 단, 종단 미등록 사찰 · 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신청서류

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 양식다운)
2.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발급방법)
   1)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방문 발급
   2)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발급
   3)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1355) 전화 신청 후 팩스 발급 요청
   4) 모바일앱(Play스토어) 〈내곁에 국민연금〉 설치 ▶ 로그인(간편인증) ▶ 우측상단 증명발급 선택 ▶ 연금산정용가입내역서 선택 ▶ 화면 맨 하단 팩스발급 선택 ▶ 팩스번호 입력 후 확인 선택 ▶ 요청하신 팩스번호로 발급 완료
3.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3년 10월 1일(일) ~ 10월 31일(화)**까지 승적상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
2.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접수
3. 지원절차 : 재적 교구본사 서류 접수 → 승려복지회 서류 이관 → 서류심사 및 지원 결정 → 지원금 입금(2023년 12월 말 예정)

보험료 지원중지 대상자

1. 매년 3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미제출된 스님
   ※ **신규 지원신청하신 분들은 차기년도부터 해당되며, 기지원자 스님은 보험료 납부종료 시까지 매년 3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셔야 지원 혜택이 가능함**
2.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된 스님
3. 분한신고미필 및 결계 미등재 스님(전 결계 등재 시 지원됨)
4.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된 스님
5.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종료된 스님
6. 보험료 미납하신 스님
7. 군 복무 중인 스님
8. 기타

※ **위 항목에 해당되시는 스님은 지원이 불가하오니 중도에 변동사항 발생 시 꼭 승려복지회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1인당 월 36,000원(정액)이며, 현재 36,000원 미만 가입하고 계신 스님은 납부하신 금액으로 지원됨

문의처

1. 문의처 : **02-2011-1980**
2. 기 타 : 세부사항 및 관련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게재

불기2567(2023)년 9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장 성 화

대사회 역할 강화·각종 규제법령 완화 이끌어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 1주년
제37대 집행부 주요 종책 성과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지난해 10월 31일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불사의 시작을 알리는 고불식이 열암곡 일원에서 봉행됐다. 사진은 고불식 직후 주요 내빈의 기념촬영. 진우 스님은 이 자리에서 불교중흥의 원력을 다시 천명했다.

'천년을 세우다'

2007년 엎어진 채로 발견된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통일신라 8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열암곡 마애불은 높이 5.6m에 무게 약 70톤 규모로, 불상의 코와 지면 바위의 거리가 불과 5㎝밖에 되지 않아 '5㎝의 기적'으로도 불린다. 조계종 제37대 집행부는 열암곡 부처님을 바로모시는 것이 불교중흥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천명하고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명상센터 건립 등을 포함한 종단적 불사 '천년을 세우다'를 전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뒤 전국교구본사와 주요사찰, 단체, 개인 등이 잇달아 불사금을 약정하면서 7개월간 약 50억원을 모연하는 기염을 토했다.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는 안정성과 종교·문화재적 가치, 국민여론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불사를 진행할 것인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입불과 현상을 유지하되 주변을 정비하는 두 안이 유력한 상황.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든 불교를 다시 중흥시키겠다는 신실한 원력은 같다.

'천년을 세우다' 불사의 또 다른 기둥,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은 명상지도자들의 모임과 연구위원회 회의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계종 미래본부가 연말까지 국내외 명상 프로그램을 전수조사 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향후 세워질 종단 명상센터를 찾는 대중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국내외 불교명상뿐만 아니라 타종교 명상, 비종교 명상을 비롯해 각 명상센터의 위치와 시설, 종교성, 운영방식도 포함된다.

조계종 차원의 명상센터 건설은 기본계획서 초안이 완료된 상태다. 건립 부지로는 서울 안암동 개운사 부지가 유력하다. 개운사 부지로 최종 결정되면 구체적인 건립계획서를 거쳐 내년에는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관람료 감면

사찰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은 60여 년간 이어진 해묵은 갈등을 해소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지난 5월 1일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거쳐 4일부터 사찰 방문객의 무료입장을 시행했다. 온 국민이 향유하는 전통문화인 불교문화유산의 소중한 가치를 함께하고자 문화재보유사찰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고, 국가는 감면비용을 지원해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자는 취지다.


지난 4월 15일 취임 200일을 맞아 광주 자비신행회가 주최한 요리교실에 참여한 뒤 친해진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진우 스님.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약 50억원 약정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도 순차적으로 진행돼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 60년 갈등 풀어내
승려노후복지 기반 다지는 요양병원도 개원


지난여름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예천군을 방문해 수해지역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해병대 제1사단을 찾은 진우 스님.

사찰 문화재관람료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돼 징수하기 시작했다. 국립공원입장료 도입 후 1970년부터 통합 징수돼 오다가 2007년 정부가 국립공원입장료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면서 공원 내 사찰과 탐방객들의 갈등은 깊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5월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대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해 사찰 등의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해 관련 예산이 책정·승인돼 비로소 '사찰 문화재관람료 폐지' 라는 숙원이 이뤄지게 됐다.

올해 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예산은 419억 원이며, 감면 대상 사찰은 총 64곳이다. 대부분 국립공원 내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보유사찰이다. 다만 시도지정문화재 보유 사찰인 강화 보문사, 부여 고란사 등 5개 사찰은 국고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징수를 유지한다. 이외에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유 사찰은 전기료를 일부 지원받아 사찰의 문화재 보존 역량을 강화하고 대국민 관람 편의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국가법령 개정

그동안 전통사찰이 갖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담지 못하던 국가법령은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다. 지난 8월 24일엔 매장문화재법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탑과 전각, 부도 등 건조물 내부에서 발견된 문화재에 대해 사찰의 소유권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이 같은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간주해 사찰 소유 건조물에서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없는 무주물로 추정했다. 개정안은 탑과 사리, 사리장엄구가 동일체라는 점을 인정하고, 경내에서 발굴된 성보의 소유권을 사찰로 추정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어 의미가 크다. 앞으로는 경내 시발굴조사에서 나타난 매장문화재도 불교적 성격이 명확할 경우 소유권 판정절차 없이 사찰 소유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개정된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 경관의 가치 증진을 위해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연구와 정부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자연공원 경관 보존·관리를 위해서만 협약을 맺을 수 있어 전통사찰이 여러 규제와 제한에 어려움을 겪었다.

가장 최근인 이달 초엔 전통사찰 주택분 종부세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한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 는 종부세를 합산배제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합산배제 대상은 주택 건물과 주택의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부속토지이며, 연간 사용료가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1000분의 20 이하여야 한다. 전통사찰은 그동안 지역주민의 주거 편의를 위해 최소한의 사용료를 받고 제공한 주택의 부속토지도 주택으로 보아 종부세 합산대상이 됐다. 이로 인해 종단소속 일부 사찰에 수백만원부터 수억원까지 종부세가 부과되면서 사찰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승려복지 안정화

지난 5월 3일 종단이 직영하는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을 개원한 건 승려복지 안정화를 위한 기틀을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일평생 수행과 포교에 매진해온 스님들이 병고의 걱정을 덜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전문 요양병원이 처음으로 마련됐기 때문이다. 의료법인 인덕원과의 업무협약을 거쳐 2008년 개원한 안성시 파라밀요양병원이 종단 직영시설로 전환된 것. 앞서 의료법인 이사장이었던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은 전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에게 파라밀요양병원 운영을 요청했지만, 자승 스님은 종단 직영으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해 총무원에 운영을 제안하면서 업무협약이 급물살을 탔다.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은 올해 3~4월 1차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 4층에 스님 전용 병실 10개와 휴식 공원을 조성했다. 스님들이 고급스럽고 쾌적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24년부터는 건물 2~3층 일반병동을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해 승려 전문요양병원으로 명실상부 제 모습을 갖춰나갈 예정이다.

승려복지회는 스님들이 임종까지 승가의 위의와 존엄을 지키도록 돕기 위해 불교 전통 다비장 설치·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올해부터 권역별, 교구별 다비시설 현황을 파악한 후 모범적 사례를 수집해 시설과 의례의식을 표준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종단과 사찰에서 장례실태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으며, 종단의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이 될 전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원력의 1년…한국불교 중흥 기치 높이다

취임 1주년 진우 스님이 걸어온 길

"국민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주 남산 마애부처님을 일으켜 세워 드려야겠습니다. 넘어진 천년을 일으켜 세운다면 앞으로 천년 동안 국운이 창성하고 국민들은 평안할 것입니다."

"삶이 곧 불교이며 불교가 곧 삶인 현장 포교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불교의 전통 수행방식을 현대화해 다가서겠습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취임사 중 일부다. 취임사를 통해 밝힌 대국민 제안과 약속은, 곧 진우 스님의 원력(願力)이었다. 원력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서원한 바를 이루는 노력이다. 2022년 9월 28일 취임 이래 진우 스님의 1년도 원력을 이루기 위한 실천행, 그 자체였다.

진우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와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명상센터 건립을 천명했고, 미래세대 인재 양성 등을 실천하기 위한 실무 조직인 '미래본부'를 설립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31일에는 제37대 집행부와 직접 경주 남산 열암곡을 찾아 마애불 앞에서 108배를 하며 불사의 시작을 부처님께 고했다. 또한 올해 4월 19일에는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출범식에서 진우 스님은 '천년을 세우다' 불사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스님은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것은 미래 천년을 세우는 초석이 될 것이다. 그 주춧돌 위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미래 천년이라는 건물을 올려야 한다. 바로 불교의 새로운 중흥"이라며 "새로운 미래의 '천년을 세우다' 는 우리 불교의 중흥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문화대국이 되는 국운융창의 새로운 천년을 세우는 엄중한 뜻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같은 원력 아래 마애불 현장에서는 천일기도가 이뤄지고 있으며,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진우 스님이 직접 전문가 팀을 구성해 스터디를 하며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등
'천년의 세우다' 종책 불사 집중
매일 108배, 신심 증진 모범도
법문·봉사로 대중 소통 행보

'불교중흥' 을 위한 진우 스님의 원력실천 행보는 종무행정에만 그치지 않는다. 대중의 신심 고취와 포교 진흥의 원력을 세운 진우 스님은 이에 따라 매일 아침 108배를 하고 있다. 실제 진우 스님은 지난해 9월 28일 취임 이래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처님 전에 108배를 올렸다. 취임 100일인 지난 1월 5일 1차 회향을 했지만, 진우 스님의 '원력의 108배' 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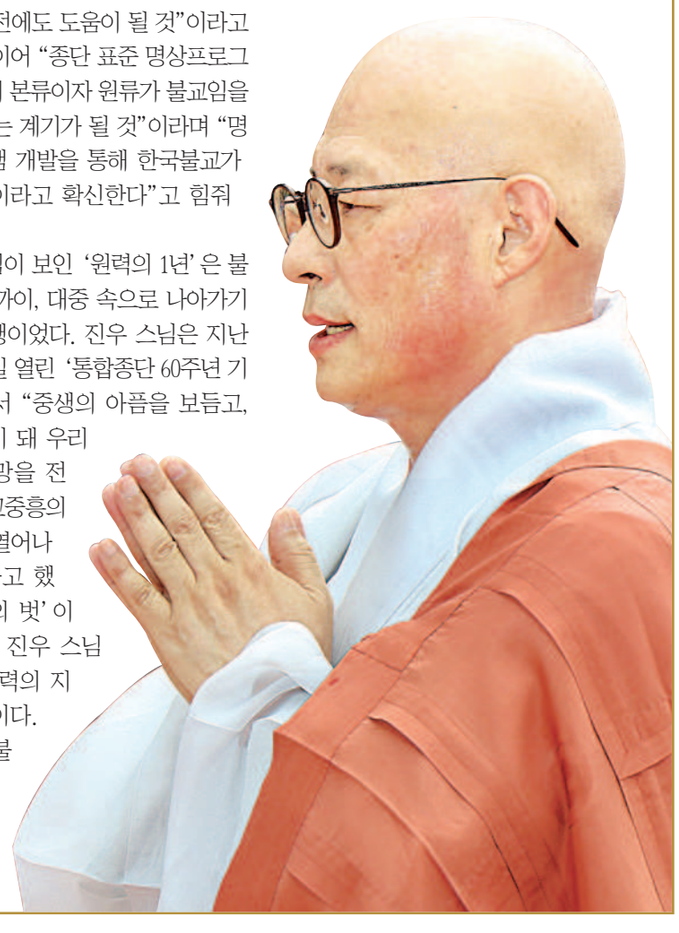
이 같은 진우 스님의 모범은 불자 대중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했다. 취임 100일 108배 현장서 만난 조계사 지장법회 회원 박수경(59, 경기 군포시) 불자는 "행사에 동참하러 왔다가 총무원장 스님이 108배를 하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절을 하게 됐다"면서 "100일을 함께 정진하며 다시 발심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진우 스님은 취임 이후 매일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사찰, 단체 등을 찾아다니며 법문하거나 축사를 한다. 또한 청소년, 대학생, 장애인 등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만나며 소통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는 불자들의 신심을 고취시키고, 마음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진우 스님의 노력들이다.

특히 진우 스님은 만나는 모든 대중에게 명상 수행을 권한다. 지난 3월 30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서울 국제불교박람회 '명상리더 100인과 함께하는 담마토크' 에서 강연자로 나선 진우 스님은 "불교에서 철저히 인과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 한다. 인과를 알고, 연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면서 "괴로움의 인과를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은 선 명상"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200일인 4월 15일 광주 자비신행회 방문행사에서도 진우 스님은 "선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민들에게 보급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면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종단 표준 명상프로그램은 명상의 본류이자 원류가 불교임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명상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한국불교가 융성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힘줘 말했다.

진우 스님이 보인 '원력의 1년' 은 불교가 더 가까이, 대중 속으로 나아가기 위한 보살행이었다. 진우 스님은 지난해 11월 10일 열린 '통합종단 60주년 기념법회' 에서 "중생의 아픔을 보듬고, 세상의 벗이 돼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전해주는 불교중흥의 새 역사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세상의 벗' 이 되는 불교. 진우 스님이 세운 원력의 지향점일 것이다. 그 끝에는 불교중흥이 있다.



신중일 기자

한국불교 포교 화두 '새싹불자 신규 유입'

조계종 포교원 전법중심도량 간담회서 한목소리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전국 전법중심도량 62개 사찰
어린이 · 청소년 포교 부문 집중
저조한 출산율, 법회에도 타격
부모만의 별도 교육 · 지원 필요


새싹불자의 유입이 한국불교 포교 화두로 떠올랐다. 사진은 범어사 어린이합창단의 공연.

계속해서 낮아지는 출산율로 인해 현대사회 사찰의 포교 화두는 줄어드는 새싹불자들의 신규 유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계가 공히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이 같은 고민은 조계종 포교원(원장 선업)이 9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전법중심도량 간담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대두됐다.

현재 포교법과 종령에 의해 지정된 전법중심도량은 전국 62개 사찰이다. 어린이 · 청소년부문이 54곳으로 가장 많고, 어린이 · 청소년 · 장애인 부문 4곳, 어린이 · 청소년 · 새터민 부문 2곳, 장애인 부문이 2곳이다. 교구로는 직할교구에서만 총 24개 사찰이 참여해 가장 많았다. 직지사, 은해사, 쌍계사, 금산사, 선암사, 선운사, 봉선사는 전법중심도량 사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담회에는 전국 전법중심도량 20여 곳의 지도법사와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계층포교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어린이 · 청소년법회 인원 감소, 청소년기 학업으로 인한 사찰과의 인연 단절을 꼽았다.

밀양 용궁사 어린이법회 관계자들은 2분기 합계출산율 0.7이라는 위기상황을 언급하면서 비수도권의 지역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 지도교사는 "요가와 명상 등을 활용해 법회를 운영하고, 여러 행사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지만 코로나19 이후 아이들 수가 줄어들었다"고 현황을 전했다.

서귀포 하논봉림사 명현 스님 "갈수록 어린이법회 참석률이 낮아진다. 새로운 유입이 필요한데 다른 사찰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인천 수미정사 금선 스님도 "인천은 중학교 2학년부터 학교 시험이 중요해지는데 그때부터 더 이상 절에 나오지 않는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한 사찰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결했는지 조언을 얻고 싶다"고 밝혔다.

전법중심도량 사찰 관계자들은 포교원에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지도교사 인재 인프라 구축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금선 스님은 "작은 사찰들은 신도가 아닌 이상 지도교사 초빙이 어렵다"며 "지도교사들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해서 전법중심도량 사찰끼리 공유하고 연결해줬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지도교사의 고령화'를 언급한 부산 관음사 최미선 국장은 "아이들도 젊고 예쁜 선생님을 좋아한다"며 "대학 불교동아리 학생들과 연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들을 위한 장학제도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조계사 포교국장 정수 스님은 어린이법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부모 교육을 강조했다. 어린이법회에 참석하는 아이들과 달리 부모는 각자 생애에 따라 불교에 대한 이해의 폭이 천차만별이기 때문.

스님은 "여러 사찰이 어린이법회 예산은 책정하지만 부모를 위한 것은 많지 않다"며 "부모의 신행, 교육 등이 강화되면 어린이법회도 보다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선 범어사와 부산 관음사의 어린이 포교 우수사례 공유도 이뤄졌다. 범어사는 현재 월 1회 국제포교사회 청소년부의 도움을 받아 어린이 영어법회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월 제14회 자타카 영어말하기 대회에서 수도권 사찰들이 준비한 응원이나 발표 구성이 자극이 됐다. 또한 3년째 운영 중인 어린이합창단, 문화체험을 테마로 한 부산불교연합회의 선재동자문화전승단, 어린이 불교심리상담 등이 소개됐다.

"이천오층석탑 환수, 전방위로 돕겠다"

진우 스님, 석탑환수위 예방서 '석탑 환수 지지 입장문' 서명


이천오층석탑 환수 지지 입장문에 서명하는 진우 스님.

일본 오쿠라 호텔 슈코칸(集古館)에는 고려시대 조성된 이천오층석탑이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가 한반도에서 무단으로 반출한 것으로, 이천시와 시민들은 약 15년 전부터 석탑 환수를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이천시민들의 이천오층석탑 환수 운동에 지지 의사를 밝히고, 전폭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스님은 9월 20일 이천오층석탑 환수위원회 관계자들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불교가 해야 할 일을 이천시민들이 나서 환수운동을 전개해주셔서 감사하다. 종단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예방에는 환수위 공동위원장 보문 스님(평택 자비사 주지), 송석준 국회의원(이천시), 이성호 이천시 부시장, 이상구 환수위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총무원에서는 사회부장 도심 스님, 사서실장 진경 스님이 배석했다.

환수위 공동위원장 보문 스님은 "매년 일본 측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지난 3년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잠시 주춤했다가 현재는 다시 환수위를 정비하고 제2의 환수운동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수운동 시작 당시 총무원장이셨던 자승 스님께서 환수 운동을 지지해 주셨다"면서 "오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 오쿠라 호텔과의 협의가 예정돼 있다. 환수운동이 재개되는 만큼 총무원장 스님의 지지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리겠다"며 "한일불교도 모임인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환수운동의 정당성을 알리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이천오층석탑 환수 지지 입장문'에 직접 서명하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진우 스님은 지지 입장문을 통해 "이천오층석탑은 일제로부터 무단반출됐다는 조선총독부의 명백한 근거 문서가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국외소재의 우리 문화재"라며 "이천오층석탑의 경우 반출된 경위가 뚜렷이 기록되어 있는 바 그 어떠한 문화재보다도 조속히 돌아와야 할 우리의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불교계의 환수 지지 성명이 종교적 · 문화적 측면이 한일 교류에 있어 물꼬를 틀 수 있는 역할이라 생각하기에 대한민국 불교의 최대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은 이천오층석탑환수위원회가 일본 오쿠라재단에 펼치는 '이천오층석탑' 환수 활동에 지지를 표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낸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Weekly 자비나눔

수성 대종사 '천년을 세우다' 원력 보태



대구 정토사 회주 수성 대종사는 9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만나 아름다운동행에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 자리에는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 총무원 총무부장 성화 스님,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이 함께했다.

불사 원만 회향을 발원한 수성 스님은 백송 나무를 이용한 종단 차원의 '치유의 숲' 조성을 제안했다. 스님은 50여 년 전 조계사에서 받은 백송나무 씨앗을 정토사로 옮겨와 키우기 시작했고, 현재 500그루로 성장했다. 이를 활용해 법성게를 구현, 210그루의 나무를 심어 숲길을 만들자는 계획이다.

수성 스님은 "백송은 일반 소나무보다 향이 뛰어나고 천연 멜라토닌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한 귀한 묘목"이라며 "안성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이나 마땅한 공간이 있다면 종단 차원의 백송 산책 공원을 조성해 스님과 불자들에게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백송 숲길이 조성되면 불자들에게도 우수한 휴게 공간이 될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조성할 만한 부지를 찾아보겠다"라고 약속했다.

김내영 기자

청룡사,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2000만원



서울 청룡사 주지 진홍 스님은 9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청룡사 주지 진홍 스님은 "좀 더 일찍 마음을 내야 하는데 늦어서 죄송하다. 종단 종책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청룡사가 전통사찰이지만 건물 등기가 안 돼 있다"며 종단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등기가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찰이 적지 않다. 이를 구제하기 위해 종단과 관계기관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내영 기자

금천선원 '암 진단금 보험금' 기부



한국불교 중흥과 나라의 평안을 염원하며 암 진단 보험금을 선뜻 기탁한 사연이 감동을 주고 있다.

부산 금천선원 주지 정섭 스님과 조동현 · 차영희 불자는 9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불사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기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기금은 조동현 · 차영희 불자가 기부한 1000만원에 신도회가 모은 기도복지기금을 합쳐 마련됐다.

암 진단 보험금으로 불사금을 마련했다는 차영희 불자는 "진우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취임할 당시 '나라 안팎이 시끄러울 때 경주 남산 마애부처님을 바로세우면 나라의 평안도 찾아올 것'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마음에 크게 와닿았다"며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꼭 동참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마음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며,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김내영 기자



광용 스님, 비구니회장 당선…"참여 · 도약 · 미래"로

9월 18일, 462명 동참 총회서 만장일치 인준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광용 스님 "화합 공약 실천" 약속
6000 대중스님에 관심 · 참여 당부
본각 스님 "축제 같던 선거…기뻐"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13대 회장에 광용 스님이 당선됐다. 단독 입후보자였던 광용 스님은 9월 18일 오후 1시 서울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열린 제13대 회장 선출을 위한 제17차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이날 선거에는 462명이 선거인명부에 점명하며 선거에 동참했다.

이번 선거는 전국비구니회 선거법 제정 이후 처음 시행된 비구니회장선거다. 선거 당일 전국비구니회관에는 이른 아침부터 전국에서 모여든 스님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비구니회장 선거에 대한 스님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은 물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왔다.

단독 입후보자는 무투표로 당선자로 확정한다는 전국비구니회 회장선출위원회 시행규칙 제3조 3항에 따라 광용 스님은 자격심사 통과 후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으며 회칙에 따라 200명 이상 출석한 총회에서 인준 받아 이날 최종 회장으로 당선됐다. 인준방법은 박수로 결의했다. 참석 대중스님들의 뜨거운 박수로 광용 스님이 만장일치로 회장에 인준되자 당선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13대 전국비구니회장 선거는 여법하게 마무리됐다.


광용 스님

광용 스님은 당선 소감을 통해 먼저 지난 4년 동안 비구니회를 이끈 12대 회장 본각 스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업적과 유지를 잘 받들어 반세기의 역사를 지닌 전국비구니회 공덕 탑 위에 제13대 '참여와 도약, 미래로 나가는 비구니회' 라는 돌을 쌓아올린다는 각오로 책임감 있게 회장소임을 살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화합을 강조했다. 스님은 "중앙본회와 19개의 지회가 화합할 승가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소임자들이 함께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바 소임을 잘 살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광용 스님은 대중스님에게 마음을 모아줄 것을 역설하며 "6000 대중스님의 관심과 참여, 때로는 경책이 있어야 공약 실현이 가능하다"면서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 총회는 성원보고와 의장 스님의 개회선언,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의장스님 인사말, 경과보고, 총회 안건인 13대 회장 선출의 건 상정, 공약발표, 인준방법 결의, 인준, 당선증 교부, 당선소감, 축하 및 감사인사, 사홍서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총회에는 총 462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선거인 명부에 점명했으며, 490여 명의 스님이 총회에 동참했다.

이번 선거는 선거법 제정 이후 단독후보 선거가 처음 시행된 만큼 진행과정에서 회칙과 선거법간의 부조화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했다. 이에 대해 선출위원회 위원장 정운 스님은 경과보고에서 회칙과 선거법 간의 부조화로 선출 과정에서 다소 미흡 점이 있었던 것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부족함을 극복하고 공명정대하고 투명 여법하게 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면서 "선거법 미비한 부분은 책임지고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용 스님은 안건 상정 후 진행된 공약 발표에서 "12대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이 열정 다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4년간 지켜보면서 인생 마지막 회향에 공적인 소임을 맡은 것도 보람되겠다는 생각에 회장에 출마했다"면서 "12대에 부회장 소임을 산 경험을 바탕으로 제13대 전국비구니회를 참여와 도약, 미래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4년간 회관에 거주하며 제12대 전국비구니회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고 화합 승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비구니 승가 역량강화와 인재육성 진력 △안정된 복지환경 조성 △비구니승가 위상과 정체성 확립 △대중으로부터 신뢰받는 비구니 승가 구현 등을 약속했다. 이어 미래 지향적인 안목으로 공약을 실천하는 데 있어 비구니스님들의 공익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비구니회관이 스님들의 구심점이 되도록 열린 공간으로 바꿔나가겠다. 공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어른스님들의 조언을 경청하고 소임자 스님들과 성실히 이행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본각 스님은 축하 인사를 통해 "이번 선거가 축제처럼 이뤄져 기쁘다"면서 "4년 전 회장 소임을 맡으며 비구니회만은 서로 존중하고, 차별 말고, 무시하지 말자는 소원이 이뤄진 순간"이라고 감동을 전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회장스님께서 불자들과 함께 비구니회관을 잘 가꿔가길 기대한다"면서 "무거운 짐을 진 스님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전국비구니회는 비구니스님들의 건강검진에 힘써주는 동국대일산병원에 발전기금 12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명숙 동국대일산병원 대외협력홍보팀장은 "비구니스님들의 마음이 모인 기금이 의료 포교도량의 귀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면서 "교직원 모두가 약사보살의 화연으로 자비의 인술로써 부처님 법 전하는 밝은 연등이 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제13대 전국비구니회장 임기는 11월 13일부터 4년간이다.

조계종, 모로코에 '구호단' 급파

10만불 상당 구호 물품 지원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이 강진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모로코를 위해 '조계종합동구호단' 을 현지 파견,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한다.

조계종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을 필두로 구호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과 '조계종합동구호단(구호단)' 을 조직, 선발대와 본대를 나눠 두 차례 현지 파견한다.

급박한 현지 상황을 고려해 우선 사회복지재단과 굿월드자선은행 실무자가 9월 18일 현지에 파견됐다. 선발대는 이른 시일 내에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조사와 현지파트너쉽을 체결할 예정이다.

준비 과정이 끝나는 10월 초중순에는 본대가 출국해 10만불 상당의 구호물품을 수송,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모로코에 지원되는 물품은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모연한 긴급구호기금으로 운용된다.

모로코는 9월 8일 서남부 아틀라스 산맥 부근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해 주택이 대거 무너졌다. 지진으로 3000명 가까이 숨지고 5000명 넘게 다쳤다. 김내영 기자

무진장 스님 10주기…"가르침 따라 정진"

9월 19일, 조계사서 다례재 봉행
"실천 대승보살 될 것" 다짐도

한평생 전법활동에 매진하며 '한국의 부루나 존자' 로 불렸던 혜명당 무진장 대종사의 원적 10주기를 맞아 생전 스님의 가르침과 뜻을 되새기는 추모법석이 마련됐다.

무진장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진관)은 9월 19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혜명당 무진장 대종사 열반 10주기 다례재' 를 봉행했다.

무진장 스님은 평생 무소유의 삶을 실천해 '7무(無) 스님' 으로도 불렸다. 한겨울에도 모자나 목도리, 장갑, 솜옷을 걸치지 않았고 자동차, 사찰을 소유하지 않았으며 평생 조계사 대중으로 방 한 칸에서 청빈한 수행자의 삶을 살았다. 오로지 미래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대중포교에 진력, 법문을 청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갔고 설법이 능해 '부루나 존자' 로도 칭송받았다.

"지금 파고다공원에서 설법할 사람이 없습니다. 종로거리에서 법문할 사람이 없습니다. 무진장 스님, 어서 오십시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자광 스님이 무진장 스님을 그리워하며 지난 시절을 회고하자, 대중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무진장 스님 원적 10주기를 맞아 9월 19일 서울 조계사에서 다례재가 봉행됐다.

법산 스님도 무진장 스님과의 인연을 곱씹으며 "무진장 스님이 바로 이 자리에서 살아있는 듯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 모두가 무진장 스님의 원력을 이어 힘차게 정진할 것을 함께 다짐하자"고 서원했다.

다례재가 봉행된 조계사는 무진장 스님이 46년간 머무르며 전법포교에 전념했던 도량이기에 더욱 의미가 컸다. 박경숙 조계사 직장직능 대승법회장은 불자들을 대표한 추모사에서 "큰스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정법을 공부하고 수행정진하는 지혜로운 불자가 되길 바라셨다"면서 "그 가르침 잊지 않고 부족하지만 정진하고 실천하는 대승보살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조계종 제2 · 4대 포교원장을 역임한 무진장 스님은 2007년 원로의원으로 추대된 뒤 대종사를 품수했으며 2010년 조계사 회주로 추대됐다. 평생 대중교화와 교육에 매진한 공로로 조계종 포교대상을 비롯해 제3회 대원상 대상 등을 받았다. 1987년에는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하기도 했다.

종로 탑골공원을 찾아 매일 노숙자 등을 위해 법문한 일화는 스님의 대중교화의 원력을 한눈에 보여준다. 40여 년간 조계사에 주석했지만 주지 소임을 맡지 않은 스님은 2013년 9월 9일 세납 82세로 원적에 들었다. 임은호 기자

故김주일 前편집국장, 불교언론인상 선정

조계종, 2023 언론문화상 발표
26년 교계 언론 발전 공로 인정



지난 5월 4일 별세한 본지 故김주일 前편집국장〈사진〉이 제31회 불교언론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진우)은 9월 22일 제31회 불교언론문화상 수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불교언론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들을 시상하는 '불교언론인상' 의 올해 수상자로는 본지 故김주일 前편집국장이 선정됐다.

故김주일 前편집국장은 1997년 〈현대불교신문〉 공채 2기로 입사한 이래 줄곧 평생을 불교언론인으로 살아왔다. 〈주간불교〉에서 편집국 총괄부장을 지냈으며, 〈현대불교신문〉에서 편집부장과 편집부국장, 편집국장을 역임했다.

26년을 종단, 포교, 문화, 출판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을 취재하며 불교계 소식을 대내외에 알렸고, 〈현대불교신문〉에서 불교문화체험기행을 기획해 4년 동안 진행했다.

이와 함께 제31회 언론문화상 대상은 BTN '특집다큐 스님의 눈물 2부작' 이 선정됐다. 방송부문 최우수상은 KBS청주 '특별기획 직지 시절인연' , 라디오부문 최우수상은 BBS제주불교방송 '제주 불교 4 · 3기억의 흔적을 되짚다' , 언론보도부문 최우수상은 불교신문사 '이제는 禪명상 힐링의 시대' , 뉴미디어 부문 최우수상은 비브로스팀 '걸어서 템플속으로' 가 각각 선정됐다. 이외에 우수상 3편과 특별상 2편도 선정됐다.

운영위원장 혜공 스님(조계종 문화부장)은 "올해 불교언론문화상에 출품된 작품들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포교의 수단으로써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하다"면서 "언론인상을 수상한 故김주일 현대불교신문 前편집국장은 생전에 불교언론에 이바지한 바가 크고, 고인의 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수상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제31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은 10월 31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최되는 '2023불교문화대전' 폐막식에서 진행된다. 신중일 기자

황금 불탑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 6일

12월 7일 출발~12일 도착 (5박6일)

동참금 | 259만원

일 정 | ▶1일 : 미얀마항공편으로 인천–양곤
▶2일 : 양곤–바간
▶3일 : 바간–만달레이–민군–만달레이
▶4일 : 만달레이–헤호
▶5일 : 헤호–양곤
▶6일: 양곤–인천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대탑 5일

12월 6일 출발~10일 도착 (3박5일간)

보로부두르 대탑은 1,200여년전 만들어진 세계 최대의 불탑입니다.
1460개에 달하는 벽면에는 부처님의 전생담과 탄생등 생애에 관한 장면들이
그리고 화엄경의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내용이 조성되어 있고
최상층에는 화엄법계를구현하는 부처님의 세계를 조성한 세계 최고의 불탑입니다.

동참금 | 169만원

일 정 | ▶1일 : 아시아나항공편으로 인천–자카르타
▶2일 : 자카르타–족자카르타–프람바난사원,세우사원,플라오산 불교사원등 순례
▶3일 : 보로부두르 대탑, 멘듯사원등 순례
▶4일 : 머라피 화산 지프로 관광 후 족자카르타 출발, 자카르타 도착(경유)
▶5일 : 인천 공항 도착

인도 성지순례 10일과 11일 출발일정

동참금 | 270만원~280만원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상카시아–아그라–델리–인천

▶1차) 11월 02일 출발~11월 12일 도착(11일 일정)
▶2차) 11월 18일 출발~11월 28일 도착(11일 일정)
▶3차) 12월 26일 출발~01월 04일 도착(10일 일정)
▶4차) 01월 13일 출발~01월 23일 도착(11일 일정)

아잔타 석굴 포함 인도성지순례 15일

동참금 | 370만원

일 정 | 인천–델리–오랑가바드–아잔타석굴–엘로라석굴–보팔–산치대탑–아그라–기원정사–카필라성–룸비니–쿠시나가르–케사리야–바이샬리–나란다대학–영축산–보드가야–바라나시–사르나트–델리–인천

▶10월 17일 출발~10월 31일 도착(15일 일정)
▶12월 26일 출발~01월 09일 도착(15일 일정)
▶01월 16일 출발~01월 30일 도착(15일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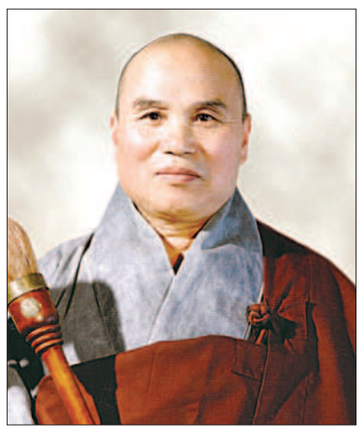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한국불교 근현대 선지식 추모·선양 행사 '눈길'

'선림고경총서' 무료 공개 성철 스님 선사상 알린다

백련불교문화재단, 성철 스님 열반 30주기 추모행사

총서 全37권 E-Book 무료 공개
10월14일 30주년 학술대회 개최
성철 스님 사상·수행 면면 조명
문도회 등 4일4야 4만8천배 기도



조계종 제6·7대 종정예하셨던 근현대 대표 선지식 성철 대종사(1912~1993, 사진)의 열반 30주년을 맞아 스님의 수행과 사상을 선양하기 위한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린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9월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철 스님의 열반 30주기를 맞아 스님께서 현창하고자 했던 선문(禪門)의 정법을 널리 펴기 위해 〈선림고경총서〉 37권 전권을 전자책 형태로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선림고경총서'는 1984년부터 번역자를 탐문해 번역을 시작했으며, 1987년 가을 선문의 소의 경전에 해당하는 어록을 한 권으로 묶은 〈선림보전〉이 출간됐다. 이후 1993년 〈벽암록〉 상·중·하 3권을 발행함으로써 '선림고경총서' 전 37권이 완간됐다.

현재도 선 수행자와 연구가들이 꾸준히 찾는 '선림고경총서'는 주문자 제작 서비스(POD)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백련불교문화재단과 성철 스님 문도회는 선의 정법을 현창하고자 했던 성철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스님의 열반일인 11월 3일에 맞춰 '선림고경총서'의 무료 공개를 결정했다.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선림고경총서'는 선의 바른길을 현창하고자 했던 은사스님의 정신과 30년에 걸친 추모사업의 근간이었다"면서 "은사스님의 원력으로 탄생한 '선림고경총서'를 전자책으로 만들어 대중들에게 무료 공개·배포하려 한다. 이제 세계 어디서라도 편리하게 '선림고경총서'를 열람해 조계(曹溪)의 맑은 물을 맛보는 계기가 되고, 우리 각자가 지니고 있는 '고경(古鏡)'을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서재영 성철사상연구원장은 "이번에 공개되는 〈선림고경총서〉는 성철 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열람할 수도 있으며, 각각의 책에 대한 링크를 SNS를 통해 공유해 개인용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열람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열반 30주기를 맞아 스님의 수행과 사상을 조명하기 위한 학술 세미나도 마련됐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회장 권기현)와 백련불교문화재단 부설 성철사상연구원은 오는 10월 14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성철스님의 불교 인식과 현대적 적용'을 주제로 '성철 스님 열반 30주기 추모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세미나에는 △박태원 영산대 교수의 '퇴옹은 왜 돈오점수를 비판했을까' △신규탁 연세대 교수의 '성철 선사의 선 문헌 속에 인용된 경전과 어록' △김광식 동국대 교수의 '성철 법맥의 재인식' △강경구 동의대 교수의 '〈선문정로〉 문장 인용을 통해 본 성철선의 특징'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의 '성철 스님의 수좌형 리더십의 사회적 영향력 분석' △김명우 동아대 교수의 '〈백일법문〉에 나타난 퇴옹성철의 팔식설 고찰'이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수행을 통해 성철 스님의 뜻을 기리는 법회들도 잇달아 진행된다. 성철 스님 문도회와 해인사 백련암은 10월 28일 오전 10시 성철 대종사 사리탑전에서 '성철 대종사 열반 30주기 3000배 정진'을 진행한다.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백련암 고심원에서 '성철 대종사 열반 30주기 추모 4일 4야 4만8000배 참회법회'가 봉행된다. 11월 3일 오전 9시 성철 대종사 사리탑에서는 열반 30주기 헌공다례가, 오전 10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는 열반 30주기 추모다례가 봉행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불교 대중·세계화 구산 스님 수행·전법 등 면면을 살피다

10월 13~19일 보조사상硏·송광사, 국제학술대회 등

구산 스님 간화선 사상부터
불교 세계화까지 조명 나서
덴마크 제자들 참여해 '눈길'
외국인 제자 인연담 발간도



조계총림 송광사의 초대 방장이자, 불교 대중화·세계화를 위해 평생을 살았던 근현대 선지식 구산 스님(1909~1983, 사진)의 열반 40주기를 맞아 스님의 사상과 삶 전반을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와 다양한 추모·선양행사가 열린다.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자공)과 보조사상연구원(원장 이병욱)은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6박 7일 간 국제학술대회·심포지엄, 구산 스님 수행처 방문, 효봉·구산 스님 공동 추모재 등 추모 행사를 개최한다.

추모 행사의 시작은 보조사상연구원이 연다. 보조사상연구원은 9시 30분 서울 종로 법련사에서 '구산 스님 열반 40주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불교 대중화에 끼친 구산 스님의 영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구산 스님의 간화선 사상부터 제2정혜결사, 불교 대중화·세계화 등 스님의 면면을 조명하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특히, 구산 스님에게 혜명(慧明)이라는 법명을 받고 송광사에서 간화선을 수행했던 로버트 버스웰 UCLA 교수와 덴마크 제자들이 직접 참가해 스님의 삶과 사상을 조명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날 국제학술대회에서는 각 연구 주제별로 총 7개의 연구논문이 발표된다. 특히 버스웰 교수는 '구산의 가르침의 유산으로서 지눌사상'을 주제로 구산 스님을 통해 접한 보조지눌의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를 중심으로 한국 선사상의 흐름을 서술한다. 버스웰 교수는 지눌의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가 전근대의 동아시아 불교 문헌에서 수증론으로 가장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례에 속하며 '온건한 돈오주의'와 '급진적 돈오주의'의 궁극적인 융합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외국인 제자들의 발표들은 구산 스님의 한국불교 세계화 원력을 알 수 있어 중요하다. '스승으로서 구산-설법방식'을 발표하는 헨릭 소렌센 독일 보훔대학 교수는 구산 스님이 가르침에 대해 전통적 선(禪)의 방식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외국인 제자에게 부합하는 방식으로 전달되었다고 주장한다.

도리트 바그너 덴마크 코펜하겐대학 교수는 '구산의 덴마크에서의 전통적 선(禪)의 선양-일심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통해 1972·1980·1982년에 이뤄진 구산 스님의 덴마크 방문에서 스님이 어떻게 설법했으며, 스님의 방문에 덴마크 불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명한다.

이와 함께 △화두참구에 대한 내러티브적 접근(인경 스님 명상상담평생교육원장) △구산수련의 제2정혜결사 활동과 의의(김방룡 충남대 교수) △구산수련의 '불교의 대중화'와 '한국불교의 세계화' 활동과 그 사상적 근거(이병욱 고려대 교수) △현대 대한불교조계종 설립과 구산의 역할(김경집 동국대 교수) 등도 발표된다. 특히, 김경집 교수는 구산 스님이 1969년 5월 17일 총무원에 제출한 '조계총림 창립 취지서'를 학술대회에서 처음 공개할 예정이다.

국제학술대회에 이후에는 순천 송광사로 이동해 괘불재(10월 14일), 금강산림법회 회향식(10월 15일), 효봉·구산 스님 공동 추모재 및 구산 스님 열반 40주기 국제심포지엄(10월 16일), 구산 스님 수행처 방문(10월 17~18일) 등의 추모행사를 진행한다.

한편, 구산 스님과 외국인 제자들의 인연 이야기를 수록한 〈구산 스님과의 인연담〉도 10월 10일 출판된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명상 생활화 이끌 지도자 양성"

명상지도자협, 명상아카데미 개강
10월 11일부터 온라인…총 10강
12월 16일, 명상지도자 워크숍도

한국명상지도자협회(이사장 혜거)가 '제14기 명상아카데미 대강좌'를 개강한다. 총 10강으로 구성된 강좌는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눠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기초반은 10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심화반은 10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된다. 강의 시간은 오후 2시~5시 30분이며, 실시간 화상강의(ZOOM)로 참여하면 된다.

명상아카데미 대강좌는 최일선에서 불교명상을 개발·보급하고 있는 대표 명상지도자 20명이 직접 강의한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장 혜거 스님을 비롯해 행복마을 이사장 용타·가피를 나누는 사람들 대표 적경·한국명상심리상담교육원장 인경·보리마을자비선명상원 선원장 지운·행불선원 선원장 월호·자비명상 대표 마가·은유와 마음연구소 대표 명법·참선원 주지 무애·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 등이 교수진으로 나선다. 강좌에서는 불교 초기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남방 전통의 위빠사나, 사마타, 자비명상은 물론 동사섭, 가피명상, 자비다선 차명상, 행복수업 등 대승명상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12월 16일에는 '한국 명상의 대중화, 생활화 사례와 과제 그리고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3차 한국명상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김내영 기자**

'선명상' 수좌들에게 직접 배워볼까

한국참선지도자協, 韓명상총협회
'제9기 참선아카데미 명상대강좌'
10월 6~9일 문경세계명상마을서

한국참선지도자협회(이사장 의정)와 사단법인 한국명상총협회(회장 각산)는 공동으로 '제9기 참선아카데미 명상대강좌'를 10월 6일부터 9일까지 3박 4일간 문경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에게 개최한다.

4일 간의 강좌는 '명상의 완성은 간화선이다'라는 주제로 한국참선지도자협회 이사장 의정 스님의 법문으로 시작되며 △전국선원수좌회 의장 성산 스님의 '참선수행을 통한 자기혁신' 문경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선원장 각산 스님의 '초기불교와 간화선 통합수행' △만연사 선원장 나월 스님의 '간화선 화두의 실제와 이해' △30년 선승 혜우 스님의 '마음 작용과 사성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전현수 박사의 '불교명상 심리치료' 등 명상 대가들의 강의와 선승들이 직접 주관하는 실참 및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한국명상총협회장 각산 스님은 "이번 강좌 통해 참가자들은 전문적인 역량을 갖춰 부처님 법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명실상부한 명상지도자가 될 것"이라며 "명상하는 법과 선문답, 심리치료를 통해 스스로를 소외시켜가는 현대인의 마음을 밝힐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존재로부터의 자유를 성취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경세계명상마을(010-6234-2946), 참선지도자협회(010-7705-0804) **신중일 기자**

제 13회 팔공산 산중 전통장터

승시 僧市

제13회 팔공산 승시에 초대합니다

2023.10.07(토)-09(월)

팔공총림 동화사 일원

[주요 프로그램]

개막법요식, 개막축하공연, 불교문화공연, 국악·클래식 한마당, 장터마당, 먹거리마당, 승가 씨름대회, 승시 국화축제, 사찰음식 만들기, 승시 체험 프로그램 등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주 관 | 팔공산 승시축제 봉행위원회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대구광역시 대한불교조계종 Daegu Buddhism Association 대구불교총연합회

대불련 창립 60돌…“학내 포교 · 전법 앞장”

9월 16일, 동국대서 기념법회
선배 · 재학생 “불교 중흥 발원”
이순규 등 동문에 감사 · 공로패
전법센터 건립 천일정진도 회향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대불련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향후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한국불교 현대화 · 대중화를 염원했던 대학생 불자들의 열정이 대불련 60주년을 이끌었습니다. 오랜 경험을 기반으로, 선배 · 재학생 모두 마음을 뭉쳐 다시 한 번 불교중흥에 앞장서야 합니다. 대불련 100년을 향한 닻을 올립시다.”

신호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초대회장의 개막선언에 대불련 동문들과 재학생들의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이들은 대불련의 지나온 60년 과정을 발판삼아 향후 100년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유정현)와 대불련총동문회는 9월 16일 서울 중구 동국대 중강당에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창립 60주년 기념법회-우리는 하나, 대불련의 이름으로’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불련 창립 동문인 관음종 종정 흥파 스님을 비롯해 신호철 대불련 초대회장, 이상훈 교불련회장, 이찬영 중앙신도회 사무총장, 유정현 대불련 회장 등 동문과 재학생 등이 참석해 창립 60주년을 자축했다.

대불련 60년 역사를 담은 자료집 〈대불련 60사〉를 대표로 봉정한 유정현 대불련 회장은 대학의 전법시대를 열어갈 것을 천명했다. “무한 경쟁사회 속에서 부처님의 마음으로 나와 남이 다르지 않음을 알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불교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젊은 세대의 탈종교화를 막기 위해 대불련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능동적으로 성장하는 대불련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최승태 대불련총동문회장 권한대행은 “대불련 60년 역사는 올곧이 캠퍼스 포교의 역사다. 대학 전법의 주인공은 대불련 재학생들”이라며 “우리 동문들은 재학생들의 무한능력을 믿고 함께 응원하고 동행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내빈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대불련 3대회장을 역임한 관음종 종정 흥파 스님은 창립부터의 과정을 회상하며 대불련의 발전을 기원했다. 스님은 “1963년 9월 22일 동국대 중강당 9번째 줄에서 대불련의 창립을 함께했다. 당시에는 현수막 하나 내걸기 어려워 전법 활동에 제약이 많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대학생 법우들과 점심을 굶어가며 의견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열정을 다했다”며 “대학생전법을 위한 상월결사의 새로운 불교활동과 대불련의 전법활동이 어우러져 대학생 불자들의 영향력이 여기저기 뻗어 나가고 활기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윤식 중앙신도회장의 축사를 대독한 이찬영 사무총장은 “대불련은 불교의 사회참여 확산과 불자 인재 배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전했다.

이날 대불련과 총동문회는 대불련 발전에 진력한 이순규 박사(전남의대 59학번), 이장백 박사(경북의대 61학번), 백효흠 26 · 27대 동문회장(경상대 70학번)에게 감사패와 공로패를 수여했다.

특히 대불련 선후배가 서로 악수를 하며 안녕을 기원하는 윤장인사도 눈길을 끌었다.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응원과 덕담을 건넸고, 후배들은 대불련의 성장 · 발전에 힘써준 선배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기념법회는 동불108합창단의 축하공연과 중앙승가대 교수 선각 스님의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봉독’ 특별 공연으로 마무리됐다.

기념법회에 앞서 대학전법센터 건립 천일정진 회향식도 진행됐다. 평택 보국사 주지 법현 스님과 서울 약사암 주지 일휴 스님이 대학전법센터 건립 회향을 축원했으며, 금강경 · 법성게본 · 사경본을 봉정했다. 총동문회는 대불련을 위한 불교회관 건립을 목표로 2020년 12월 27일 기도에 입재했다. 서울, 제주, 대전,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등 전국의 대불련 동문과 불자들이 동참, 현재 5억여 원의 불사금이 모연됐다. 동문회는 향후 논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초가을 봉녕사서 만나는 ‘사찰음식 진수’

10월 6~7일, 경내서 ‘2023 제14차 사찰음식대향연’

사찰음식의 진수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열린다.

사찰음식으로 불교의 맛과 멋을 알려온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가 10월 6~7일 경내에서 ‘2023 제14차 사찰음식대향연’을 개최한다.

행사는 ‘우주생명을 살리는 사찰음식’을 주제로 전 세계 주요 화두인 환경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사찰음식의 친환경적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된다.

6일 첫날에는 사찰음식경연대회 시식 및 평가 · 전시를 시작으로 두부 만들기 시연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사찰음식에 담긴 불교적 의미를 직접 느껴볼 수 있는 차명상, 육법공양, 탁발순례, 나눔 찻자리, 사찰음식 전문가 법송 스님의 사찰음식 실습강좌(더덕대추전, 우엉찹쌀전)도 준비됐다.

둘째 날에는 현대화 시설을 갖춘 사찰음식교육관 금비라 졸업식과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특강(배추김치, 좁쌀알타리)이 이어진다. 또 2시 30분부터 야외무대에서는 사찰음식 경연대회 시상식이 진행되며, 조선마술패, 우담화합창단의 공연으로 축제가 마무리된다.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은 “모든 생명이 안전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축제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걸어서 템플 속으로 2’ 누적 142만뷰 돌파

웹툰 공개 2주 만에…71개국 구독 · 별점 9.9점 기록

불교설화를 소재로 한 웹툰 ‘걸어서 템플 속으로 시즌 2’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 문화사업단)이 카카오페이지에 연재하고 있는 ‘걸어서 템슬 속으로 시즌 2’가 공개 2주 만에 누적 조회수 142만회를 돌파했다. 웹툰은 71개국에서 구독 중이며, 별점이 9.9점을 기록하는 등 대중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운주사 천불천탑 편.

‘걸어서 템플 속으로 시즌 2’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한국불교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심해 만든 결과물이다. 특히 넷플릭스 인기드라마 D.P의 웹툰 원작자인 김보통 작가(스튜디오 타이거)가 시즌 1에 이어 시즌 2에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웹툰 4편과 무빙툰 2편 등 총 6편으로 구성된 ‘걸어서 템플 속으로 시즌 2’에서는 불국사의 청운교와 백운교, 운주사의 천불천탑, 설악산 신흥사의 울산바위, 건봉사의 십바라밀석주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불국사와 운주사 이야기는 무빙툰으로도 제작돼 볼거리를 더한다.

웹툰은 한국불교문화와 템플스테이 홍보에도 긍정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웹툰에는 “템플스테이에 참가하고 싶었는데 이야기를 보니 더더욱 가보고 싶다” “마치 문화유산답사기를 보는 듯하다” 등의 훈훈한 댓글이 이어졌다. 문화사업단은 웹툰을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해 외국인들에게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내영 기자

월정사, 5천 불자 동참 ‘금강경 사경소지 법회’ 연다

3월 입재한 ‘기도혁명’ 금강경 기도
5800세대 동참…매월 철야정진도
10월 14일, 탑돌이 후 사경집 소지
자현 스님 “기도 수행 혁명 이룰것”



금강경봉찬기도 기도신행국 국장 자현 스님(좌)과 과장 승우 스님이 10월 14일 월정사에서 봉행되는 금강경 사경 소지 대법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3월부터 ‘기도혁명’ 금강경 봉찬기도를 봉행하고 있는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가 5000여 불자들이 동참하는 ‘금강경 사경 소지 대법회’를 개최한다.

월정사는 10월 14일 경내에서 ‘금강경 봉찬기도’를 봉행하고 사경집 소지와 철야정진을 실시한다.

지난 3월 11일 입재한 금강경 봉찬기도는 금강경을 매일 수지독송하고 사경하는 기도프로그램이다. 월정사는 한암스님이 불교 발전을 서원하며 1931년 발족한 ‘오대산석존정골탑묘찬양회(봉찬회)’를 복원, 매일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신행결사체를 만들었다.

금강경 봉찬기도는 입재 반 년만에 5800세대가 동참할 만큼 불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전용 앱인 ‘월정사 금강경’과 유튜브 채널 ‘오대산 월정사’ 중계를 활용, 매일 기도를 이어오고 있으며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는 월정사에 모여 철야정진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백고좌 수계법회에서는 1만2000여 명이 계를 받았다. 특히 금강경 봉찬기도 동참자들은 승보공양에도 동참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9월, 중앙승가대에 3000만원을 후원하는 등 육바라밀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월정사는 불자들의 수행 독려와 신심 증장을 위해 10월 14일 오후 6시 30분부터 ‘금강경 사경 소지 대법회’를 봉행한다는 계획이다. 법회는 탑돌이와 사경집 발원문 소지에 이어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철야기도로 이어진다. 월정사는 법회를 위해 〈금강경 사경집〉을 직접 제작, 현재까지 전국에 약 1만3000권을 배포하고 금색 펜으로 매일 사경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금강경봉찬기도회장 자현 스님(월정사 교무국장)은 “금강경 봉찬기도는 경전을 읽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며 “여행하듯이 일상처럼 행하는 금강경 봉찬기도가 한국불교 발전과 세계화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강경 봉찬기도는 전용 앱 ‘월정사 금강경’에서도 동참할 수 있다. 매일 ‘기도함’에 향을 사르고 1000원을 올린 뒤 금강경을 1회 이상 들으면 출석이 인정된다.

한편 월정사는 10월 13~15일 경내에서 ‘오대산 문화축전’을 진행한다. 20주년을 맞이한 오대산 문화축전은 오대산 역사문화의 전통 계승 및 복원을 통한 전통문화축제이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통합의 문화축제, 자연과 소통하는 생태문화축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체험 중심의 테마축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축제로 기획됐다.

첫날 개막식은 승려노후복지시설인 승가림 기공식, 오대산문 현판식 등으로 진행된다. 개막공연으로 박칼린 감독이 연출과 원작을 맡은 오대산 뮤지컬 ‘리파카 무랑’이 선보이며 오만진신 보살계 백고좌 수계대법회 등도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잔나비 밴드의 ‘희무지개 너머, 서대’와 오대산 합창제 ‘피어나는 환희로, 중대’ 공연이 펼쳐진다. 마지막 날에는 전통차 시음과 작은 공연이 이어진다.

임은호 기자

‘소통의 화음’ 봉은사 경내 가득 채웠다

9월 15일, 2023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 연주

아시아 11개국 전통악기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선율이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경내를 가득 채웠다.

봉은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공동주최로 9월 15일 경내 보우당에서 ‘2023 아시아 전통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개최했다.〈사진〉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는 한국을 비롯해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 등 총 11개국의 전통악기로 구성된 아시아 고유의 전통오케스트라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총 5곡이 연주됐다. 연주회는 11개국에서 온 전통음악 연주자들과 봉은국악합주단(지휘자 박천지)의 협연으로 진행돼 더욱 의미가 컸다. 박범훈 불교음악원장, 한상일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지휘자들이 함께한 연주는 평화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됐다. 박범훈 원장은 연주 중간중간 아시아 전통악기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하나로 뭉쳐 조화로운 연주가 된 것처럼 하나되는 불교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임은호 기자

초가을 북한산, 詩로 장엄하다

설악 ·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유심’ 재창간 시낭송회

9월 23일 서울 무산선원서 열려
조정래 작가 등 문인 대거 참여
무산 스님 시비 제막식도 진행

만해 한용운 스님이 창간하고 설악 무산 스님이 복간했던 〈유심〉의 재창간을 기념하는 시낭송회가 열렸다.〈사진〉

(재)설악 · 만해사상실천선양회(이사장 권영민)는 9월 23일 서울 성북구 무산선원에서 ‘〈유심〉 재창간 기념 전통차 문화축제 및 시 낭송 ·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삼조 스님, 무산선원 주지 선일 스님을 비롯해 조정래 소설가, 나태주 시인, 이근배 시조시인, 문태준 시인 등 한국 대표 문인과 김영배 국회의원, 이승로 성북구청장 등 지역민과 불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대 음대 현악4중주단 축하공연으로 시작한 이날 시 낭송 · 음악회는 무산스님 시비 제막식과 래퍼 치타 공연, 축하케이크 절단과 무산 스님의 대표 작품인 ‘파도’ ‘아득한 성자’ 낭송, 〈유심〉 재창간호 수록 시인 작품 낭송 등이 진행됐다.

조정래 소설가와 나태주 시인은 무산



스님의 대표작인 ‘파도’와 ‘아득한 성자’를 낭송했다. 낭송에 앞서 조정래 소설가는 무산 스님과 인연을 소개하며 “시를 잘 모르는 제가 볼 때 무산 스님은 살아생전보다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시인으로 부활했다”고 평했다.

이어 “ ‘마음 하나’ ‘파도’가 스님의 대표작인데 이를 보면 문학에서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시는 압축, 생략, 은유가 있어야 하고 비약과 파격이 있어야 한다. 무산 스님의 시에는 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달자 〈유심〉 편집주간은 무산 스님이 전한 상생의 가르침을 강조했다. 신달자 편집주간은 “무산선원은 부처님 도량이지만 성모도 함께 한다. 이는 무산 스님이 항상 강조하셨던 상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는 무산 스님의 상생의 가르침을 오늘 오신 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행사는 〈유심〉 재창간호에 작품을 게재한 문태준, 구중서, 유자효, 이종문, 오세영, 박라연, 이근배, 정호승 등 시인들의 낭송으로 마무리됐다.

신중일 기자

설악산 신흥사, 추석 앞두고 400세대 나눔

9월18일, ‘44회 자비나누기’…5천만원 상당 물품 지원

설악산 신흥사(주지 지혜)가 한가위를 앞두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신흥사는 9월 18일 신흥사복지재단과 함께 속초시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제44회 자비나누기=행복더하기’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내 저소득 가정 400세대에 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사진〉 햅쌀 4kg, 혼합과일세트 1박스, 지역상품권 등 추석에 필요한 물품이 각 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은 “2007년부터 17년째 이어온 자비나눔 행사는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나눈다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잘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며 “웃으며 추석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의지를 잃지 않은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日, 불교 AI 다양화…활용방안 기대 'UP'

신란봇·천친보살봇 등 개발 완료
초기경전 부처님 말씀 중심 개발
선지식 가르침으로 대화 가능키도
산업·종교·학술계 끼칠 영향 기대

박영빈 객원기자



증강현실을 이용한 대화형 불교 AI들의 모습들. 사진출처=교토대학 보고서

챗 GPT와 같이 대화형 AI 프로그램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불교의 가르침을 학습한 대화형 AI들이 계속해서 개발돼 화제다. 9월 14일 일본의 '교토대학'과 'IT 미디어 뉴스'는 새롭게 개발된 AI, '신란봇'과 '천친보살봇'을 소개했다.

교토대학 소속의 '사람과 사회의 미래 연구원'의 연구팀과 불교 정신세계를 메타버스로 표현하는 개발팀 '테라버스'는 지난해 불상 모습을 한 아바타를 사용하는 대화형 AI '붓다봇'을 개발한 데 이어, 이번엔 신형 AI들의 개발에 성공했다.

개발에 참여한 쿠마가이 세이지 스님은 "지난 붓다봇은 초기경전인 〈숫타니파타〉와 〈법구경〉을 이용해 부처님 말씀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이번에 개발된 신란봇과 세친봇은 부처님에 이어 일본과 인도의 옛 선지식의 가르침으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며 새롭게 개발된 AI들에 대해 소개했다.

신란봇은 일본 최대의 불교종파인 정토진종의 개조인 신란을, 세친봇은 인도 대승불교의 양대 학파 중 하나인 유식학파의 대논사인 세친보살이라는 불교사의 가장 뛰어난 두 위인을 모델로 한 AI다. 지난 붓다봇이 초기불경을 학습자료로 사용했다면, 이번 신란봇은 신란의 저술인 〈정신게(正信偈)〉를, 세친봇은 〈구사론〉을 학습자료로 이용했다. 이에 따라 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각자 학습한 데이터에 따라 다른 대답을 내놓고 있다.

각 AI 봇에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자 붓다봇은 '진리를 믿고 흘러가는 마음을 바라보라'고 대답한 반면 신란봇은 '아미타불의 명호를 염불하고, 아미타불의 자비에 귀의하라'고 대답했다. 한편 세친봇은 '고통은 번뇌의 한 형태이므로 그 존재의 요소를 분석하여 적멸을 추구해야한다'는 유식학적인 개념의 대답을 내놓았다.

연구팀은 이 봇의 개발에 대해 "앞선 붓다봇과 함께 이 AI봇들은 산업계, 종교계, 학술계에 끼칠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 이 봇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다양한 고민에 불교적 관점에서 대답하는 대화형 AI이기에 그 활용방안이 매우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종교계와 학술계에서는 AI의 학습방향과 그 폭에 따라 지금까지 한 번도 제시된 적 없는 교리의 해석과 학설이 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산업계는 추가적으로 경영이나 경제와 같은 데이터를 학습시킴으로써 불교적인 경영 컨설팅에 이용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교토대학 측은 개발보고서를 통해 챗 GPT를 비롯해 많은 대화형 AI가 정보의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위험성에 대해서도 지적받고 있으나 개발된 불교 AI들은 모두 원전을 알고리즘으로 학습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에도 자유롭다고 밝혔다.

또 연구팀은 "현재 외국 불교계에서도 공동개발의 제안이 들어오고 있어 각 나라별 불교전통에 따른 대화형 AI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부탄과 공동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中, '불교의 중국화' 캠페인 진행…반발도

중국 이념 가르치는 선전 통로
모든 종교활동 당 관리 요구도


중국 오대산에서 열린 불교의 중국화를 위한 특별과정. 사진출처=중국불교협회

최근 중국에서 '불교의 중국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전통적인 개념의 현지화가 아닌 중국식 사회주의의 개념에 불교를 적용하려는 시도다. 9월 14일 중국 인권뉴스 전문매체인 '비터윈터'는 중국정부의 주도하에 진행 중인 불교의 중국화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9월 5일, 중국 산시성 우타이산(五臺山)에서 '중국불교협회 불교 교육 업무 및 교풍 훈련 과정'이 특별히 개최됐다. 우타이산은 중국 불교 4대 성산 중 첫 번째 산으로 꼽히며 전세계의 불교도들이 참배하는 문수성지다. 특히 우타이산은 1000여 년 전인 당나라 때부터 한중일 삼국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인도나 중앙아시아 등지에서도 문수성지로 인정받으며 인도에서 전해진 문수신앙을 중국 현지의 개념에 정착시킨 중요한 예시로도 꼽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렇게 이미 중국화 된 중국불교의 새로운 '중국화'에 대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중국화된 중국불교에서 진행 중인 이 중국화 과정은 중국정부가 주도한다. 이 중국화의 목표는 불교를 중국 공산당의 이념을 가르치고 선전하는 통로로 만드는 것이다.

우타이산에서 진행된 훈련과정에서 좌장을 맡은 중국불교협회장 옌쥐에(演覺) 스님은 기조강연에서 "불교를 '중국화'한다는 것은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와 시진핑의 신시대의 중국에서 강조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의 정신을 포괄적이고 철저하게 연구하고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여기 모인 스님들과 교계 관계자들은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종교사무 관련사업에서 시행해야 하는 4가지 지침을 반드시 숙고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의 4가지 지침은 지난 2021년 시 주석의 연설에서 발표한 것으로 주요한 내용은 종교지도자들과 신자들은 마르크스주의와 시진핑 사상을 교육하고 배워야하며, 모든 종교활동장소와 그곳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당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훈련과정에선 오대산과 전국각지에서 100명이 넘는 불교지도자들이 참석했고, 당의 관련업무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한편 이러한 중국정부의 움직임에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익명의 한 누리꾼은 "공산당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에 입각한다. 이러한 무신론자의 단체가 종교를 이용하겠다는 생각부터 이미 자가당착"이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시진핑의 지침으로 인해 교리는 물론 역사적 내용에서도 마르크스주의에 의한 통제와 검열이 진행되고 있다. 자유로운 불교의 가르침이 정부가 원하는 입맛에 재단되어 배포되고 있다"며 교육의 자유가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박영빈 객원기자

무비웹, 불교영화 7선 소개…한국 작품 2개 포함 눈길

대중에 철학적 메시지 던지는
대표 문화예술 '불교영화'들


보리달마는 왜 동쪽으로 갔는가 장면 일부. 사진출처=무비웹

불교를 소재로 한 영화가 불자뿐만 아니라 대중의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헐리우드 기반 엔터테인먼트 뉴스 웹사이트 무비웹(Movieweb)은 "영화는 새로운 통찰력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대중으로 하여금 철학적 사고를 전달하는 일종의 예술"이라며 "불교 영화는 이 같은 방식으로 철학적 메시지를 던지는 대표적 문화 예술"이라고 평가했다. 종교이자 철학으로써 불교가 대중에게 일종의 '화두'를 던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무비웹은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동양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서양 청중에게는 생소하게 다가갈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서양과 동양을 막론하고 문화적 경계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불교의 본질과 느낌을 담아낸 영화도 있다"고 덧붙였다.

티베트 불교부터 일본 선(禪)까지, 무비웹이 선정한 역대 불교 영화 7선을 소개한다.

▲보리달마는 왜 동쪽으로 갔을까(1989) 선불교에서 선문답은 정신적 탐구로 통찰에 다다르기 위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영화는 고아 소년, 성인 승려, 노인 선사 등 세 사람의 삶을 담았다. 느린 전개 속도와 영화의 아름다운 단순함으로 인해 관객에게 명상적인 경험을 선사하고 감정을 통해 선을 성공적으로 전달한다.

▲리틀부다(1993)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은 부처님 이야기와 티베트 불교 문화를 이해하고 전달하려는 노력에 철저했다. 그는 영화 전반에 걸쳐 매우 존경받는 티베트 불교 라마 Khyentse Norbu를 고용해 그들과 상담한다. 하지만 이 영화의 포인트는 고타마 싯다르타의 이야기를 영화 속 세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전달되는 경이로움이다.

▲더 컵(1999) 월드컵 경기를 보고싶어하는 수도원 승려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그러나 텔레비전, 위성, 좋은 신호를 얻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영화는 승려들의 '월드컵 시청' 도전기를 유쾌하게 풀어낸다.

▲그라운드호그데이(1993) 철학적 걸작으로 평가받는 이 영화는 윤회 등 불교 사상과 잘 부합해 종교학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불교 영화제에서도 자주 상영됐다. 빌 머레이(Bill Murray)가 연기한 기상캐스터 필 코너스(Phil Connors)가 같은 날을 계속해서 재현하는 불가능한 현실을 다루는 과정을 담았다.

▲쿤둔(1997) 14대 달라이 라마인 텐진 가초(Tenzin Gyatso)의 초기 생애를 다룬 서사적이고 포괄적인 영화다. 영화 속에서 달라이 라마가 경비초소로 걸어가자 인도인 경비병이 그에게 다가와 경례하고 묻는다. "당신이 부처님이십니까?" 달라이 라마는 영화의 마지막 대사로 대답한다. "물 위의 달. 나를 보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당신은 자신을 보게 된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봄(2003) 개봉 당시 로저 에버트로부터 "나에게 이렇게 깊은 감동을 준 영화는 거의 없다"는 칭찬을 받은 영화. 한 남자의 삶의 계절을 1년의 계절처럼 어린 시절부터 승려가 되는 여정, 그리고 말년으로 안내하는 고요하고 미묘한 느낌을 준다.

▲젠(2009) 중국으로 구법 여행을 떠난 일본 승려 도겐 젠지(Dogen Zenji)의 이야기를 풀어낸 영화다. 도겐은 이후 일본 선종인 소토(Sōtō)를 설립한다. 다카하시 반메이 감독이 극본과 연출을 맡았다. 박정현 객원기자

"외국인 불교 유적 방문, 위협 아니다"

유적 훼손 우려…아시아 불교도 10명 중 7명 "괜찮다"

동남아시아 내 불교권 국가 여행 수요가 높아질수록 유적 또는 전통 훼손에 대한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지만 동남아 국가 불교도 10명 중 7~8명이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적절하다고 답해 눈길을 끈다.

9월 15일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5개국 불교도 대다수가 불교도가 아닌 외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사찰, 탑, 담마당 등 불교 유적지를 방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 국가에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이 포함됐다.

조사 대상 국가의 대부분의 불교도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이 자국의 불교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싱가포르는 83%, 말레이시아는 77%, 캄보디아는 75%, 태국은 75%, 스리랑카는 70% 등 순이다.

또 이들 국가의 대다수 불교도들은 '불교도가 아닌 관광객들이 명상이나 염불과 같은 불교 수행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도 답했다. 특히 스리랑카는 무려 93%가 적절하다고 답했고, 이밖에 캄보디아 91%, 태국 90%, 싱가포르 86%, 말레이시아 6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당수의 불교도들은 '다른 종교를 믿는 외국인들이 자국의 불교도들과 결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문득' 찾은 사찰에서 '으레' 지나치는 것들
흔하고 오래된 것들 안에 깃든 우리 역사와 문화, 옛사람들의 염원!

당신이 사찰에서 발견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허투루 있는 건 단 하나도 없다!
알면 알수록 보이는 사찰 구석구석 숨은 보물찾기, 마지막 라운드!

최신간

사찰에 가면 문득 보이는 것들
노승대 지음 | 올컬러 | 432쪽 | 30,000원

사찰이 '숲속의 박물관'인 이유는
국가 보물로 지정된 불상과 불화, 전각 등이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가 지나친 조각, 돌기둥, 장식 하나하나에도 사연이 있으니
사찰 속 흔하고 오래된 것들의 놀라운 역사!

- 암벽 위에 새기고, 바위를 다듬어 만든 '사찰의 석조물'
  마애불 | 석탑 | 석등 | 승탑 | 노주석 | 당간지주
-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 '사찰 속에 숨겨진 의외의 보물'
  수미단과 탁자 | 계단과 석축 | 해우소 | 백자연봉 | 청자 기와 | 오리 조각 …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사찰 속 흔하고 오래된 것들의 놀라운 역사

40여 년 경력 사찰문화 전문 답사가와 함께 떠나는 질집의 '보물찾기'!

사찰에는 도깨비도 살고 삼신할미도 산다
노승대 지음 | 512쪽 | 28,000원
게, 수달, 토끼, 돼지에서 도깨비, 야차, 삼신할미, 신선까지 주지스님도 몰랐던 사찰 구석구석 숨은 보물찾기! 400여 컷의 화보로 볼거리가 풍부한, 술술 읽으며 문화와 역사를 꿰는 크로스 오버 불교문화 결정판!

잊혔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찰 속 숨은 조연들
노승대 지음 | 456쪽 | 30,000원
사찰 구석구석 기묘한 존재들에 얽힌 진귀한 비밀! 사찰이란 무대 위에서 황금 조연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시왕, 저승사자, 사천왕, 금강역사, 나한 등 초월적인 능력과 기괴한 외모를 지닌 이들의 역사!

천년고찰 개산 아름다움 시민과 나눈다

통도사 10월 30일까지 '영축문화축제' 개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천년의 문화 나누다' 주제로
문화행사 · 전시회 등 이어져
미디어 활용한 예술공연 기대
괘불전 · 가사친견전시도 마련


통도사는 '개산 1378주년 천년의 문화를 함께 나누다' 라는 주제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한다. 사진은 영축문화축제 자료사진.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의 개산(開山)을 기념하고, 천년 역사의 가치를 시민에게 축제로 회향하는 영축문화축제가 시작됐다. 통도사는 '개산 1378주년 천년의 문화를 함께 나누다' 라는 주제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하고 산문을 개방했다.

영축문화축제는 △문화행사 및 전시 △역사와 문화의 장 △나눔과 참여의 장으로 나눠 진행되며, 그중에서도 세계문화유산의 전통 가람과 어우러진 볼거리를 선사할 '마음의 불씨를 띄우다' 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마음의 불씨를 띄우다' 는 통도사 삼성반월교 일대에서 진행하는 드론쇼로, 10월 14일과 21일 오후 8시에 만나볼 수 있다. 드론쇼와 함께 무풍한송로에서 미디어 예술을 보여줄 미디어파사드도 10월 13일부터 22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이어진다.

문화행사 및 전시

영축문화축제는 경내를 장엄하는 국화만발로 시작을 알린다. 현재 통도사 경내 각 전각은 가을국화로 꽃 공양을 올리고 산사를 찾는 사람마다 가을 정취에 쉼을 얻고 있다. 9월 15일 시작된 국화장엄은 10월 30일까지 이어진다. 아울러 스님들이 찍은 다양한 사진들을 감상할 수 있는 '나도 작가다' 는 10월 29일까지 감로당 앞에서 감상할 수 있다. 박상언 도자 나한전은 9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명월료에서 진행되며, 통도사 승가대학 서예전은 10월 9일부터 10월 23일까지 명월료에서 이어진다.

역사와 문화의 장

통도사의 개산을 기념하고 개산조 자장율사와 역대 스님들의 공덕을 기리는 역사와 문화의 장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21일 오후 1시에는 괘불특별전(서울 청룡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탱)이 성보박물관에서 열린다. 통도사는 개산을 맞아 의식용 초대형 괘불을 헌괘하고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부도헌에서는 역대 스님들의 공덕을 기리며 차를 올리는 헌다례도 진행된다. 22일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자장율사의 가사를 직접 친견할 수 있다. 전시 장소는 통도사 성보박물관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다. 23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자장율사 영고재 및 개산대재 법요식이 설법전에서 봉행된다.

나눔과 참여의 장

시민들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통도사는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10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1회 사생실기대회를 실시한다. 아울러 통도사 경내를 걸으며 자연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통도사로 가을소풍을 떠나자' 를 10월 1일부터 15일 동안 진행한다.

어르신들을 위한 만발공양 및 문화공연도 열린다. 통도사는 10월 19일 오전 11시 30분 지역어르신을 위한 점심 만발공양을 진행하고, 이어 오후 1시에는 삼성반월교 옆 특설무대에서 문화공연을 개최해 흥겨움을 선사한다. 전통 이운행렬 의식인 '영축삼보 이운' 은 10월 21일에 진행되며, 괘불헌공은 괘불대 앞에서 이운 이후 이어질 예정이다.

통도사는 "개산대재는 시민들이 체험하는 화엄의 장이 될 것"이라며 "세계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불교의 보고인 통도사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관 스님 번역 유작, 관음사에 봉정

〈만선동귀집강의〉 발간
지현 스님 · 신도들 탈고
1000여 권 법보시 회향


부산 관음사 원통보전 부처님전에 〈만선동귀집강의〉를 봉정하고 있다.

문경 봉암사 선덕을 지낸 연관 스님(1949~2022)이 유작으로 남긴 번역서 〈만선동귀집강의〉가 부처님전에 봉정됐다.

조계총림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회주 지현)는 9월 18일 경내 원통보전에서 〈만선동귀집강의〉 봉정법회를 봉행했다. 연관 스님이 번역한 이 책은 영명 선사가 지은 〈만선동귀집〉을 대만의 선지식인 석성범(1920~1997) 스님이 강의한 내용을 담았다. 연관 스님은 생전 영명 선사의 책을 번역하기로 서원을 세웠고, 부산 관음사 회주 지현 스님이 간청해 번역이 시작됐다. 1차 번역을 마무리하고 여러 번 퇴고를 거친 후 출간을 준비하던 가운데 연관 스님은 암 진단을 받고 지난해 6월 15일 관음사에서 입적했다.

지현 스님은 번역서를 연관 스님 음력 생일에 맞춰 9월 18일 출판해 봉정했다. 이번 봉정법회를 위해 지현 스님은 1000여 권을 법보시로 참가자 전원에게 나눠 회향했다. 연관 스님이 탈고한 원고를 관음사 회주 지현 스님과 신도들의 노력으로 결실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남다르다.

봉정법회는 지현 스님, 동주 스님, 도일 스님, 법인 스님을 비롯해 이미현 사유수출판사 대표 등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현 스님은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 영명 연수 선사의 만선동귀집으로 결집되고, 만선동귀집은 성범선사의 강의로 꽃이 피어 연관 선사의 번역으로 분명하게 이해되니 참으로 아름다운 인연"이라며 "만선동귀집은 보리심을 일으켜 온갖 선행으로 반야지혜를 일으키는 가르침"이라고 강조했다.

연관 스님은 〈만선동귀집강의〉를 번역하며 "이 강의본은 번역하면서 금덩이인 줄 알았더니 칠보를 얻은 기분이었으며 이를 통해 불법에 새삼스러운 눈을 떴다"고 말한 바 있다.

연관 스님은 1969년 우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한학에 조예가 깊어 출가 후 경학 연찬에 전념했다. 1974년에 탄허 스님이 대원암에서 화엄경 출판을 할 때 도왔으며 아울러 선원에서 정진해 선교겸수의 모범을 보였다.

2002년부터 봉암사 태고선원을 비롯해 칠상사, 상원사, 벽송사 등 여러 선원에서 36안거를 지내며 참선 정진했다.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과 〈조계종 표준 금강경〉 편찬위원장, 조계종 기본선원 교선사를 지내고, 조계종 교육원이 낸 〈화엄경 현담〉 첫 한글 완역본 역경 책임자로 활동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생명나눔 가치 알리는 전시 · 공연

부산 생명나눔, '라온(LA · 溫) 어울림 마당'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는 9월 16일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서면 영광도서 8층 리갤러리에서 '라온(LA · 溫) 어울림 마당' 을 개최했다.〈사진〉 행사는 서양화가 한동훈 작가의 작품 전시와 반야다례원 헌다, 영남불교 무용단 · 소리나라 색소폰 · 행복한 아코디언 동호회 · (사)싱잉볼 치유의 소리의 공연이 진행됐다.



생명나눔 부산본부장인 심산 스님은 "1년에 한 번 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재정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그동안 생명나눔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함"이라며 "생명나눔이라는 목표가 건강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날까지 부단한 활동을 이어나가게 힘써달라"고 정진을 당부했다.

행사에는 심산 스님(생명나눔 부산본부장), 자인 스님(길상사 주지), 눌은 스님(범어사 포교국장), 성문 스님(선광사 주지), 법경 스님(광명사 주지), 대각 스님(옥천암 주지), 진각종 효인 정사, 일연 정사, 원상 정사, 이승표 부본부장, 배종권 · 최상곤 · 이경순 · 이원규 이사 등이 함께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남구불교聯, 추석맞이 쌀 전달

남구청에 백미 2000㎏

부산남구불교연합회(회장 지원)가 9월 18일 부산 남구청장실에서 한가위 추석을 맞아 백미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전달된 백미는 2000㎏(600만원 상당)이며, 남구청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지원 스님(부산남구불교연합회장), 대각 스님(옥천암 주지), 능후 스님(대연정사 주지), 호명 스님(무문홍법사 주지), 오은택 남구청장, 성재곤 동명불원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원 스님은 "경제가 힘들어 모두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명절을 맞아 형편이 어려운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준비했다"며 "많이 준비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다. 설 명절엔 많은 후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명절 때마다 지역민을 위해 자비보시를 꾸준히 해주신 덕분에 남구가 희망나눔 캠페인 2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며 "전해주신 쌀은 소외되는 분 없이 필요한 분들께 잘 전달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제27회 울산불교합창축제 성료

울산불교신도회(회장 이영수)는 9월 19일 울산 문화 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제27회 울산불교합창축제' 를 개최했다.〈사진〉 신도회는 매년 찬불가와 다채로운 음악을 통해 화합을 도모하고 음성포교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사에는 황룡사 나모라 어린이합창단의 오프닝 무대로 시작해 백련사 향기소리합창단, 백양사 삼보합창단, 조계종울산사암연합회, BBS울산불교합창단, 진각종 반야합창단,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한마음선원합창단, 월봉사 월광합창단, 정토사 어울림합창단이 참여해 아름다운 곡을 선보였으며 초청가수 바다새 김혜정과, 신계행 가수 등의 무대도 이어졌다.

이영수 신도회장은 "부처님의 크나큰 자비와 지혜가 많은 분들과 함께 하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불교의 현대화를 추구하는 대원불교학술총서



철학으로서의 불교

미국과 캐나다 등 서구 대학의 철학과 교재! 불교의 철학 전통과 불교사상의 기본 교리를 흥미롭고 분석적으로 소개하였다.

마크 시더리츠 지음, 강병화 옮김 / 648쪽 / 38,0000원



스토아철학과 서양불교

2,600여 년 전 인도에서 탄생한 불교와 고대 그리스로마 철학인 스토아철학이 보여주는 놀라울 정도의 유사성과 상호 영감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패트릭 어셔 지음, 이재석 옮김 / 152쪽 / 12,000원



붓다의 깨달음과 뇌과학

뇌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이해하면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

문일수 지음 / 360쪽 / 25,000원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 권으로 보여주는 한국불교의 역사!
한국불교통사
김경집 지음 / 392쪽 / 20,000원



서양철학자들이 불교에 심취한 이유는 무엇인가?
에리히 프롬과 불교
박찬국 지음 / 316쪽 / 20,000원



인류의 위기에 대한 인식 전환과 새로운 실천 방향 제시!
활생문명으로 가는 길
김규칠 지음 / 368쪽 / 25,000원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마음(心)과 의식(識)에 대한 통찰!
불교의 무의식
윌리엄 왈드론 지음, 안성두 옮김 / 456쪽 / 23,000원



백운 · 태고 · 나옹의 선어록에 대한 문예 미학적 접급!
한국 선어록의 문예 미학
전재강 지음 / 312쪽 / 20,000원



가장 뛰어난 제자 24인의 삶과 수행, 깨달음의 과정을 담다!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
냐나뽀니까 장로 외 지음, 김충현 옮김 / 728쪽 / 40,000원



비구니 승가에 대한 차별이 과연 부처님의 본뜻이었을까?
비구니 승가 설립의 역사
아날라요 지음, 김철 옮김 / 360쪽 / 20,000원



직접성과 즉각성의 전통적 해석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관점!
새로 보는 선불교
베르나르 포르 지음, 정천구 옮김 / 696쪽 / 4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의료불사 원력으로 완성한 대의왕 도량

울산 정토마을 간월사 적멸보궁 낙성법회 봉행

의료 · 교육 원력…20년 만의 경사
정염회 등 단체·불자에 공로패 수여
스리랑카 대통령 기증 진신사리 봉안
지상 3층 규모…1천여 명 동참해



울산 정토마을 자재병원 간월사가 9월 16일 적멸보궁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올해 4월 불교계 최초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탄생한 울산 정토마을 자재병원 간월사(주지 능행)가 적멸보궁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9월 16일 정토마을 공경전 야외법단에서 봉행된 이날 낙성법회는 타종과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1부 낙성대법회와 2부 축하공연으로 진행됐다.

1부 낙성대법회는 삼귀의례, 반야심경, 경과보고, 티베트불상 전달식, 감사패 및 공로패전달, 봉행사, 내빈소개, 격려사, 축사, 청법가, 법어, 사홍서원, 테이프 커팅식의 순으로 이어졌고, 동산 앞마당에서 2부 축하공연이 열렸다.

법회에서는 티베트 탕카와 불상 전달식도 진행됐다. 인도 다람살라에서 달라이라마 존자가 직접 보낸 탕카와 불상은 소눈드다라 스님과 소남 스님이 대신해 능행 스님에게 전달했다. 능행 스님은 또 낙성법회가 여법하게 회향하는데 기여한 정염회(대표 최세진) 등 신행단체와 불자, 관계자들에게 감사패와 공로패를 수여했다.

낙성대법회에서 능행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2003년 의료와 교육을 통한 포교 방편의 원력을 세운 지 20년 만에 낙성법회를 봉행하게 됐다"며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불사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정토마을은 하화중생하고 상구보리하며 불교의 정법에 올바른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축사에서 "능행 스님이 지난 30년 동안 신심과 열정으로 오늘의 간월사를 일구어 왔다"며 "통도사 사부대중은 간월사가 부처님의 가피로운 도량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도 "아픈 사람을 보듬는 이 정토마을 간월사는 앞으로 더욱 자비도량이 될 것"라며 "능행 스님은 대한민국과 세계 불교에 자비로서 좌표를 남기신 그런 날이다. 능행 스님의 모든 하시는 일 잘되시길 부처님께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청도 대감사 회주 설우 스님은 법문에서 "자재병원 개원식에도 참석했지만 능행 스님은 인도의 테레사 수녀나 대만의 정공 스님과 같은 자랑스러운 수행자의 표본으로 관음보살의 화신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임종을 앞둔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과 고독함과 눈물을 흘리는 그 심정을 참으로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면서 자재병원과 더불어 부처의 삶 살아가는 선불도량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2부 축하공연에서는 미스터트롯에 출연한 가수 박서진, 고정우, 윤준협과 풍류대장에 출연한 가수 이아진이 무대에 올랐다. 이들은 신나는 노래로 사부대중과 함께 간월사 적멸보궁 낙성을 축하했다.

이날 낙성법회에는 정토마을 간월사 주지 능행 스님을 비롯해 대감사 설우 · 영축총림 통도사 교구장 현덕 ·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 부회장 성본 · 운문사 율주 일진 · 북대암 회주 법춘 · 학림사 회주 수환 스님이 참석했다. 또 스리랑카 소눈드다라 · 남인도 소남 · 내원사 주지 지도 · 오봉사 주지 혜원 · 법왕사 혜경 · 울산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종선 스님과 서범수 국회의원, 김영철 울주군의회의장, 건축가 김개천 국민대 교수 등 1000여 명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정토마을 간월사는 지상 3층으로 구성됐다. 1층 공경전은 아미타불 주불을 모시고 신중단 및 영단, 보은전이 있고, 2층은 티베트 삼존불, 모래 만다라, 삼천불전, 만년위패를 모셨다. 3층 적멸보궁은 스리랑카 7대 대통령이 기증한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했다.

스님들의 산중장터 '승시' 올해도 만나 보세요

10월 7~9일 동화사 일원서 개최
승가 씨름대회 등 행사들 '다채'

조계종 제9교구본사 팔공총림 동화사(주지 능종)가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경내에서 '제13회 팔공산 산중장터 승시' 를 개최한다.

승시(僧市)는 스님들의 산중장터를 재현한 축제의 장이다. 스님과 사찰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교환하는 단순한 시장의 의미를 넘어 불교문화와 전통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수준 높은 공연과 문화 체험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펼쳐진다. 10월 7일에는 불교문화 공연을 시작으로 오후 2시, 제13회 팔공산 산중장터 승시 개막식이 진행된다. 본 개막식에는 가수 숙행, 신유, 장미화, 김흥국이 출연해 흥을 돋운다.

8일에는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대구지역문화예술인 공연과 비보이, 마술 공연이 준비돼 있다. 특히 이날은 승시 축제의 꽃으로 유명한 천하장사 시념인(씨름) 대회가 열린다.

행사 마지막 날인 9일에는 퓨전국악 공연에 이어 국악과 클래식 한마당이 마련된다. 국악인 오정해와 금관5중주 앙상블이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씨름선수 박광덕이 직접 참여하는 '박광덕을 이겨라' 이벤트도 주목된다.

축제 기간 중 각 부스에서는 다양한 불교문화를 상시로 체험할 수 있으며, 사찰음식을 직접 배우고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행사 관계자는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불교문화가 좀 더 국민과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범능 스님 추모 음악회…콘서트로 '변화'

쌍봉사, (사)불지불교문화원
9월 16일 추모음악회 개최
소아백혈병 치료비도 전달

노래하는 수행자이자, 출가 전 민중가수로 활동하였던 범능 스님(1961~2013)을 추모하는 음악회가 열렸다.

전남 화순 쌍봉사(주지 증현)는 (사)불지불교문화원과 함께 9월 16일 화순 하니움 적벽실에서 '범능 정세현 10회, 음악에 물들이다' 추모 음악회를 개최했다.

범능 스님은 생전 소아암백혈병 아이들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매년 화순에서 음악회를 진행해왔다. 열반 후에도 이어져 오던 산사음악회가 올해 10주년을 맞았고, 일반인과 불자들을 위한 콘서트 자리로 마련됐다.

음악회에는 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 증현 스님,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 소원정사 주지 도계 스님, 원효사 주지 해청 스님, 화순불교사암연합회장 진철 스님을 비롯해 여러 대중스님과 김대원 광주불교연합회신도회장, 강종철 화순군 부군수, 문기연 불지불교문화원장, 신도 등이 참여했다.

증현 스님은 "명상 음악가이자 민중음악가인 범능 스님의 음악과 뜻을 계승하는 음악회를 개최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올해 처음으로 일반인도 참여하는 콘서트 형식의 음악회를 변화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행복하고 힐링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참여해주신 화순군민과 광주시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은 축사를 통해 "범능 스님은 기타를 메고 장엄한 모습으로 노래하는 모습이 선하다"고 회상하며 "범능 스님이 불렀던 찬불가는 앞으로도 세세생생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신심을 북돋우는 천재성이 있는 음악이다. 앞으로도 스님의 뜻을 이어받아 음악회를 개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범능 스님을 추모하는 음악회는 국악가수 권미희, 낭송가 강춘희, 문기연, 통기타 혼성듀오 주니와후니, 울림창작예술원, 연합합창단(만연사, 빛고을포교원, 보은사)에 이어 가수 김원중, 트롯신 배아현 등의 공연이 진행됐다.

한편 불지불교문화원은 이날 소아암백혈병 치료기금 300만원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에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칠불사 중창주 통광대선사 10주기 다례재

9월 16일 칠불사 보설루서 봉행
일대기 담긴 책 등 제작해 배포



하동 칠불사(주지 도응)가 9월 16일 경내 보설루에서 칠불사 중창주 제월당 통광대선사 원적 10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은 "통광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불교의 꽃을 새롭게 피어서 세계 만방에 떨치는 그런 도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제월문도 대표 노웅 스님은 "은사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어서 수행과 포교, 불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문도들이 화합하고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칠불사 주지 도응 스님은 "은사스님의 10주기를 맞아 스님의 일대기를 구술하신 책 〈마음아, 어디 있느냐〉와 스님의 평생 법문을 모은 USB를 제작했다"며 "은사스님께서 가르침을 주신대로 선원장 스님을 비롯한 문중스님들과 화합하고 노력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월당 통광 스님은 범어사에서 덕진(德眞) 여환(如幻)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명허(明虛)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3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광주 불교계 추석 맞아 자비물품 전달

신광사 · 원효사, 북구청 통해
생활용품 등 어려운 가정 지원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불교계의 자비의 물품이 전달됐다.

광주 신광사(주지 동현)는 9월 21일 광주 북구청(청장 문인)을 방문해 다문화가정에 추석 선물세트(3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선물세트에는 쌀 20kg, 오리, 닭, 소세지, 한돈 모듬세트, 과일, 창평한과, LG생활용품 등이 포함되어 총 8가구를 지원한다.

전달식에서 동현 스님은 "어려운 환경과 낯선 땅에 이주해온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전달해 추석 명절의 의미를 되살렸으면 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전달한 선물세트에는 자비신행회, 반가종합건설 안정주 대표, 남도식품 이계수 대표 등도 후원에 함께했다.

무등산 원효사(주지 해청)도 이날 북구청을 방문해 지역 차상위계층을 위한 쌀 1000kg(3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사)빛고을나눔나무(이사장 도성)의 지정기부를 통해 전달한 자비의 쌀은 사찰에서 십시일반 모연해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상호신뢰와 이해로 불교 발전 이끌겠다"

통영불교사암연합회장 묵원 스님
9월 16일, 이취임식 법회 봉행



통영불교사암연합회 직전회장 종묵 스님과 신임회장 묵원 스님의 이취임 법회가 9월 16일 통영금호리조트 충무홀에서 봉행됐다.

이날 이취임 법회는 개회식에 이어 헌향, 삼귀의, 한글 반야심경 봉독, 묵념, 고불문 낭독, 공로패 전달, 이임사, 취임사, 축사, 내빈소개, 공지사항, 사홍서원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임회장 묵원 스님은 8년 동안 통영사암연합회를 이끌어온 직전회장 종묵 스님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전회장 종묵 스님은 이임사를 통해 "회장 임기 동안 많은 도움을 준 각 사암스님들과 불자들께 감사 인사 드린다"며 "신임 회장스님께서 사암연합회를 잘 이끌어 주실거라 믿는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새롭게 통영불교사암연합회를 이끌게 될 묵원 스님은 "지역사찰 스님들과 신행단체와의 상호신뢰와 이해로 지역불교발전을 위한 의견을 모아 연합회를 이끌어 가겠다"며 "연합회 임원진 스님들과 행정기관과의 협조로 통영불교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위해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포교사단 경남지역단 신규포교사 고불식

신규포교사 41명 정식 활동 시작



조계종 포교사단경남지역단(단장 박해덕)이 제28기 신규임용 포교사 고불법회를 봉행했다.

9월 16일 하동 쌍계사 템플스테이 체험관에서 봉행된 이날 고불법회는 지도법사 덕룡 스님과 박해덕 단장, 안정임 부단장 28기 포교사 41명이 참석했다.

9월 9일 육군 논산 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포교사 품수식을 갖고 정식 포교사로서 첫발은 내딛는 신규임용 포교사들은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하고 종단을 외호하며, 신행포교 및 전법포교 활동에 나설 것을 부처님 전에 발원했다.

박해덕 단장은 "초발심을 잊지 않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해 내면의 실력을 쌓는 수행과 정진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포교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신규임용된 28기 포교사들은 지도법사 덕룡 스님으로부터 포교사증과 뱃지를 전달받고 정식 포교사로의 활동을 시작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은해사, 문중 합동 추모 다례재 봉행

9월 17일 경내 육화원서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주지 덕조)는 9월 17일 경내 육화원에서 '은해사 합동 추모 다례재' 를 봉행했다.

은해사는 2021년부터 은해사의 수행가풍과 위상을 진작하는 데 공헌한 선지식들의 사상과 삶을 기리기 위해 법전 대종사를 비롯해 동곡당 일타 · 화산당 학명 · 일고당 덕근 · 포월당 혜업 · 포운당 성진 · 포산당 혜인 스님의 합동추모다례재를 봉행하고 있다.

이날 추모 다례재에는 은해사 조실 법타 대종사를 비롯해 회주 돈명 스님, 주지 덕조 스님 등 문중스님들이 참석했다.

조실 법타 대종사는 "문중 스승들의 큰 가르침을 받들어 우리 후학들은 더욱 더 열심히 수행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불제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여수시공무원들, 향일암서 특별 템플스테이

10여 명 참석해 명상 체험 등



여수 향일암(주지 연규)이 9월 16일 여수시청공무원불자회를 위한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템플스테이에는 1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해 남해바다를 바라보는 명상과 예불, 사찰음식 등을 체험했다.

주지 연규 스님은 "향일암은 방안에서 일출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찰이다"라고 소개했다.

여수시청공무원불자회(회장 이수남)는 주지스님과의 차담을 통해 개개인의 고충을 상담하고,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창군 노인복지관, 추석맞이 자장면 나눔

나누면봉사단, 3년째 봉사활동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관장 대원)이 추석맞이 자장면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9월 18일 나누면봉사단(단장 황선호)과 함께한 자장면 나눔행사에서는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 300명에게 손수 만든 자장면을 대접했다.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나누면봉사단의 자장면 나눔행사는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장 대원 스님은 "항상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주신 봉사단장 및 단원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복지를 위해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20~9/2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도법스님의 신심명 강의	도법	불광출판사	6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청우당
2	초학자와 함께 하는 계율공부	정현/서주	담앤북스	7	석보상절 훈민정음 조선 대장경의 길을 열다	정진원	우리출판사
3	딱돌해설서	중암선해 역저	금빛소리	8	부처님의 생애(종단본)	교육원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4	철학으로서의 불교(대원불교 학술총서09)	마크 시더리츠	운주사	9	못다갚을 은혜	월운해룡/신규탁 엮음	운당문고
5	선에서 본 반야심경	대전화상	불광출판사	10	반야심경 주해	무구자/김호귀 번역	중도

책세상

'석보상절', 인문 에세이로 만나다



석보상절, 훈민정음 조선 대장경의 길을 열다
정진원 지음 / 우리출판사
1만8000원

인문학자 정진원 교수 고전 에세이
'석보상절' 내용, 탄생 등 쉽게 풀이
현전하는 첫 책인 3권 부분을 다뤄
현대인 반면교사해야 할 교훈 '눈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석보상절〉은 1447년(세종 29) 수양대군과 김수온(金守溫) 등이 석가모니의 가계와 그 일대기를 편역한 책이다. 전 24권 24책으로 간행됐으나 현재는 총 10권(3 · 6 · 9 · 11 · 13 · 19 · 20 · 21 · 23 · 24)만이 전하고 있다.

〈석보상절〉은 불교사적으로도, 국문 · 언어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우선 불교적으로는 최초의 한글 번역 경전이고, 내용적으로 당시 불교학의 수준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문학적으로는 국문 최초 산문집이면서도 풍부한 어휘, 세련된 문장을 보여주고 있어 15세기 국어와 한자음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텍스트이기도 하다.

튀르키예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진원 교수(국립에르지예스대학)는 〈삼국유사〉와 〈석보상절〉 등 한국 고전의 세계화에 천착해왔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그는 세종의 한글 창제 이후 발간된 〈월인청강지곡〉 〈석보상절〉 등 조선 한글대장경을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정진원 교수가 최근 발간한 〈석보상절, 훈민정음 조선대장경의 길을 열다〉는 그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 책은 현전하는 〈석보상절〉의 첫 번째 책인 제3권을 다루고 있다. 이미 〈석보상절〉 1권과 2권에 해당하는 〈월인석보, 훈민정음에 날개를 달다〉와 〈월인석보, 그대 이름은 한글대장경〉을 출간한 바 있는 저자가, 그 뒤를 잇는 이야기인 〈석보상절〉 제3권을 풀어낸 것이다.

〈석보상절〉 제3권의 내용은 싯달타 태자가 태어난 뒤 정반왕이 관상가를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해, 사문유관과 6년 고행, 마지막 성도를 위해 보리수 아래 사자좌에 앉는 장면으로 이뤄져 있다.



▲저자 **정진원 교수**는? 홍익대에서 〈석보상절〉과 〈월인석보〉를 주제로 문학박사, 동국대에서 〈삼국유사〉를 주제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튀르기예 국립에르지예스대학 한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훈민정음 경전과 삼국유사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국내외 강의와 글쓰기에 전념하며, K-Classic 한국학 콘텐츠 보급에 진력하고 있다.

일련의 저술 작업을 통해 저자가 주목한 것은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훈민정음 반포 이후 문자로써의 실용 가능성을 증명하는 첫 책으로 유교 책이 아닌 부처의 일대기 〈석보상절〉을 편찬한 것이다. 그 까닭은 책의 서문인 '석보상절 서(序)'에서 일단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석보상절〉 짧은 서문 안에는 우리가 몰랐던 훈민정음과 불교에 대한 새로운 사실과 꼬리를 무는 궁금증 그리고 조선시대 불교 수용의 배경과 역사, 왕들의 개성과 성격 등 무수한 다빈치 코드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은하수를 이루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나라의 말씀을 백성들이 쉽게 익혀 날로 사용하기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라는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취지에 부합하는 실제 상황이요 증거"라고 본다.

이 책의 매력은 '석보상절'의 옛 글자 훈민정음 원문을 싣고 이를 현대어로 쉽게 해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정진원 교수의 해설은 과거 이야기인 〈석보상절〉를 현재 이야기로 이어내는 징검다리가 된다.

〈석보상절〉은 세종과 수양대군(세조)이 소헌왕후의 극락왕생과 정각을 염원하며 만든 책이다. 특히 이 책에서 다루는 제3권은 싯달타 태자가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가하는 장면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늙어서 병드는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롭다.

"이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입의 번뇌를 못 참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병이 나는 것이니 인생에 면할 사람이 없습니다."(p.133)

사문유관 도중 남문 밖에서의 이 대화를 두고 정진원 교수는 "가난한 시집과 친정의 대소사, 우리 집 대식구들을 위해 뼈가 부서지게 일하셨다. 그리곤 나이 마흔에 그 당시 이름도 생소했던 '한국형 당뇨'라는 병"에 걸려 결국은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어머님을 떠올린다. 뿐만 아니라 "나 또한 조심하였지만 그 길에 동참하고 말았다"며 '입의 번뇌를 못 참아'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번뇌의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는 점이 눈길을 끈다.

싯달타 태자가 부왕에게 출가선언을 하는 장면도 인상적이다. 한사코 출가를 막는 부왕에게 태자는 '늙음을 모르고 병이 없으며 죽음을 모르고 여의는 것을 모르고자' 출가하겠다고 답한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생로병사)' 근본적인 네 가지 괴로움(四苦) 대신 '늙고 병들고 죽고 이별' 하는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출가하겠다는 것이다.

저자는 태자의 출가 사유에서 네 번째 괴로움으로 '생(生)' 대신 '이별'이 언급된 것에 주목한다.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야 살아가면서 "직접 겪고 있거나 간접 체험으로 그 괴로움을 절절히 알아가게 되지만 그 끝에 '이별'의 괴로움이 버티고 있는 것은 간과하고 살았다"고 토로한다. 근래 부군(夫君)과 아버지를 여읜 저자에게 '죽음 뒤에 남는 이별의 괴로움'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 죽음뿐만 아니라 어떤 '이별'이든 당사자에게는 모두가 절실한 현재진행형의 괴로움이라는 데서 출가 사유의 의미를 되짚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저자는 인도 여행 중 둘러본 싯달타의 고행림이 설산(히말라야)에서 멀리 떨어진 보드가야 인근이었음을 떠올리며 설산(雪山)의 의미를 되새긴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 같이 묻는다.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리다 보면 어느덧 본질은 사라지고 절제가 지나쳐 물심양면으로 인색해진다든지, 자기만의 규칙을 만들어 남에게도 그 잣대를 들이댄다든지, 일부러 가시밭길을 걸어 피투성이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나 또한 여기서 얼마나 자유로울까. 석가모니의 팔상 중 '설산수도'의 '설산'은 '설산'이 아니라 '고행림'이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인생이란 설산은 고행림과 같은가, 다른가."(p.202)

기후 낙관론자 맞선 환경과학자의 폭로



정치는 어떻게 과학의 팔을 비트는가
루이스 지스카 지음
김보은 옮김
한문화 / 1만5000원

이산화탄소가 늘어날수록 지구는 더 푸르러진다?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화석연료 산업계와 보수주의 정권은 늘 입버릇처럼 말한다. 산업혁명 덕분에 인간은 식물과 동물이 풍부한 환경에서 살게 되었다고, 그러니 앞으로 이산화탄소가 더 늘어날 미래 환경은 환영해야 마땅하다고. 하지만 〈정치는 어떻게 과학의 팔을 비트는가〉의 저자이자 전 미국 농무부 소속 환경과학자인 루이스 지스카는 이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산화탄소가 식물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왜곡된 진실이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이산화탄소의 일부 장점만을 부각하는 정치적 구호,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먹이다'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루이스 지스카 박사가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먹이다'라는 논제를 철저히 과학적인 관점으로 파헤친 결과물이다. 그는 먼저 식물과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삶의 토대가 되는지를 밝히고 이산화탄소의 순기능을 명료하게 정리했다. 동시에 지금보다 이산화탄소 농도 및 기온이 상승했을 때 우려되는 이산화탄소의 역기능을 추적하고 검증했다. 익사하는 북극곰, 높아지는 해수면, 강력해진 폭풍 같은 표면적인 현상보다 더 직접적으로 다가올 위기는 식물 자체에 있다는 것이다.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식량 작물은 안전하게 열매를 맺고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을까? 생물다양성의 질서는 이대로 유지될까? 식물 유래 성분이 바뀌어 오히려 독성과 중독성이 강해지는 것은 아닐까?

정치, 산업계가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먹이라는 한 조각 진실 뒤에 숨긴 거대한 이산화탄소의 위험이 이 책 한 권에 가득하다.

임은호 기자

보다 정의롭고 생태적인 미래 위한 전략



미래는 탈성장
마티아스 슈멜처 외 2명 지음
김현우 외 1명 옮김
나름북스
2만2000원

기후 재앙, 대량 멸종, 팬데믹의 위협, 성장과 관련한 다양한 위기로 만성적인 비상사태가 전개되면서 탈성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많은 사람이 더 이상 인류의 삶보다 경제 성장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현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탈성장이 더 현실적인 제안이라고 여긴다. 이 책은 경제 성장에 대한 의문이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고,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같다면서 탈성장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성장에 대한 비판이자 변혁을 위한 제안으로 체계화한다. 이를 위해 먼저 탈성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탈성장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다.

이 책은 성장을 단순한 GDP의 증가가 아닌 사상이자 관념이고 사회 과정이며 물질 과정으로 서술했다. 점점 더 빠르게 우리를 낭떠러지로 몰아가며 수많은 자원을 폐기물과 배출물로 남기는, 자연에 대해 팽창하는 사회적 신진대사이자 가속, 확대, 강화의 힘을 서로 키우고 동적으로 안정화하는 사회적 과정으로서의 성장을 다뤘다. 아울러 성장 이데올로기가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어 헤게모니를 쥐게 된 과정을 탐구하며, 성장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임노동을 비롯한 생산관계는 물론 모든 사람에게 권력과 위계를 정당화하고 강요하게 되었는지 논의한다. 탈성장 논의 바깥에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성장 비판-보수주의자들, 녹색 파시즘, 반현대주의, 부자들의 환경주의도 덧붙여 소개했다.

임은호 기자

"소원 성취", 사경 독송 공덕

"만일 어떤 사람이 경전을 베껴 쓴다면(寫經) 이것은 곧 부처님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받게 되느니라." (대방광불화엄경)

민족사 사경 시리즈의 특징

- 한 권 속에 번역(한글), 원문(한문), 한자 독음이 붙어 있어서 사경과 독송이 동시에 가능!
- 사경의 방법과 목적 등 자세한 안내가 있어 혼자 사경하는 불자들의 길잡이가 됨!
- 책장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제본되어 사경과 독송하기 매우 편함!



1 금강반야바라밀경 (한글)
지혜 성취 기도
8,500원



2 금강반야바라밀경 (한문)
지혜 성취 기도
8,000원



3 아미타경 (한글·한문)
극락왕생 기도
7,500원



4 관세음보살보문품 (한글·한문)
고난 소멸 기도
7,500원



5 부모은중경 (한글·한문)
효행 기도
8,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대행 선사 수행·전법, 계바라밀 실천 자체”

법장 스님, 대행선연구원 제16회 계절발표회서 주장

‘한마음요전’의 대행선사 계행 분석
“대행 선사 계행은 보살계”로 파악
삶에서 참된 계바라밀 실천 이끌어
“선사의 治病, 보살행의 실천” 강조

이상호, 주인공 원리·관법 구조 고찰
“대행선, ‘一原多觀 禪法’ 특징 가져”
안양본원 선법가합창단 소개 시간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이 발표를 하고 있다.

부처가 되는 실천행인 ‘육바라밀(六波羅蜜)’의 기본 중 하나가 ‘계바라밀(戒波羅蜜)’이다. 특히, 계바라밀은 계의 실천이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의 완성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강조해 대승불교의 보살 정신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행장과 가르침을 담은 〈한마음요전〉에 나타난 선사의 계바라밀 실천행을 분석한 연구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산하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은 9월 16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 법당에서 제16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은 ‘〈한마음요전〉에 나타난 계바라밀의 고찰’을 통해 대행 선사의 행장 속에 나타난 보살행과 전법을 계율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선사의 삶 안에서 계바라밀이 공존하고 있었음을 규명했다.

대행 선사는 1950년 3월 27일(음력)에 오대산에서 한암 선사에게 정식 수계를 받고 출가자가 됐고 이후 종단 승적과 무방하게 수행을 이어갔으나 탄허 스님의 권유를 받아 승적을 회복했다. 〈한마음요전〉에는 1960년 사미니계를, 1961년 비구니계를 수지한 것으로 종단에서 승인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법장 스님은 대행 선사의 출가와 수계를 율장에 근거해 논하기보다는 “선사가 수행자로서의 삶과 전법을 보살의 모습으로 보고 보살계를 통해 논해야”함을 분명히 했다. 보살계의 핵심은 보살의 바라밀을 위한 것이기에 일정한 형식에 맞춰 지계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연민해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법장 스님은 대행 선사의 삶에 나타난 수행과 전법이 ‘보살의 바라밀’과 연결되며, 계율에 있어서도 지지계(止持戒)가 아닌 작지계(作持戒)의 관점에서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고 봤다.

법장 스님에 따르면 〈한마음요전〉에서 계율에 대해 대행 선사는 ‘살아가며 마주치는 모든 경계가 계율이 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마음이 계율의 토대’라고 설한다. 이는 ‘계를 두려워해 중생제도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계를 범한 것이 되고, 계를 없다고만 여겨 함부로 한다면 이 역시 계를 잃는 것이 된다’는 원효 스님의 설명과도 맞닿는다.

그렇기에 법장 스님은 대행 선사가 행한 치병(治病)도 ‘중생의 간절한 요구에 응한 보살행’으로 봤다. 법장 스님은 “대행 선사는 치병으로 당장의 고통을 해소한 이들에게 그 병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설한다. 이것이 대행의 진정한 치병”이라며 “이런 대행 선사의 보살행은 그저 자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중생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불교의 가르침을 이 시대에 맞게 현실화한 방편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행 선사의 수행과 전법은 그 자체로 불법을 실현한 것이고, 보살계를 실천한 것이다. 불법은 삶을 위해 존재하고 보살계는 처해진 상황에서 불교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토대”라며 “대행 선사는 마음의 치료를 통해 중생들을 참다운 치병으로 이끌었다. 만약 선사가 지금 전법을 펼친다고 해도 시대에 맞는 방편을 보였을 것”이라고 봤다.

“아무리 오묘한 법을 깨친다 하더라도 중생과 더불어서 아니면 도가 될 수 없다. 깨친 목석보다는 자비심 있는 중생이 더 아름답다”는 대행 선사의 법문을 상기시킨 법장 스님은 “이 법문 속에 선사가 보여준 보살행과 계바라밀의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면서 “수행자로서 계행조차 아끼지 않았고, 일생을 통해 보살행을 펼친 대행 선사의 모습은 이 시대의 불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전법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표본”이라고 강조했다.


한마음선원 산하 대행선연구원은 9월 16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 법당에서 제16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삼귀의례를 하는 참가대중들.

이와 함께 ‘주인공 원리와 관법의 상관 구조 고찰’을 발표한 이상호(서강대) 박사는 주인공 원리와 관법과의 상관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대행선 정체성 정립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주인공 원리는 생명, 마음, 육신이 삼합이 돼 서로 공존하면서 작용하는 순위연동형 구조와 삼위일체형 구조를 가지며, 관법은 방편으로써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상관구조를 통해 확인되는 대행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특징은 “하나의 주인공 원리를 토대로 여러 관법 수행체계를 갖춘 선 수행법”인 ‘일원다관(一原多觀)의 선법(禪法)’이라는 게 이상호 박사의 주장이다.

이날 계절발표회에서는 해인사 율학승가대학원장 금강 스님,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 윤종갑 동아대 초빙교수,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논평자로 참여해 각각 논평을 진행했다. 또한 발표 이후 진행된 한마음선원 지원·단체 소개에서는 안양본원 선법합창단이 소개됐다. 발표는 김진용 합창단장이 맡았다.

계절발표회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대행 선사가 설하신 오계를 상기시키며, 계율 실천을 강조했다. 혜수 스님은 “우리 삶에서 주인공을 잘 관(觀)하고 일체를 근본 주체에 놓아가면 그것이 저절로 계율이 지켜지는 것이라고 대행 선사께는 늘 말씀을 하셨다”면서 “한마음선원의 대중은 매년 수계법회를 통해 선사의 말씀과 가르침을 다시 받들며 오계를 실천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계절발표회에서는 〈한마음요전〉에 나타난 대행 선사의 계바라밀을 살핀 법장 스님의 발표가 있다. 이상호 박사는 주인공 원리와 관법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면서 “논문발표와 논평을 해주신 모든 분들이 귀중한 인연이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대행선연구원장 혜선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발전하는 연구원의 모습에 대한 기쁨을 전했다. 혜선 스님은 “이번 발표회에서는 대행 선사의 삶 속에서 나타난 계바라밀을 분석하는 등 귀중한 연구성과가 담긴 논문들이 발표된다. 이 같은 논문들을 보면 연구원이 나날이 진화·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앞으로도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알리고 선양하는 데 연구원장으로서 열심히 심부름 하겠다”고 말했다.

산 속에 피어난 절, ‘월정사’를 만나다

춘천박물관, 월정사성보박물관
12월 25일까지 기획전시실서
국보 ‘상원사 중창 권선문’ 등
108점 전시… 프로그램 ‘다채’


국보 ‘상원사 중창 권선문’ 언해본. 세조와 정희왕후, 세자, 전·현직 고위관료 등 200명이 서명한 것으로 조선 초기 한글 연구의 중요 자료다.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물인 명주적삼과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복장물인 회장저고리. 이번 특별전에 최초로 공개된다.

오대산 월정사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만나는 전시가 열린다.

국립춘천박물관(관장 이재열)과 월정사성보박물관(관장 해운)은 9월 26일부터 12월 25일까지 국립춘천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오대산에 자리한 사찰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는 특별전 ‘오대산 월정사: 절, 산 속에 피어난 이야기’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강원의 불교 신앙이 탄생한 자연, 즉 산과 산에 녹아있는 이야기에 주목한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따르면 오대산은 나라 안의 명산 중에서도 가장 좋은 곳이며 불법(佛法)이 길이 번창할 곳이라고 여겨졌다.

다섯 봉우리로 둘러싸인 오대산에는 봉우리만큼 여러 개의 중심이 있다. 중국에서 가지고 온 부처의 사리를 산에 봉안했다고 전하는 신라 승려 자장(慈藏)이 창건한 오대산의 중심 월정사, 조선 세조(世祖)와 문수동자의 만남을 간직한 상원사, 부처의 사리를 모시는 적멸보궁, 다섯 봉우리에서 머무는 5만여 부처와 보살을 모시는 암자 모두 각자의 이야기와 기억을 품고 있다. 이번 전시는 오대산이 가진 특수성에 주목하여 산이 품고 있는 불교문화의 의미와 현재적 가치를 공유한다.

국보 1건, 보물 7건, 국가민속문화재 1건,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13건 등 총 57건 108점의 강원지역 중요 문화유산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 ‘오대산 신앙의 시작’에서는 부처의 사리가 모셔진 오대산과 신앙의 핵심이 되는 적멸보궁, 월정사의 역사를 조명한다. 특히 오대산의 사리 신앙을 대표하는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는 고려시대 찬란하게 빛난 불교문화를 보여준다. 1부에서는 또 다른 성산, 금강산 이야기도 만나볼 수 있다.

2부 ‘부처와 보살, 산에 머물다’는 산봉우리에 올라 신앙의 정점을 만나는 공간이다. 오대산은 문수보살이 머무는 성지로 여겨졌고, 조선 왕실에서는 월정사와 상원사를 비롯한 오대산 사찰과 암자를 후원했다.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안에서 나온 적삼은 동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조선 세조의 피부병을 치료한 문수보살 전설을 떠올리게 한다.

3부 ‘산 너머, 함께 만든 이야기’는 산 너머의 풍경을 조망하는 시간이다. 오대산은 불교문화뿐 아니라 조선의 기록문화를 대표하는 〈조선왕조실록〉도 품고 있었다. 실록을 보관했던 오대산사고의 흔적을 만나보고, 산 너머로 시선을 옮겨 다른 지역 승려와 함께 한 불사(佛事)를 살펴본다.

특히 월정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로 강원도 남부의 사찰과 암자를 관할하였다. 전시에 소개된 월정사성보박물관에 소장된 강원도 여러 지역의 성보문화재는 산 너머 사찰간의 관계망을 보여준다. 이 공간에서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사찰을 다시 일으킨 한암 스님(1876~1951)과 탄허 스님(1913~1983)의 필적도 만날 수 있다.

전시의 마지막은 탄허 스님의 글씨이다. 불 속에서 핀 연꽃을 의미하는 ‘화리생련(火裏生蓮)’은 고난을 딛고 다시 대가람을 이룩해 강원도 불교 문화의 중심이 된 월정사를 대변하는 말이다. 스님의 선필(禪筆)에 담긴 강한 의지를 마주한 뒤에는 오대산 자락에 내재된 불교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불상 복장물과 권선문들을 눈여겨 볼만 하다. 상원사 중창을 위해 세조와 그의 비 정희왕후, 세자를 비롯해 200여 명의 전·현직 고위관료가 자신의 이름을 적은 국보 ‘상원사 중창 권선문’은 조선 초기 한글 서체 등 한국어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다.

1466(세조 12)년 조성된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과 1661년(현종 2)에 조성된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의 복장물은 이번 전시를 위해 함께 사찰 밖을 나선다. 두 상 안에서 나온 명주적삼과 무문사적삼, 회장저고리 모두 산문 밖 전시는 처음이다.

이와 함께 오대산의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영상과 교육도 준비돼 있다. 16K 초고화질 실감영상카페 ‘지금 여기, 휴(休)’에서는 ‘이야기의 숲, 오대산을 거닐다’도 새로 공개한다. 이 영상에서는 조선 19세기 그림을 바탕으로 재현된 오대산사고와 월정사의 전경을 비롯해 월정사 팔각구층석탑과 석조보살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국립춘천박물관은 “강원의 산은 고립의 공간이 아닌 풍부한 가능성의 공간”이라며 “이번 전시를 계기로 산을 바탕으로 형성된 강원 불교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국보 ‘백제금동대향로’ 좁으로 느끼다

국립부여박물관 특별전 내년 2월까지
‘백제금동대향로3.0…’ 향 문화 조명
발굴 30주년 맞아 ‘백제의 향’ 재해석


국보 백제금동대향로. 올해로 발굴 30주년을 맞았다.

1993년 12월 12일 부여 능산리 고분군 근처에서는 주차장 공사를 앞두고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이뤄졌다. 추운 겨울, 조사연구원들은 발굴현장에 흘러드는 논물을 고랑을 파 끌어내며 힘겹게 작업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불에 탄 흔적이 있는 기와와 뚜껑 같은 것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10여일의 처리 작업을 마치며 연구진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젠 국가지정문화재 ‘국보’인 백제금동대향로가 모습을 드러내서다.

백제금동대향로 발굴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전이 열린다.

국립부여박물관(관장 은화수)은 백제금동대향로 발굴 30주년 특별전 ‘백제금동대향로3.0-향을 사르다’를 내년 2월 12일까지 개최한다.

백제금동대향로 발굴 10주년 기념 특별전 ‘백제금동대향로’, 20주년 기념 특별전 ‘하늘에 올리는 염원, 백제금동대향로’를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향(香)’에 주목하여 백제금동대향로의 연구 성과를 3.0으로 업데이트하였다.

그간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의 향 문화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나라의 향 문화는 어떻게 발전하였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향로와 향문화’ 학술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찾은 백제의 또 다른 향로와 우리나라의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향로를 한데 모아 이번 특별전에 선보인다. 또한 백제금동대향로의 향을 구현하고자 향기 작가와 함께 백제의 향을 재해석하여, 전시 공간을 센테리어(Scenterior, 향기(Scent)와 인테리어(Interior)가 결합된 용어)했다.

국립부여박물관은 “‘향’은 설레면서 그리운 추억을 떠오르게 하고, 순식간에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면서 “6세기 중반, 전쟁의 참패와 성왕의 죽음으로 위태롭던 백제에 마음을 움직이는 향은 상처받은 백제인의 아픔을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심어주었을 것이다. 백제금동대향로가 건네는 ‘치유’의 향이 관람객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천태예술공모대전 대상에 민화 ‘평생도’

문수현 씨 작품…10월 18일부터 전시


제8회 천태예술공모대전 대상작으로 선정된 문수현 씨의 민화 ‘평생도’

천태종이 주최하고 천태문화사업단이 시행하는 제8회 천태예술공모대전에서 문수현 씨의 민화 ‘평생도’가 대상(문체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천태예술공모대전 심사위원회(위원장 전연호)는 9월 16일 앞서 접수된 작품들을 심사해 수상작을 이 같이 선정했다. 최우수상(문화재청장상)은 송안섭 씨의 조각 작품 ‘관세음보살상’이 선정됐다. 부문별 우수상으로는 전통불화 김성희 씨의 ‘영산회상 괘불도’, 현대불화 김민지 씨의 ‘존재에 대하여’, 공예 조각 김광현 씨의 ‘윤회 그리고 해탈’, 민화 이경덕 씨의 ‘선정에 든 나한의 미소’가 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 “대상 수상작은 민화의 도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주제의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해 공력을 들인 작품으로 평가한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한편, 수상작 전시는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서울 관훈동 동덕아트갤러리에서 열린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일강 엔지니어링(주)

SUNRIVER ENGINEERING

건설감리전문엔지니어링
기업부설연구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38번길 7-1, 3층
Tel 8017-1010 Fax 8017-1011

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35 보석을 찾는 이 2

▶한줄 요약
이 기자 일행은 마침내 왈리 슈트라 쉼라를 만나고 아디카야의 검의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무쿠암이 두 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이슈 무쿠암과 보디 아이슈 무쿠암.



혼란의 시작, 무쿠암은 두 개였다

그가 가리켜준 대로 이 골목 저 골목을 한참 헤매 돌았다. 전형적인 인도풍으로 지어진 집들 사이로 판자촌이 나타났다. 아무리 계급층이 두꺼운 나라라고 하지만 좀 전의 풍경에 비하면 조악하기 그지없다. 그래서인지 으리으리한 집 저쪽과는 달리 골목길이 좁았다. 마주 오는 두 사람의 어깨가 닿을 듯 좁아지는가 하면 어느새 우마가 지나다닐 만큼 넓어지고는 했다.

왈리 슈트라 쉼라가 사는 집은 어지러운 거리 구석 자리에 안쓰럽게 처박히듯 끼어 있었다. 판잣집은 아니었다. 흙으로 벽을 세워 필시 나무껍질이지 싶은 재료로 지붕을 얹은 집이었다.

본채와 별채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판자문 앞에서 주인을 찾았다. 몇 번을 불러서야 별채에서 여자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누구세요?

분명 힌디어였다. 언젠가 들어본 적이 있는 남인도에서 많이 쓰는 타밀어 계통의 어감이었다.

-뉴델리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말을 알아들은 오오스마 기자가 영어로 대답했다. 발음이 역시 유창했는데 힌디어가 인도의 공용어이긴 하지만 의식적으로 영어로 묻는 것 같았다.

-뉴델리에서?

인도에서는 어느 학과를 가도 기본적으로 배우는 과목이 공용어로 지정된 영어다. 열아홉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나왔다. 눈이 검고 컸다. 코가 오뚝하고 입 매무새가 야무졌다. 전형적인 이곳의 처녀였다. 그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낯선지 잠시 살피다가 물었다.

-뉴델리에서 왜…?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지 떠듬떠듬 물었다.

-이곳이 왈리 슈트라 쉼라 씨 집이 맞나 해서요?

심 작가가 물었다. 오오스마 기자만큼은 발음이 유창해 보이지는 않았다. 그가 이곳 사람이 아닌데 저 정도면 글 쓰는 사람답게 언어 구사력에 천부적인 재주가 있는 것 같았다.

-예. 맞기는 하지만. 지금 집에 계시지 않아서요.

-어디 멀리 가셨습니까?

이번에는 오오스마 기자가 물었다.

-들어오실 때는 됐지만…. 무슨 일로?

-그분과 어떻게 되십니까?

역시 오오스마 기자가 물었다.

-제 아버지 되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조금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사정이야 돌아오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들어오세요.

소녀가 자신이 나온 별채로 안내했다. 방안으로 들어서면서 나는 나도 모르게 코를 손으로 막았다.

무슨 냄새지?

방안으로 들어서서야 그 냄새의 근원지를 알 것 같았다. 방 옆이 바로 외양간이었다. 댓 마리의 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방은 흙벽 그대로였다. 한 쪽 벽만 신문지를 바르다 말았는데 도저히 성물을 숨기고 사는 집 같아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차가 나왔다. 인도인들이 늘 먹는 짜이였다.

왈리 슈트라 쉼라가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삼십 분 정도 지나서였다. 문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고 늙은 사내가 들어섰다.

-뉴델리에서 손님이 왔다고?

늙은 사내가 소녀에게 묻는 소리였다. 이곳 고유의 언어였다. 대충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소녀의 말도 영어가 아니었다.

-네. 이상해요.

-뭐가?

-이곳 사람들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 같아요.

-중국사람? 내 뭐랬냐? 아무나 들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그럼 그 먼 곳에서 와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어떡해요.

-넌 마음이 약해서 탈이야.

도저히 성물을 지니고 살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는 사람이 방으로 들어섰다.

-누구시오?

갑자기 그의 말이 영어로 변했다. 분명 좀 전에 들려오던 이곳 지방어가 아니었다. 외국 사람인 걸 알고는 영어로 묻는 것 같았다. 늙은 사내가 물었다. 이제 칠순이나 되었을까. 얼굴에 주름이 깊었다. 전형적인 이곳의 농부였다.

-왈리 슈트라 쉼라 씨 되십니까?

심 작가가 일어나며 물었다.

-내가 왈리 슈트라 쉼라요만….

아! 하는 탄성이 오오스마 기자의 입에서 터졌다. 무쿠암으로 취재를 나갔다가 한 번 본 적이 있다는 탄성 같았다.

이 사람이 왈리?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늙은이가 윗옷을 벗고 윗목으로 가 앉았다. 그가 앉자 일어섰던 일행도 따라 앉았다.

-무슨 볼일이오?

주위를 둘러보던 늙은이가 그래도 나이가 들어 보이는지 송 서화가를 향해 물었다. 송 서화가가 얼른 대답을 못 하고 눈을 껌벅거리는데 심 작가가 말을 알아듣고는 나섰다.

-이분들은 한국이란 나라에서 얼마 전에 오신 분들입니다.

-한국?

되묻는 음성이 깜짝 놀라는 것 같았다.

-그래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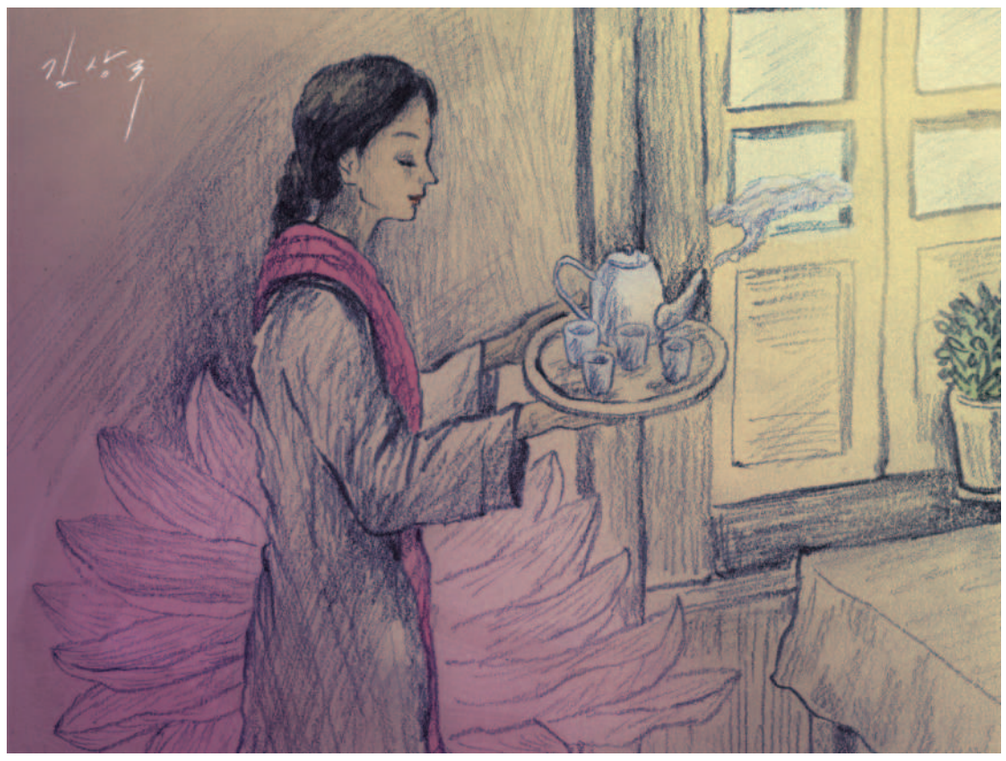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늙은이가 심 작가에게 물었다.

-실은 스리나가르에 있는 무쿠암을 찾아왔다가….

늙은이가 얼핏 흔들렸다.

-무쿠암?

-네?



삽화 · 김상규

-아하, 내 그럴 줄 알았지. 또 그 성물 때문에 오셨구만. 요즘 들어 좀 뜸하더니 웬 관심인지 모르겠네. 그래 뭘 알고 싶어서 먼 길을?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무쿠암에 소장했던 성물이 부처님이 남기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지팡이인지…?

-예수의 지팡이?

-네.

잠시 일행을 살펴보던 늙은이가 눈을 감으며 고개를 내저었다.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내가 되물었다.

-거 아이슈 무쿠암에 묻혔다는 그리스도의 지팡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곳에는 두 개의 무쿠암이 있소. 하나는 보디 즉 깨달음이라는 말이 붙은 보디 아이슈 무쿠암(Bodhi-Aisb-Muquam)이고, 하나는 아이슈 무쿠암이오. 두 곳의 위치는 확연히 다르오. 아이슈 무쿠암은 보디 아이슈 무쿠암에서 정확히 1킬로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이오. 스리나가르로부터 남동쪽으로 59km. 비즈비하라로부터 13km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보디 아이슈 무쿠암(Aisb-Muquam)이오. 그로부터 1km 더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아이슈 무쿠암이고. 그러고 보면 잘못 찾아오신 것 같구려. 난 아이슈 무쿠암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그럼 우리가 찾은 무쿠암은? 퍼뜩 머릿속으로 이곳으로 오기 전 편집실에서 국장이 내밀던 종이쪽지의 글이 생각났다. 그 종이에 스리나가르로부터 59km. 비즈비하라로부터 13km,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다. 그럼 보디 아이슈 무쿠암을 찾았다는 말이 아닌가. 출발할 때야 어디든 적힌 대로 찾아왔을 뿐인데 다행스럽게도 보디 아이슈 무쿠암이었다? 그럼 그로부터 1km 후방에 예수의 무쿠암이 있다는 말이다. 그럼 그리로 갈 수도 있었다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정확히 거리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국장도 보디라는 말을 모르고 있었다?

문득 아이슈 무쿠암을 찾아왔다는 알렉스 생각이 났다.

-전에 말입니다. 알렉스가 찾았다는 무쿠암 말입니다. 기자님이 제게 스리나가르로부터 동남쪽 60km. 모세의 돌이 있는 비즈비하라로부터 14km라고 하지 않았나요?

내 질문에 잠시 생각하던 오오스마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는 우리가 찾았던 무쿠암으로부터 1km를 더 갔어야 했다는 말이네요.

-그렇군요. 우리가 제대로 찾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노인이 말하는 오오스마 기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디카야의 검 말입니다. 저는 신문사 기자인데도 그리스도의 지팡이가 묻힌 무쿠암의 얘기는 들어보질 못했거든요. 오오스마 기자가 늙은이를 향해 말하자 그가 고개를 주억거렸다.

-하기야 세월이 세월이라. 그랬을 거요, 아주 옛날얘기니까. 멀리서 왔다고 하니 몇 마디만 일러두겠소.

-감사합니다.

내가 깍듯이 예를 차렸다.

-아이슈 무쿠암에 묻혔다는 그리스도의 지팡이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말들이 많았소. 왜 거기 묻혔겠느냐 하는 거지. 로자발에 있다면 모를까. 아이슈 무쿠암에 살던 사람들도 자이누틴 왈리 쉼라의 후손들이 맞소. 그 당시에도 여기는 이슬람 문화권이었고 선조는 술탄이 파견한 지방관이었으니까. 그리고 그곳은 쉼라 가문의 피붙이들이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보디 아이슈 무쿠암의 문제는 좀 다르오. 석가모니 부처님이 생존할 때 그곳은 불교도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우리들의 선조도 불교도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 성물도 입수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소. 그리스도의 지팡이가 묻힌 아이슈 무쿠암에 대해서 들어보질 못했다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게요. 어떤 작가가 예수의 흔적을 추적하다가 그곳에 지팡이가 묻혀 있다는 설을 퍼뜨렸고…. 그런데 예수의 지팡이가 세상에 공개되었어요.

-공개되었어요?

로자발 소장의 말을 떠올리며 내가 물었다.

-그렇소. 공개된 것을 사진으로 본 일이 있소.

-그런데 이상하군요. 로자발 소장님의 말에 의하면 그 성물에 근접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노인의 얼굴에 미소가 물렸다.

-그것은 보디 아이슈 무쿠암의 성물에 대한 것이 와전된 것이오. 보디 아이슈 무쿠암의 성물은 정말 잡인이 근접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석관에 든 것이 무엇일까 하고 정부에서 내시경으로 살펴보았는데 칼은 아니었소.

-그럼요?

이번에도 성질 급하게 내가 물었다.

-검은 물체가 보이기는 하는데…. 검고 넓적한 물건이었소.

검고 넓적한…?

그래서 아직까지 아디카야 검의 실제 사진이 없다? 지팡이가 아니라면 칼이라는 말인데 그런데 그것이 검고 넓적하다? 검고 넓적한 칼도 있나?

-지팡이도 아니었다는 말이군요?

오오스마 기자가 그래도 의심이 풀리지 않는지 그렇게 물었다.

-지팡이는 이미 세상에 나왔다고 하지 않았소.

-그 지팡이는 아이슈 무쿠암에서 나온 것이 맞나요?

늙은이가 눈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다.〈계속〉

현대사회는 '정신건강', '마음건강'이 매우 중요한 시대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에는 '빙의', '신기운'의 폐해가 매우 큽니다! '의학적'으로도 규명이 안되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으십시오!!"

[상담하면 도움이 되는 분]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신기운,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 가지 영적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빙의와 신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병원에서도 안되고, 최고의 심리상담으로도 안되고, 무속굿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 영적기운을 환자로부터 제거하고 몸 밖으로 분리하고, 차단하고, 다스릴(천도)줄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빙의로 인한 대표적인 증세]
▣ 만성우울증·가위눌림·심한 불면증·공황장애·공포증·심한 불안증세 ·악몽 자주꿈·망자 자주 꿈에 나타남·몸이 매우 무거움·만성피로감 이 심한 경우! ▣ 환청·환각증세 심한경우!
▣ 증세는 있으나 병원에서는 진단이 이상 없이 나오는 경우! ▣ 혼자 중얼거림 심한 경우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이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어느 시점 이후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이상행동)!
▣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 등. ※ 자살충동 심한경우(손목긋는 자해행위 자주함)
▣ 병원에서 낫지 않은(희귀병),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감정 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계속되는 심한 우환, 사고, 줄 초상나는 경우, 매우 심한 가정불화 (의처, 의부증 심함)
※ 애완견 천도 가능, 조류(새종류), 개, 돼지, 소, 닭, 오리, 뱀종류, 구렁이, 어류(장어, 물고기 종류일체), 식물령(큰나무등), 모든 동·식물령 천도가능함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밤에만 증상이 심하고 밤에 주로 나가는 경우
※ 신병 앓고 있는 분: 신기운 떼어내고자 하는 분 환영!
※ 특히 기도,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탈(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이 나신 스님, 타 종교인, 성직자, 재가 불자, 일반인(종교와 무관함) 상담 환영 합니다!(비밀보장, 출장 상담도 가능)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환자 직접 오지 않아도 됨) ※육지계신 분 : 당일 정성가능(아침비행기, 오후 비행기) 공항에서 10분이내 거리

49재·천도재 전문도량 전국최고 빙의천도 신기운천도 전문상담원
마음치유·정신건강치유 전문상담원 제주불교조계종금강선원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연동 271-22) 3층 상담문의 : ☎ 064) 746-0789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중국 남경불교 성지순례

부처님 정진구사리 친견, 현장법사 정진구사리 친견 공양법회

한불여행사에서는 중국 남경의 천년고찰을 참배하며, 일반 여행사를 통해서는 친견할 수 없는 세계 유일의 불정사, 불정궁 지하궁전 석가모니 부처님 두정골 사리친견, 대보은사 불교박물관 관람 등을 순례하면서 친견법회를 봉행합니다.
영곡사에서는 현장법사의 정골사리 친견 공양법회를 진행하며 순례 동참자의 소원성취, 성불을 발원하고, 현장법사가 직접 경전을 새긴 대장경 338,000장 관람 체험을 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순례동참
• 순례예정 : 1차모집 2023년 11월 06일(월) – 11월 10일(금) 4박 5일
2차모집 2023년 11월 20일(월) – 11월 24일(금) 4박 5일
• 순례지역 : 중국 남경
• 동참인원 : 60명(선착순)
• 동참서류 : 여권사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계약금 50만원
• 동 참 비 : 1,650,000원(모든 경비 포함)
• 동참계좌 : SC제일은행 128-20-209517 한불여행사(주)
• 신청마감 : 선착순 마감
• 접 수 : 한불여행사(주)
• 문 의 : 한불여행사(주) 02-741-0495~6

순례참배 불정사 불정궁 불정탑 · 영곡사 · 탕산 온천 · 대보은사 · 서화사

주최 한불여행사(주) 후원 해동불교범음대학

한불여행사(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49(낙원동 243-3)

구미래의 새롭게 만나는 불교의례 ⑱ 원주

▶한줄 요약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것은 그 자체로 수승한 일이요, 수행하는 스님들을 수행자 스스로 뒷바라지하니 그 공덕은 얼마나 클 것인가.



사찰 대중 식생활 책임지며 수행자 외호〈外護〉



원주의 주관 아래 나물을 말리는 스님들. 사진제공=진관사

보살이 아니고서야

후원 살림을 관장하는 원주(院主)는 사찰음식에 밝고 섬세한 성품을 지닌 스님이 주로 맡는다. 대중의 식생활을 이끌어나가는 가운데 직접 음식도 만들어, 한 사찰의 공양 내용을 좌우하는 데는 경제 사정 못지않게 원주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사찰 살림이 가난하든 윤택하든 대중의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공양을 책임져야 할 막중한 소임이기에, '보살이 아니고서야 원주를 오래 못 산다' 는 말도 생겨났다.

원주는 공양간 근처에 머물면서 재료 조달과 식단을 궁리해 주기적으로 장을 봐오고, 계절의 흐름에 맞춰 밭농사를 설계하며 산나물을 수확하였다. 물자를 최대한 아껴야 하니 곳간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참기름 · 고춧가루 등 귀한 양념과 재료를 별좌 · 채공에게 조금씩만 내주어야 했다. 그런 가운데 대중의 영양과 입맛을 고려하고 별식과 제철 음식에도 신경을 써야 했으니 대중 뒷바라지의 무게가 참으로 컸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교통도 도로 사정도 좋지 않던 시기에 사찰마다 시장을 봐오던 원주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재가 있을 때는 물론, 평시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마을에 나가서 필요한 재료를 직접 사 와야 했기 때문이다. 걸망을 지고 산을 넘어 수십 리 길을 걸어서 시장에 다녀오는 원주의 노고를 잘 알기에, 대중은 그 누구도 마음속으로나마 음식에 대해 불평할 수 없었다.

쌍계사 고산 스님은 범어사 원주로 살 당시에 대규모 짐을 들일 때만 트럭을 이용하고, 평시에는 온천장까지 30리 길을 늘 걸어 다녔다. 아침 공양이 끝나자마자 출발하면 두 시간 걸려 장에 도착했고, 시장을 봐서 돌아오는 길은 세 시간이 걸렸다. 등에 물건이 가득 담긴 걸망을 지고, 양손에는 참기름 · 콩기름을 각각 두 되씩 들고 걸어야 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초, 3년 결사로 운영한 삼척 영은사에서 원주 보경 스님의 정성은 놀라울 정도였다. 당시 탄허 스님과 30여 명의 대중이 자급자족하며 농사일 외에는 공부에 전념했는데, 원주는 대중의 손을 최소한으로 빌리면서 스스로 엄청난 일을 해냈기 때문이다.

그는 콩을 심고 메주를 쑤어 일반 장과 청국장 · 막장을 담갔고, 깨를 심어 기름을 짰다. 철마다 부각을 만드는가 하면, 신도도 오지 않는 명절에 떡은 물론 조청과 두부를 만들어 유과 · 다식 · 만두까지 내었다. 온전히 결사 대중을 위해 헌신하며 논밭에서 살아, 힘들게 보낼 각오가 되었던 대중은 원주의 재량으로 명절 음식까지 먹을 수 있었던 셈이다.

선방을 운영할 때면 주지와 원주는 선객 외호의 책임을 맡아 공양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했다. 쌀이 부족하면 탁발해서라도 선방에는 쌀밥을 들이고자 했고, 산에서 갖가지 재료를 채취해 말려두었다가 안거 때 차를 달여 내었다. 이들 또한 선방에 방부를 들이면 선객이지만, 본채에 머물 동안에는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1925년 도봉산 망월사에서 만일참선결사를 할 때, 선방 운영에 필요한 직책을 내호법반(內護法班)과 외호법반(外護法班)으로 구분해 소임을 나누었다. 내호법반은 선방 내의 일을 맡아 입승 · 유나 · 시불(侍佛) 등 16개 직책을 두고, 외호법반은 원주 · 별좌 · 미감 등 8개 직책을 배정하였다. 이 결사에서는 외호 소임 또한 선객들이 맡았지만, 원주를 중심으로 한 후원의 공양 뒷바라지가 '수행자 외호(外護)' 의 막중한 소임이라는 인식이 한국불교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

전좌와 별좌

'원주' 라는 명칭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알 수 없으나, 1903년 범어사 계명암 선원의 방함청규문(芳啣淸規文)에 후원 소임으로 '원주' 와 '별좌(別座)' 가 나온다. 고려 후기까지 후원의 책임자였던 '전좌(典座)' 가 사라지고 원주와 별좌가 등장하여, 조선시대 어느 무렵에 이러한 명칭 변경이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별좌는 원주를 도와 공양간을 이끌며 중간 역할을 하는 소임이다.

전좌는 북송 말(1103년) 〈선원청규〉에 등장하는 4지사(知事) 가운데 하나이다. 주지(방장) 아래 대중을 통솔하는 직책으로 감원(監院) · 유나(維那) · 전좌(典座) · 직세(直歲)를 두었는데, 이 가운데 전좌는 후원의 우두머리로 우리의 원주 · 별좌를 통합한 소임에 해당한다. 1960~1970년대까지 우리나라에도 '전좌' 라는 명칭을 쓴 사찰이 더러 있었다. 아울러 중국불교에 별좌 소임이 없는 것을 보면, '전좌' 의 명칭이 한국에 와서 '별좌' 로 바뀐 듯하다. 음식솜씨가 뛰어난 스님에게 별좌 소임을 맡기면서 봉급에 해당하는 쌀과 말을 지급하는 사찰도 있었다.



재가자를 이끌며 직접 음식을 만드는 석남사 원주.

〈선원청규〉에는 전좌의 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혀두었다.

전좌의 소임은 대중의 죽과 밥[粥飯]을 맡는 일이다. 모름지기 도심(道心)을 움직여 때에 따라 조리를 바꿈으로써 대중을 안락하게 해야 한다. 재료를 낭비하지 말고, 주방을 점검하며, 행자를 잘 간택하여 여법하게 지도해야 한다. …장과 식초를 담그고 나물을 간수하는 일 등을 모두 전담하되 때를 잃지 말아야 한다. …전좌는 두 때의 음식이 준비되면 먼저 승당(僧堂)을 향해 분향 예배를 마친 후에 보내야 한다.

내용 가운데 특히 전좌가 지녀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분명히 드러낸 점이 주목된다. 도심(道心)으로 음식을 적절히 바꾸어 대중을 안락하게 하고, 음식이 준비되면 먼저 승당을 향해 분향 예배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는 대중에게 음식을 올리는 일이 수행과 다를 바 없고, 공경심을 갖추어야 하는 소중한 책무임을 새기게 한다.

이와 관련해 일본 조동종의 개조 도겐(道元) 스님은 송나라의 영파 천동사(天童寺)에서 유학할 때, 전좌가 음식을 만든 뒤 승당을 향해 9배하고 공양을 보내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또 그는 이 무렵에 노 전좌 두 명을 만나게 된다. 한 명은 61세의 아육왕사(阿育王寺) 전좌였다. 그는 삼사십 리 길을 걸어 영파항까지 왔는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 단오를 맞아 대중에게 국수 공양을 올리려고 버섯을 구하러 온 것이었다.

또 한 명은 활처럼 등이 굽은 68세의 천동사 전좌로, 땀이 쏟아지는 한여름에 삿갓도 쓰지 않고 지팡이를 짚은 채 표고버섯을 말리고 있었다. 이에 도겐이 '왜 행자나 인부를 시키지 않느냐' 고 묻자 '타인은 자신이 아니다' 라고 답했다. 또 '햇볕이 뜨거운데 어찌 이렇게 일하느냐' 고 묻자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겠는가' 라는 말이 돌아왔다. 깊은 감동과 함께 전좌의 소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도겐 스님은, 후일 유명한 〈전좌교훈(典座敎訓)〉을 펴냈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것은 그 자체로 수승한 일이요, 수행하는 스님들을 수행자 스스로 뒷바라지하니 그 공덕은 얼마나 클 것인가. 당나라 말의 설봉(雪峰) 스님은 어느 절에 가든지 전좌를 자청하여, 늘 쌀 이는 조리와 주걱을 걸망에 매고 다녔다. 이는 자급자족의 노동과 대중을 위한 음식 장만이 수행으로 체화된 선불교의 특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후원의 능력자

예전에는 원주를 잘 살면 사중에서 계속 소임을 보게 하여, 수년에서 십 년 이상 하는 경우도 많았다. 당시 원주가 직접 반찬을 만들었기에 '원주를 잘 산다' 는 말은 음식솜씨가 뛰어나다는 뜻이기도 하였다. 순천 송광사에는 걸출한 원주가 여럿 있었는데 그 가운데 1960년대의 현문 스님과 1970년대의 영진 스님이 꼽힌다.

구산 스님의 상좌 현문 스님은 원주를 12년 정도 살았다. 노스님들은 당시를 기억하며 "현문 스님을 따라갈 자가 없다", "현문 스님이 만든 고기 안 들어간 절 짜장면은 정신이 확 돌아올 정도"라 하였다. '전생에 비구니' 라 불릴 정도로 특별히 음식솜씨가 훌륭하고 감각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현문 스님이 만든 송광사 깻잎장아찌는 일품으로 알려져, 요리연구가 왕준련이 스님을 직접 찾아와 배우고 갔을 정도라 한다. 그는 송광사 살림이 어렵던 시절에 원주를 살면서 매일 베개에 코피를 흘릴 정도로 대중공양에 최선을 다했다.

그 뒤를 이어받은 영진 스님은 보성 스님의 상좌로, 1973년부터 원주를 맡은 뒤 4년간 여섯 차례 원주소임을 하여 '후원 방장' 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는 또 다른 방식으로 독특한 맛과 풍미를 지닌 깻잎장아찌를 만들었고, 특식으로 내는 면류가 일품이었다. 여름이면 농사지은 콩을 갈아 콩국수를 내고, 면을 밀어 칼국수 · 만두도 자주 만들어 대방에 들였다. 별식 공양을 한 스님들이 산에 올라 '아~ 아~' 고함지르는 소리를 들으면, '스님들 오늘 기분 좋으시구나' 하며 원주로서 더욱 힘이 나는 나날이었다.

1960년대 동화사 양진암에서 행자생활을 하던 진원 스님은, 주지이자 원주를 맡아 오로지 선방 스님들 뒷바라지에 헌신하는 은사 스님 더없이 안타까웠다. 이에 어느 날 "큰방 스님들은 졸기도 잘하고 지대방에 나와 잡담도 많이 하는데,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하고 은사에게 말하자 다음과 같은 답이 돌아왔다. "그건 그분의 일이고, 나는 내 일을 할 뿐이다." 당시 은사의 말씀은 진원 스님에게 깊은 가르침으로 남아있다.

지금은 규모가 큰 사찰에서도 주지와 총무 · 교무 · 재무의 삼직 만으로 구성하고, 후원의 원주 소임은 두지 않는 곳이 많다. 원주의 지휘 아래 별좌 · 공양주 · 채공 등을 모두 스님과 행자들이 맡던 데서, 점차 재가자 중심으로 인적 구성이 바뀌게 된 것이다. 사찰음식에 이해가 깊은 재가 공양주가 절의 역사와 함께하며 안정된 솜씨를 발휘하기도 하나, 재가자가 후원을 전담하거나 스님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사찰 음식문화도 조금씩 바뀌어 갈 듯하다.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강소연 교수의 깨달음의 미학 ⑱ 석굴암의 비밀 (2)



▶한줄 요약
석굴암 본존불은 인도 부드가야에 있던 대각사의 〈대각상〉과 그 크기가 같다. 이 같은 유사성은 신라가 부처님 성도지임을 강조하려 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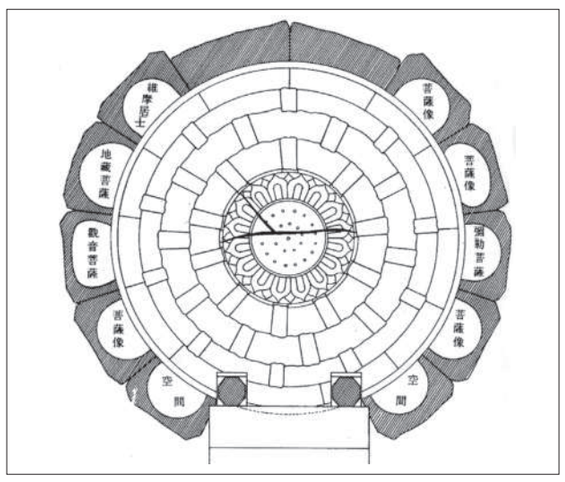
석굴암 본존불, 원조 '印대각상' 넘어서다

지난 연재에서는 석굴암 건축에 담겨있는 비밀을 알아보았다. 어째서 화강암의 '돌' 건물을, 그것도 '원형'의 형태로, 토함산 그 높은 곳에 올리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을까? 원형이라는 모양에 담겨있는 종교적 상징은 무엇일까?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지난 연재에) 풀어보았다.(도판① 돔Dome 형식의 천개와 천개를 둘러있는 감실 도안. 천개는 연꽃이 만개한 모습인데, 감실 공간은 마치 연꽃잎이 둘러 핀 것처럼 배치됐다. 도판② 석굴암 원실의 도면. 본 법당은 거대한 여의주의 공간이 구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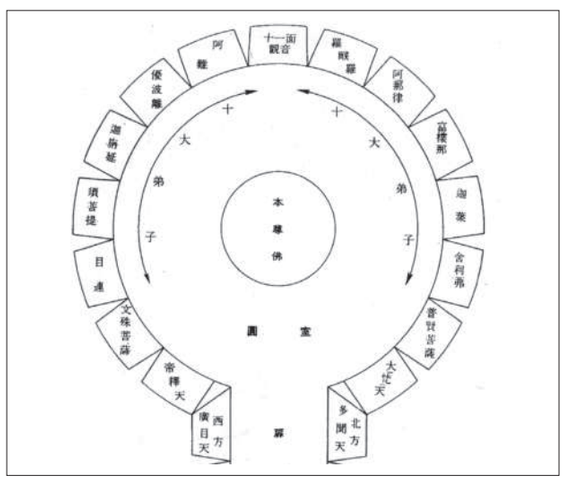
그럼, 이번 연재에서는 석굴암 내부 조형물 중에 가장 핵심인 본존불 〈석가모니대각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석굴암의 본존불은 〈석가여래상〉, 〈석가모니불상〉, 〈석가모니성도상〉, 〈항마촉지인상〉 등으로 불리는데, 본 연재에서는 〈석가모니대각상〉으로 지칭하겠다.

수많은 태어남과 그 윤회 속을 헤매었네/ 집을 짓는 자가 누구인지 알려고/ 찾아 헤매이다 헤매이다 찾지 못했네/ 거듭거듭 태어남은 괴로움이라 … 아, 집을 짓는 자여!/ 마침내 너를 찾았다/ 너는 이제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라/ 모든 서까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산산조각 났다/ 나의 마음은 열반에 이르렀고/ 모든 갈애는 사라졌네.

–석가모니 붓다의 오도송



도판① 돔Dome 형식의 천개와 감실 도안.



도판② 석굴암 원실(圓實)의 도면


도판③ 항마촉지인의 〈석가모니대각상〉

보드가야 대각사의 〈대각상〉

적적성성(寂寂惺惺)의 투명함 · 지극히 평온한 법열 · 반응하지 않는 청정한 마음…. 석가모니 붓다는 자신이 체득한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 궁극의 깨달음)의 크기와 깊이는 "생각으로 헤아릴 길이 없고 말로도 표현할 길이 없다"라고 말한다.

"내 마음은 관능적인 삶을 동경하는 망상에서 벗어났다. 존재하고자 하는 갈망에서 풀려났으며, 무명에서 비롯된 환상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 같은 자유와 해탈 속에서 나는 명백히 깨달았다. 더 이상 윤회는 없다. 더 높은 삶이 성취되었다." 〈중부경전〉36

석가모니 붓다의 오도송悟道頌(깨달음의 순간을 찬미하는 게송)에 따르면,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면 "다시는 태어날 일(윤회)이 없다는 것을 자명하게 알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존재의 원리 · 만물의 원리가 명명백백히 드러난다. 그래서 미혹할 일이 없고, 두려울 일이 없으며, 고통스러울 일이 없다. 그래서 "최상의 행복을 누린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최고의 깨달음, 이름하여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이라는 '더 이상 높은 곳이 없다'라는 경지의 석가모니 붓다의 모습을 어떻게 구현할까? 아마도 불교 미술에 있어 최고 최상의 화두일 것이다.

약 2500년 전 생생했던 붓다 대각(大覺)의 자리. 인도 보드가야의 보리수 아래이다. 후대에 그 자리에는 붓다의 대각을 기리기 위해 대각사(大覺寺)가 세워지고 〈대각상〉이 안치된다. 하지만, 적어도 5세기경에 안치됐던 본래의 〈대각상〉은 현재 찾아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대각사가 참으로 다사다난하고도 파란만장한 역사를 거쳤기 때문이다. 9세기에는 힌두교 사원으로 〈대각상〉 대신 〈시바상〉이 앉혀졌고, 12세기에는 무슬림의 침략으로 성지는 버려진 채 밀림 속에 묻혀버렸다. 우리가 인도 성지 순례에 가서 참배하는 현재의 대각상은 20세기에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보드가야에 최초로 안치되었던 본래의 〈대각상〉을 고스란히 옮겨 재현한 것이 바로 석굴암의 〈대각상〉이라는 것이다.

미술사학계 원로학자 강우방 선생은 일찍이 "석굴암 본존상의 크기와 비례가 인도 보드가야의 대각사 불상과 동일하다"는 것을 현장(玄奘)의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 기록에서 찾아 밝힌 바 있다. 해당 대목은 다음과 같다.

"석가모니가 정각(正覺)을 이룬 바로 그 자리에 대각사(大覺寺)가 세워져 있고/ 거기에 정각을 이룬 모습의 불상이 발을 괴어 오른발 위에 얹고/ 왼손은 살 위에 뉘었으며 오른손을 늘어뜨리고 동쪽을 향해 앉아 있었다./ 대좌의 높이는 당척(唐尺) 4척2촌이고 넓이는 1장2척5촌이며/ 상의 높이는 1장1척5촌, 양무릎 폭이 8척8촌, 어깨 폭이 6척2촌이다."

> "석굴암 내부적 핵심은 단연 '본존불'
> 석가여래상, 석가성도상 등으로 불려
>
> 인도 부드가야 있던 대각사의 대각상
> 후대 조성 석굴암 본존불 크기 같아
> 신라가 부처님 성도지임을 강조하려해"

놀랍게도 석굴암 본존상의 크기는 현장이 기록한 이 수치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이다.

역사 속 사라진 〈대각상〉, 신라 땅에 재현

보드가야 〈대각사〉의 본존상이 7세기 이전에 어떤 형식으로 존재했는지는 당나라 현장법사(602~664)가 쓴 〈대당서역기〉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기록을 보면 "왼손은 살 위에 올려있고 오른손은 늘어뜨리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으로 보아 '항마촉지인'의 형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쪽을 향하고 앉아 있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대(大) 정각의 시점인 새벽 동이 틀 때를 그 방향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장 법사의 기록보다 약 200년 앞서는 법현 스님의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정각의 자리에)탑을 짓고 상을 만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기록에서 볼 때, 법현 스님이 목격한 본존상은 적어도 5세기 이전까지 소급되는 굽타 양식의 작풍으로 추정할 수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대당서역기〉에 기록된 '본존상의 크기'(대좌 높이 당척 4척 2촌이고 넓이 1장 2척 5촌, 상의 높이 1장 1척 5촌, 양 무릎 폭 8척 8촌, 어깨 폭 6척 2촌)가 우리나라 석굴암 본존상의 크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다. 즉, 석굴암 본존상은 보드가야 본존상의 형식적 정통성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는 사실이다. 즉, 이곳 통일신라 땅이 바로 붓다 성도지임을 천명한 것이다. 법현과 현장이 목격했던 대각사의 본존상은 현존하지 않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오래다.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재현한 석굴암 본존상이 지구상에 존재하기에 우리는 본래 원조격 〈대각상〉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존재하지 않는 최초의 대각상과 가장 가까운 형태의 조각상이 우리나라 경주 토함산 석굴암에 현존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 가치는 세계문화유산에 빛난다고 하겠다.

정확히 같은 크기의 몸체와 당시 유행했던 굽타 양식의 수려함이 석굴암 본존상에는 서려 있다. 결국, 석굴암 본존상을 바탕으로 보드가야의 본존상이 어땠는지 역추론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물론, 우리나라 석굴암 본존상의 얼굴 모습은 당시 통일신라의 정서에 맞는 이상적인 한민족의 용모로 토착화되었다. 정확하게 동일한 크기는 차치하고라도, 편단우견(偏袒右肩)의 형식 · 양감(量感) 넘치는 몸체 · 얇디얇은 옷의 형식 등은 보드가야에 최초 안치되었던 본존상과 흡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깨달음의 특징, 육계와 광배

붓다 대정각(大正覺)의 모습의 특징은 무엇일까? 즉, 깨달음 이전과 이후 어떻게 다를까? 불교미술 속 붓다의 모습을 보면, 깨달음 이전의 모습은 일반 속인의 모습이다. 태자 시절에는 긴 머리에 관을 쓰고 궁중 의복을 입고 있었고, 출가 이후에는 삭발하고 허름한 옷을 입은 수행자의 모습이다. 하지만, 대정각 이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으로 탈바꿈한다.

석가모니 붓다의 깨달은 모습은 깊은 선정에 든 선정인(禪定印)의 존상을 하기도 하고, 마구니를 항복시킨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의 존상이기도 하고, 중생을 위해 설법하는 설법인(說法印)의 존상이기도 하다. '선정인–항마인–설법인'은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유기적 관계를 갖는 도상으로 모두 붓다의 깨달음을 상징한다. 그중에서도 '항마인 또는 항마촉지인'의 수인이 대각 또는 대정각을 맞이한 결정적인 순간으로 대표된다. 수인 이외에 깨달음의 기본적 특징 중 하나는 광배이다. 깨달음과 계합하였기에 몸에서 깨달음의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다. 몸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신광(身光)으로, 머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두광(頭光)으로 조형된다.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여주환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산수유열매,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복령, 옥수수수염, 천문동, 맥문동, 감초뿌리줄기, 뽕나무뿌리껍질, 창출뿌리줄기, 작약, 황기, 칡뿌리,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골담초환	**산수유환**	**어성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측백나무, 자소엽, 서목태, 복분자, 삼백초, 참당귀,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솔잎, 녹차잎,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02)2004-8212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교의 현대화 —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서 현대불교신문을 검색하세요!
NAVER 현대불교신문

이안의 Media In Buddha 24 영화 〈보스턴 1947〉



▶한줄 요약
〈보스턴 1947〉은 1947년 보스턴 국제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 동양인 최초로 우승했던 서윤복 선수의 실화를 영화화한 것이다.

청년, 보스턴 하늘에 태극기 휘날리다

108배를 해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108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고약한 지를 30배를 해도 1/3이 안 되고, 50배를 해도 절반이 안 되고, 100번을 엎드렸다 일어나도 아직 남아있는 그 어려움을.

마라톤도 그렇다. 출발이 좋아도 계속 1위가 아니고, 10㎞를 달려도 1/4이 안되고, 20㎞를 달려도 절반이 안되고, 겨우겨우 40㎞를 달려도 막판 스퍼트로 순위가 바뀌는 아슬아슬한 경지. 수행을 하듯 자신과 길 사이에 어떤 화두를 끝까지 잡아야만 이룰 수 있는 완주의 길. 거기서 메달을 딴다는 것은 화두를 깨우치는 것과도 같은 수행의 길이다.

뜀박질. 급하게 뛰어서 달려가는 일. 우리는 어딘가로 움직이기 위해 걷는다. 걷지 않고 뛰는 건 힘도 더 들고, 숨도 더 차니 참을 수 없을 만큼 반갑거나 급한 일이 아니면 부러 뛰지는 않는다. 아마도 사람이 오로지 뜀박질 그 자체를 목적으로 가장 길게, 전력을 다해 뛰는 일인 '마라톤'의 유래만 보더라도 그렇다.

그리스가 당대의 최강대국 페르시아와의 오랜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를 거둔 치열한 전장 마라톤 전투에서 쉬지 않고 아테네로 달려갔다는 그리스군 전령 페이디피데스를 기린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것이 오늘날 육상 종목이 된 '마라톤'의 기원이다. 이 전령이 쉼 없이 달려 승전보를 전하고 기력이 다해 죽었다는 이야기는 마라톤의 전설처럼 전해져 왔고, 마라톤은 그만큼 위험하지만 '국가적' 소명을 담은 스포츠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사실 페이디피데스가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 달린 까닭은 동맹국인 스파르타에 원군을 요청하기 위해서였고, 자신의 임무를 다해낸 다음 아테네로 잘 돌아갔다고 한다. 그런데 그리스 행사였던 올림픽을 국제적 행사로 다시 만든 쿠베르탱 남작의 지인이었던 프랑스 문헌학자가 올림픽과 마라톤을 보다 극적으로 대중에게 알려 성공적인 이벤트로 만들기 위해 이 이야기를 영웅적으로 각색한 것이다.

사실과 후일담, 진실과 각색은 처음부터 마라톤의 운명과도 같았고, 아마도 한국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마라토너 손기정 선수의 이야기도 이처럼 금메달 시상대 이후 극적인 드라마로 이어졌다. 일제강점기인 1936년에 열렸던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뿐 아니라 세계 신기록을 세운 놀라운 선수였다. 뿐만 아니라 함께 달려 동메달 시상대에 올랐던 남승룡 선수 또한 한국인이었으니 식민지 조선의 민중들에게 이때의 마라톤은 그저 운동경기에서 거둔 승리가 아니라 민족적 자부심과 제국주의 침략자에게 맞설 의지를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영웅적 뜀박질이었을 것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근대 올림픽은 시작부터 국가 대항전이었다. 식민지가 된 나라와 민족은 침략 제국의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침략국의 선수로서만 올림픽에 나갈 수 있었다. 당연히 손기정 선수



영화 〈보스턴 1947〉의 한 장면.

도 남승룡 선수도 일장기를 달고, 일본 선수로서 달렸고, 시상대에 섰다. 시상식에서 울리는 국가도 기미가요였다.

선수 개인이 그 상황에 놓인 것은 아무도 트집 잡을 수 없는 국제적 현실이었다. 그러니 손기정 선수와 남승룡 선수가 시상대에서 기미가요를 들으며 일장기를 단 가슴을 내밀고 서 있었어도 조선 민중들은 나라 잃은 설움과 영광을 도둑맞은 아쉬움으로 가슴이 뻐근하더라도 그들의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선일체라며 실력만 뛰어나면 조선 선수를 대표로 내보낼 정도였던 일본은 무려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운 선수를 일본의 우수성을 대표하는 홍보에 앞세우면서 최고의 보상과 지위를 주면서 일본 육상을 발전시킬 영웅으로 떠받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뻐근한 식민지 국민의 울분을 뜀박질 한 발 한 발로 밀어낸 손기정 선수는 시상대에서 우승자에게 꽃다발 대신 선사한 월계수 화분으로 가슴에 달린 일장기를 가렸고, 동아일보는 손기정 선수의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웠다. 그에 대한 일제의 보복은 혹독했다.

강제규 감독의 신작 〈보스턴 1947〉은 바로 그 보복으로부터 시작하는 영화다. 가장 영광된 업적을 이루고 돌아와 라디오 방송국에서 마이크를 앞에 놓고 총독부가 지시한 대로 일본 제국의 감시를 받으며 앞으로 '마라톤'을 그만두겠다는 방송을 하는 손기정(하정우)의 목소리나 표정은 이미 전세계적 성취를 이룬 영웅의 풍모가 아니다. 압제 앞에서 한 풀 꺾인 자괴감이 방송국을 둘러싼 일제의 감시와 팽팽한 긴장을 만들어내는 라디오 부스를 보며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에서 마라톤 평원을 달렸던 병사의 목적이 후대에 스포츠 외교를 위해 역사적으로 왜곡되고 전해졌던 상황처럼, 손기정 선수 개인의 성취와 영광은 자신의 목소리로 지워지고 중단된다.

1947년 보스턴 국제 마라톤 대회 참가한 서윤복 선수 실화 영화화
해방 후에도 '난민국' 취급 받던 안타까운 한국 현실 먹먹히 그려

국사 시간에도 배웠던 베를린 올림픽의 영광 이후 이런 식으로 손기정 선수가 억압 받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었다. 민족적 자긍심을 드높인 한 번의 이벤트가 그 이후로 어떤 족쇄로 지속되었는지는 당대에도 그렇고 지금까지의 역사에서도 대부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일제로부터 독립한 지가 언제인데 영화나 드라마로 이 기막힌 이야기가 만들어진 적도 없었다.

그러면서 〈보스턴 1947〉은 역사나 대중문화에서 다루지 않았던 시대, 주목하지 않았던 갈등, 깊이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과 사람 사이로 우리를 불러들인다.

1947년이라는 시대.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항복을 선언한 날부터 1948년 8월 15일 남한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날까지의 3년 사이의 시대. 이 시대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었던가? 이때 우리나라는 어떤 이름으로 불렸던가? 이 당시 우리나라의 국제적 입지는 어땠던가? 이 시기 사람들은 자신들을 어떤 나라의 어떤 국민으로 생각했는가?

강제규 감독은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이미 보여준 것처럼 시대를 재현하는데 아주 촘촘하게 공을 들인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1947년의 시대 공간은 마치 당대로 되돌아간 듯 섬세한 고증과 연구를 바탕으로 스크린에 펼쳐진다. 아마도 영화 제작에 가장 많은 비용은 이름값 큰 주연 배우들보다도 이 시대적 재현을 만들어내는 VFX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스크린에 펼쳐지는 1947년의 조선과 미국은 사실적이다.

일제에게 이미 한 번 의지를 꺾이고 영광을 빼앗긴 손기정은 술에 기대 하루하루를 버티는 주정뱅이가 되어있지만, 그 좌절을 알지 못하고 영광만 기억하는 조선 민중들은 손기정을 기념하는 마라톤 대회를 열며 들떠있다.

식민지를 갓 벗어난 조선, 아직 독립국가 아닌 조선,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적 국제 질서를 새로 짜려는 패권의 틈바구니에서 남쪽은 미군정이, 북쪽은 소련이 신탁통치라는 이름으로 지배하는 조선. 그 어렵고 서러운 조선에서 손기정의 이름을 건 대회는 희망과 미래를 꿈꾸게 하는 의지의 발판과도 같은 행사였을 것이다.

병든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대학을 다니느라 냉면집 배달부로 고단하게 여기저기 하루 종일 뛰박질하는 고학생 서윤복(임시완)과 같은 청년에게는 더 각별한 희망과 꿈. 왜냐하면 마라톤 우승자에게는 민족의 영웅인 손기정이 직접 메달을 걸어주는 영광도 있고, 무엇보다 상금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웬걸. 숨이 치받치도록 달려 우승을 했건만 영웅인 줄 알았던 사람이 제대로 된 축하나 격려는커녕 술 냄새 풍기며 뒤늦게 와서 대충 형식적 시상만 하고 지나친 건 그렇다 치고 기대했던 상금조차 없다니!

그런 손기정과 서윤복 사이에 남승룡이 있다. 여전히 마라톤 꿈나무를 이끄는 지도자이면서 아직도 현역으로 달리기를 포기하지 않은 베를린 올림픽에서 함께 달려 동메달을 걸었던 그 선수. 한 사람은 의지가 꺾여 냉소적이고 한 사람은 의지를 이룰 여건이 못 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다시 올림픽의 영광을 이뤄내려는 사람.

베를린 이후 전쟁으로 열리지 않았던 올림픽이 런던에서 개최될 1948년 바로 전 해인 1947년. 무려 두 명의 메달리스트, 심지어 한 사람은 세계 기록 보유자인데 조선에는 출전자격이 없단다. 베를린의 기록도 영광도 모두 일본의 것이니 조선은 세계대회 기록이 없어서 출전권이 없다는 것이 어이없는 스포츠 국제 권력 앞에서 손기정과 남승룡, 서윤복은 조선의 이름으로 출전권을 새로 따내야 한다. 그래서 출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

이 영화는 이 과정에서 국제질서란 얼마나 차갑고 폭력적이며, 그 안에서 개인은 또 얼마나 휘둘리고 꺾이기 쉬운 존재인지, 그러나 그 개인들이 좌절 대신 의지와 희망을 함께 할 때 이루어내는 결과는 '기적'이라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역사적 이정표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장기가 내려간 곳에 성조기가 걸려있는 시대, 독립국 조선이 아니라 신탁 통치를 받는 '난민국' 선수에게 비자 따위 내줄 수 없다며 어마어마한 보증금 걸고, 보증인 세워야 출국할 수 있다는 미군정 준장의 거드름을 넘는 과정은 42.195㎞보다 지난하고, 겨우겨우 도착한 보스턴에서 성조기 아닌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자 하는 의지는 독립운동만큼이나 결연하다.

편집도 매끄럽지 않고, 만듦새도 세련되지 않은 이 영화의 힘은 영화적 완성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억울한 상황이 역사적 사실이었고, 이 서러운 상황을 돌파에 보스턴에서 태극기를 휘날린 것 또한 역사적으로 '웅장한' 사실이었으며, 이 사실을 발판으로 1948년에 대한민국 최초의 선수단이 비행기 아닌 배와 기차로 런던까지 가서 태극기를 걸고 전세계에 나서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의 힘'일 것이다.

〈영화평론가〉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부처님 가르침인 '佛法'을 보시하는
법보시 공덕은 보시 공덕 중 으뜸입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2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53호 | 21 | 전면광고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들 가운데 연꽃 같은 존재임을 알라.

부처님 말씀 읽기 -《관무량수불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대지 : 45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능 • 매가 : 40억
- 위치 : 경기 • 부지 : 1100평
- 건평 : 약40평 외
- 주차가능 • 매가 : 3억5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대형 천년사찰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토굴 땅 안내

- 괴산 토지 500평, 평당 25만원
- 이면도로 2차선도로접
- 가까이 호수같은 큰 저수지 있음
- 주변 경관이 조용하며 토굴짓기에 좋음
- 가액 : 절충가능

010-4876-105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 6백평, 임야 : 3천 6백평
- 건물 : 대웅전 55평, 공양실 35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9억

010-4547-00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 부지 : 대지 451평, 전 287평
- 건물 : 198평 (대웅전 30, 요사채 60평)
- 가액 : 6억 3천만원 (집기일체)

031-358-708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계곡면
- 대지 : 350평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85평 (법당 요사채) (건물 3층 180평까지 증축 가능)
- 가액 : 4억 5천

010-7710-8334

동 진 불 사

- 위 치 : 제주도 제주시 소재
- 부 지 : 1000평 (종교용지)
- 법 당 : 40평 (목조, 3포7포, 단청)
- 요사채 : 3개동 150평 (수행실 17개소)
- 기 타 : 산신각, 연못, 석등
- 가 액 : 22억 5천만원
- 특 징 : 제주시내에 위치한 대가람으로 종단의 수련원, 선방, 복지원 용도로 최적의 장소입니다.



전국 소재 사찰, 절터, 포교당 양도 양수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010-4927-0455 / 010-5122-8080

암 자 안 내

- 위치 : 부산 연산동 황령산
- 가격
  - 전 세 : 일백만원
  - 월 세 : 십오만원
  - 시설비 : 일천만원

051-851-808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사찰
- 대지 : 120평
- 건물 : 건물외 부속건물 약 30평
- 난방 : 태양열 시설이 되어있음
- 가격 : 1억 2천만원 (절충가능)

010-5436-580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 법당, 공양간, 스님 거실, 주차장, 창고, 산신각
- 평수 : 253평 (2택지로 나뉘어 있음)
- 금액 : 2억 5천만원 (절충 가능)
- 진주 시내에서 5분 거리 시내버스 주차장 가깝고 버스 다니는 길 있음

055-746-2585

양평 토굴 안내

- 문중땅 700평
- 사용 : 년 30만원, 매매 9800만원
- 법당, 요사채, 하우스 3동, 텃밭, 유실수다량
- 집 앞에 계곡이 흐르고 뒤편은 산이며 주차는 7~8대
- 주변 경관이 아름다우며 조용한 곳입니다.

010-4876-1058

사 찰 안 내

- 위치: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사찰 안에 계곡 축대 재공사 완료
- 차로 확장공사 완료
- 지장전에 납골시설 허가 득
- 가액 12억(절충 가능)

010-5421-1536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 광역시 서구 신석로 111번길 3-1
- 2층 : 법당 30평,
- 1층 : 요사채 30평
- 지하 : 15평
- 가액 4억 5천만원
- 스님 건강상, 교통 아주 편리함

010-4535-5086

사찰(급)안내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 대지 : 700평 (실사용 1000평)
- 건물 : 법당 (25평), 산신, 칠성, 용왕
- 요사채 : 슬라브 2동 향토방 1동
- 해우소 : 1동 차량 진입 (주차장)
-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도량 (명상, 요가)
- 남향이라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
- 땅에서 나는 물 (약수물)
- 금액 : 5억

010-9203-1165

포교(법당)당 전월세

- 위치: 부산시 진구 성지로 151 3층 (실평수 70평)
- 대법당외 요사채 방2칸
- 현신도수 4300명 (전산등록)
- 가액: 3천만원 월 150만원 부가세별도
- 비품대없음
- 어린이대공원역 버스정류소 바로 옆 건물.
- 엘리베이터있음 (냉난방 완비)

010-3398-6204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입구 3층 (30평) 전철역 10분
- 1천만원 – 월세 130 (부가세별도)
- 시설비 2천만원
- 건물 : 법당, 방1, 공양간, 욕실, 난방도시까스 (민원없음)

010-2855-9899

사 찰 안 내

- 위 치 : 충남 금산 추부
- 대 지 : 280평, 임야 : 50평, 총 330평
- 삼성각 : 7평, 전통 기와 목조건물
- 법 당 : 22평, 경량골 철골
- 요사채 : 슬레이트 지붕, 블록, 방 5개, 거실, 주방, 화장실
- 대전 옥천 15분 이내(교통 편리)
- 뒤는 산, 앞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경치 좋은 곳
- 가액 : 2억 5천만원

010-3875-6305

사 찰 안 내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굿당해도 좋은 자리
- 가액: 3억 6천 (대출 2억 천육백만원)

010-3741-3567

사찰(급)안내

- 김해 동IC에서 5분
  김해 공항에서 15분
- 창건 30년, 도량 270평
- 가액 : 8억 2천만원

010-6898-9114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연세대 근교
- 2층 건물 : 2층 30평
- 2층 옥상 산신각 2평 공실
- 법당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지장불, 지장탱화
- 방사 1, 공양간1, 욕실겸화장실
- 보증금 : 5백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 천만원

010-4799-5699

사찰(급)안내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1억 2천 (조정 가능)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몸만 오세요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북구 만덕동 438번지
- 대지 41평, 100년된 고요한 암자 (도심 근천)
- 하천부지 60평 활용 (1년 사용료 430만원정도)
- 매각금액 : 2억 (절충가능)

010-8411-1217

사찰(급)안내

스님 병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6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 : 교통이 좋습니다.
- 집기류 다 주고 갑니다. 그냥 오셔서 법회를 하시면 됩니다.

010-2366-2821

사찰(급)안내

- 경남 양산, 종교용지, 대지218평, 시유지 포함 500평사용, 주차10대,
- 건평 68평중 1층 요사 42평, 방4, 화장실3, 2층 대웅전 26평, 식당2, 실외화장실1, 산신각6평, 난방 심야전기, 지하석수 1일 150톤 이상, 상하수도, 종말처리
- 집기일체 포함, 즉시법회가능
- 건강상 시가 이하로 7억에 양도함 (절충가능)

010-6425-8274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411-1, 411-2
- 매매금 : 3억원
- 올수리, 사찰 장엄 완료, 250평



010-3618-6061

법당 (급) 안내

- 부산 금정구 회동동 회동마루 부근 (130평 단독)
- 요사체 잘되어있음
- 전세 1천만원, 월세 50 (월세 조율가능)

010-4157-0773

포교원 (급) 매매

- 위치: 공주 봉황동 건물매매
- 건물 53평, 주방1, 방2, 독방1
- 토지임대 월5만원
- 가액 : 3천 5백만원

010-4428-7300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 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2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53호 | 22 | 전면광고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마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문을 삼아라." 하셨느니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보왕삼매론》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학인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부처님 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부처님의 참된 뜻에 의하여 우리들도 필히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장소가 마련된다면 참석하여 법문하고자 합니다.

010-5366-4905 무심 합장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부전스님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010-2078-9595

공양주 구함

스님들과 같이 함께할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4069-9131

경북 문경 쌍룡사 부전스님 모십니다

염불 및 제의식 집전한후 보시금 결정

010-8819-8988

원주 비구니스님

- 영험한 도량
- 가정이 잘 풀리지 않는 분 소액으로 조상분들 천도해 드립니다.
- 재비는 50만원, 부처님 가피로 자손분들이 잘살수있습니다.
- 몸이 신병으로 아프신 분, 퇴마빙의 사주 보실분도 오세요
- 계좌 : 농협 351-0995-9536-43

010-9392-1189

뚜렷한 병명도 없이 아프신 분들이나 소원을 꼭 이루고자 하시는 불자님들은 연락바랍니다.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토속신앙 지장신앙 산신신앙 연구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고산암행스님은 동양 최초로 각명산의 산신령님을 한분도 빠짐없이 다 모신 제천 심흔사 회주 스님으로써 수십년동안 염불기도로 수행정진해온 원력으로 마지막 회향 기도로 몸과 마음 다 바쳐 혼을 실은 기도로써 부처님 불보살님 산신령님의 위신력을 입증해 보여드리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010-8547-1473, 043-642-9413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 010-5270-826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 15,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혹과 업으로 분단, 전도의 시초
〈惑〉 〈業〉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㊱ 중생전도와 세계전도

〈원문〉

"아난아, 어떤 것을 세계전도(世界顚倒)라 하는가 하면 이 혹(惑)과 업(業)으로 분단(分段)이 허망하게 생기느니라. 이를 인해 계(界 : 공간)가 성립되고 천류(遷流)하여 머물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해 세(世 : 시간)이 성립되느니라. 삼세와 사방이 화합하여 서로 곱하여(涉) 져 변화하는 중생이 열두 종류를 이루느니라. 이렇기 때문에 세계가 움직임(動)을 인하여 소리(聲)가 있고, 소리를 인해 색(色)이 있고, 색을 인하여 향(香)이 있으며, 향을 인하여 촉(觸)이 있고, 촉을 인하여 미(味)가 있으며, 미를 인하여 법(法)을 아나니 여섯 가지 어지러운 망상이 업성(業性)을 이루기 때문에 12가지 구분(區分)이 이로 말미암아 윤전(輪轉)하느니라. 이렇기 때문에 세간의 성(聲)·향(香)·미(味)·촉(觸)이 12가지 변화를 다하여 한 바퀴 돌게 되느니라. 이 윤전하는 뒤바뀐 상태를 타는 까닭에 이 세계의 난생(卵生), 태생(胎生), 습생(濕生), 화생(化生), 유색(有色), 무색(無色), 유상(有想), 무상(無想), 비유색(非有色), 비무색(非無色), 비유상(非有想), 비무상(非無想)이 있느니라."

〈강설〉

〈능엄경〉에서는 중생과 중생이 사는 세계가 전도(轉倒)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중생전도와 세계전도의 두 가지 전도를 밝히는 대목이 나오는데 매우 신비하고 난해한 대목이다. 혹(惑)과 업(業)으로 분단이 생긴 것이 전도의 시초다. 분단(分段)이란 목숨의 한정(限定)이 있고 몸의 형단(形段)이 있는 것을 말한다. 중생의 생사를 분단생사(分段生死)라고 말한다.

수명의 길고 짧음과 신체의 크고 작음 등 일정한 한계를 갖는 것으로 육도윤회를 거듭하는 중생의 생사가 모두 분단생사다. 상대적인 말에 변역생사(變易生死)가 있다. 분단으로 인해 계(界)가 생기고 세(世)가 생긴다고 하였다. 계(界)는 공간이고 세(世)는 시간이다 혹(惑)과 업(業)으로 인한 분단에 의해서 공간과 시간이 성립되었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삼세(三世)와 사방(四方)이 서로 섭(涉)하여 변화하는 중생이 12종류가 있게 되었다고 한다. 섭(涉)한다는 말은 곱해진다는 말이다. 〈금강경〉에서는 9류 중생을 말하는데 〈능엄경〉에서는 12류 중생을 말하고 있다. 천류(遷流)란 물이 옮겨 흐르는 것인데 과거, 현재, 미래 삼세가 천류하면서 사방을 섭(涉)하므로 12류가 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공간적인 동요가 일어나면서 소리(聲)가 있게 되고 소리를 인하여 색(色)이 있고, 색을 인하여 향(香)이 있으며, 향을 인하여 촉(觸)이 있으며, 촉을 인하여 법진(法塵)을 안다 하였다. 이른바 육진(六塵)이 생기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처음 움직이는 동(動)으로부터 차례차례 생겼다는 것이다. 육진의 생기차제(生起次第)가 설명된 것이다. 향(香)은 냄새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물질인 색(色)은 어느 형태이든 냄새가 있는 것이다. 이 육진(六塵)이 어지러운 망상을 만들어 업의 습성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말하자면 중생의 종류에 따라 습성이 다르다는 뜻이다. 육도를 순환하는 것이 윤전(輪轉)인데 이 말은 윤회전생(輪迴轉生)의 줄인 말이다. 윤회의 바퀴가 형성되어 돌면서 굴러가는데 12생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렇게 윤전하는 것이 여래장묘진여성인 각(覺)을 등진 것이므로 전도(顚倒)라 하는 것이다. 이 전도된 모습을 타고 12류 중생이 있게 되었다고 중생의 생기원인(生起原因)을 말하고 있다. 탄다(乘)는 말은 의지한다는 뜻이다. 12류 중생을 말하면서 난생(卵生)을 먼저 들어 말하는 것도 〈능엄경〉의 특색이다.

난생(卵生)은 상(想)으로 생기는 상생(想生)이다. 보통 사생(四生)을 말할 때 태생(胎生)부터 먼저 말하는데 태생은 정(情)이 많은 정생(情生)이므로 난생보다 움직임이 느리다. 혹(惑)과 업(業)의 분단에서 생긴 동요(動搖)가 상(想)으로 시작되므로 태생(胎生)보다 먼저가 되기 때문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32상이 원만히 갖춰지려면…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㊱ 32상 80종호

자연지(自然智)는 보살도 10지와 묘각도에서 갖추어지는 지혜이다. 자연지를 갖추게 되면 여래장 연기의 원인과 과정을 알게 된다. 일체종지(一切種智)는 등각도에서 갖추어지는 지혜이다. 대적정문과 대자비문이 불이문을 이루었을 때 갖추어진다. 불지(佛智)는 묘각도에서 갖추어지는 지혜이다. 여래지(如來智)는 묘각도 이후에 정토불사를 행하면서 갖추어지는 지혜이다. 진여수행에 있어서 6바라밀과 생멸수행에 있어서 6바라밀은 제도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생멸수행의 6바라밀은 스스로 갖고 있는 생멸심을 분리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진여수행의 6바라밀은 스스로가 분리시켜놓은 생멸심을 제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생멸수행의 전체 과정은 진여심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요소를 성취하면서 생멸심을 분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진여수행의 전체 과정은 분리시켰던 생멸심을 끌어안으면서 진여심과 생멸심을 완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다음은 32상(묘법연화경 제12 제바달다품)이다. 32상이란 부처님의 몸이 갖고 있는 32가지 특징을 말한다. 몸의 제도와 깨달음, 다른 생명을 이롭게 했던 공덕으로 갖추어진다. 1. 발바닥이 평평하다. 2. 발바닥에 수레바퀴 문양이 있다. 3. 손가락이 가늘고 길다. 4. 손발이 매우 부드럽다. 5.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얇은 물갈퀴가 있다. 6. 발꿈치가 원만하다. 7. 발등이 높고 원만하다. 8. 장딴지가 사슴의 다리와 같다. 9. 팔을 늘어뜨리면 손이 무릎 아래까지 내려온다. 10. 남근이 오므라져 숨어있는 것이 말의 양물과 같다. 11. 키가 두 팔을 편 것과 같다. 12. 모공에 새까만 털이 나있다. 13. 몸의 털이 위로 쏠려있다. 14. 온몸이 황금빛이다. 15. 항상 몸에서 솟는 광명이 한 길이나 된다. 16. 살이 부드럽고 매끄럽다. 17. 발바닥, 손바닥, 정수리가 모두 편편하고 둥글며 두껍다. 18. 두 겨드랑이가 편편하다. 19. 몸매가 사자와 같다. 20. 몸이 크고 단정하다. 21. 양 어깨가 둥글고 두툼하다. 22. 치아가 40개이다. 23. 치아가 희고 가지런하며 빽빽하다. 24. 송곳니가 희고 길다. 25. 뺨이 사자와 같다. 26. 목구멍에서 향기로운 진액이 나온다. 27. 혀가 길고 넓다. 28. 목소리가 맑고 멀리 들린다. 29. 눈동자가 검푸르다. 30. 속눈썹이 소의 것과 같다. 31. 두 눈썹 사이에 흰 털이 나있다. 32. 정수리에 살이 불룩하게 나와 있다.

32상이 갖추어지려면 32진로수행을 통해 몸과 마음을 제도해야 한다. 32진로수행을 하려면 몸의 내부에 12개의 기점을 세워줘야 한다. 12개의 기점을 서로 연결해서 32개의 삼각형을 만들어가는 것이 32진로 수행이다. 몸 안에 기점을 세우는 방법을 단법(壇法)이라 한다. 호흡법(呼吸法)과 발성법(發聲法), 인법(印法)을 활용해서 몸 안에 12개의 단(壇)을 세운다. 앞 기둥 세 기점, 중간 기둥 여섯 기점, 뒷기둥 세 기점이 세워진다.

몸 안에 세워진 단(壇)은 선정의 주체로도 활용되고 자기제도의 방편으로도 활용된다. 진여문의 보살들과 일치를 이루는 마음 거울로도 활용한다. 단(壇)을 세우기 위해 활용하는 호흡법은 나선호흡과 살갗호흡, 코숨호흡과 배숨호흡이다. 발성법(發聲法)은 자음발성법과 모음발성법, 문자발성법이 함께 쓰인다. 인법(印法)은 단이 세워지는 위치에 따라서 서로 달라진다. 생명과 생명, 공간과 공간이 서로를 연결하는 것이 호흡이다. 호흡을 통해 성취해야 할 목표가 있다.

첫째는 신경 억제를 통한 무념처의 증득이다. 둘째는 교감신경 에너지를 촉발시키는 것이다. 셋째는 외기의 집약이다. 넷째는 서로 다른 생명에너지를 융합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다. 신경 억제를 통한 무념처의 증득은 나선호흡을 통해 성취한다. 교감신경 에너지를 촉발시키는 것은 코숨호흡으로 성취한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흐 스님의 〈능가경〉 강설
㊱ 육바라밀의 적정처

'행주좌와 어묵동정'이 그 때이다

진리는 '믿는다, 믿지 않는다.' 는 것이 만들어내는 차이가 없고, '한다, 하지 않는다.' 는 것에 의해 차이가 만들어지지도 않지만, 지금 여기에서 바로 나타나거나 나중에 나타나는 차이는 분명히 있다. 빠르고 느린 차이가 있다고 해서 지식이나 사량분별하는 마음에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함없기에 행위 없이 나타난다. 이때의 행위 없음은 동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작용에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한 번의 돌아보는 앎에 있다. 이때 돌아본다는 것은 모든 것을 꿰뚫는 일이지만 특별함이 없는 아주 작고 소소한 것이다. 그것이 물질에서 일어나든, 느낌, 지각, 의도, 의식에서 일어나든 우리가 평상시에 무심히 항상 사용하는 것인데, 그때만큼은 그것이 '나' 라고 알고 있는 것과 아주 별개의 일이 되어버린다.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에 항상 일부분만을 알고 있었다면(물론, 그 순간의 생각으로는 모두 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때는 온전히 그것으로 보고 듣게 된다. 그러니 따로 분별하여 느낄 필요도, 생각할 필요도, 인식할 필요도 없이 온전히 아는 마음이 되어버린다. 그때는 원인도 결과도 없어서 무엇을 하였다는 인식도 없는 것이다. 자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곳이 없으니 어디로 흐르는 것도 없다. 이때의 앎은 아름다운 동행이 된다. 진리와 행위가 동행하게 되면 번뇌는 생겨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로 '적정처' 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금강경〉 제4, '묘행은 머물지 않는다[妙行無住分]' 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아름다운 동행으로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수승한지 바르게 말씀해 두셨다. "수보리야, 보살은 반드시 어떤 것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布施)를 해야 하나니, 이를테면, 사물에 머물지 말고 보시할 것이며, 소리와 향기와 맛과 감촉과 그 외의 온갖 것에 머물지 말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반드시 이와 같이 보시하여 형상에 머물지 말라.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형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느니라." 이때의 복덕은 일반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복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보시를 할 때는 그를 불쌍히 여겨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혹여 나중에 나도 저런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전제가 된다. 그런 마음이 보시의 행위를 통해 성숙이 일어나면 '이러한 일을 내가 한다.' 는 마음 없는 행위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때를 나와 너가 없는 '적정처' 라고 말한다. 보시는 그런 적정처를 알게 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보시의 복덕이라 하는 것이다.

"수행자가 정수를 얻은 것은 다이아몬드나 부처의 사리와 같고 광음천의 궁전과 같아 세간의 눈으로 소멸되지 않는 일이로다. 정법을 얻어 거기에 머물고 여래의 지혜가 구족하며 비구가 평등성지를 얻으니 구름 사이에도 찰나를 보도다. 신기루나 환상 등은 찰나간에도 색상이 있지 않지만 실재하지 않는 색상임에도 마치 진실한 것처럼 보도다."

바라밀을 실천하는데 처음부터 바른 적정처를 알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지만 처음부터 바르게 실천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온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저축하는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진정한 바라밀의 뜻도 아니다.

바라밀은 자신을 바르게 인도하는 좋은 수행방법 중의 하나이다.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가 살아갈 필요도 없고, 가르침을 알기 위해 많은 서적을 연구할 필요도 없다. 오직 바라밀의 실천에서 나와 너의 실체 없음을 알고, 많은 세월 동안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인연 때문에 진실을 왜곡하였다는 것을 알아 무명의 안개를 걷어 낸다면 지혜로운 삶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생활하고 있는 모든 현상에서 발현하는 것이다. 인연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어디에도 있다거나 있을 것이라는 허망한 생각을 짓지 않으니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가 없다. 그 이전의 일로 속상할 것도 없고, 나중의 일이라는 것도 없고, 지금 일어나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이 그저 만족하고 즐거울 따름이다. 하루를 따로 구분하여 정함도 없으니, 하고 있는 때가 그때일 뿐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일일시호일

"매일매일 고향의
아내와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미얀마 이주민 아우룽 툰씨, 소뇌 내출혈로 생명 위협
가까스로 살아났지만…병원 빚 2000만원에 고향 못가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마음책 다시 읽기 명상 100문 100답 ❶ 명상이란 무엇인가

▶ 한줄 요약
방법을 자주 바꾸기보다는 꾸준히 지속하고 익숙해진 후에 필요여하에 따라 다른 방법을 경험해 볼 것을 권합니다.

알아차림 없는 집중은 '맹목적 몰입'



명상이 뭐예요?

명상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풀면 '고요히 눈을 감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삶에서 고요히 눈을 감고 생각할 기회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잠시라도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갖는 것은 일상의 바쁘고 흥분된 삶 등으로부터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생리적 안정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휴식이나 쉼 등의 방식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 '멍 때리기'나 '집중하여 책읽기'는 명상이나 힐링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진지하게 마음을 다루는 의미에서 '멍 때리기'는 명상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마음은 아주 빠르고 쉽게 방황하기에 마음이 머무를 곳을 임의로 설정하고 그 곳에 의도적으로 머무르게 합니다. 이것을 집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명상을 활쏘기에 비유한다면 집중은 활과도 같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향하도록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멍 때리기'를 하는 경우, 짧은 이완감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대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곧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대상이 없기에 집중하기 어렵고, 마음의 방향도 설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의 마음을 다루는 작업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집중하여 책읽기'는 '멍 때리기'와 달리 집중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집중의 대상이 나 자신, 즉 내부가 아닌 외부의 대상이라는 점은 점차 보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력을 통해 외부대상에 집중하는 것은 집중의 힘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키운 집중력을 외적 대상이 아닌 내적 대상, 즉 나를 향해 활용해야 합니다. 명상은 자신의 문제를 다스림과 동시에 사회로 그 효과가 환원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어떤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읽던 작업을 잠시 멈추고 자신의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닿아있는 감각을 느껴보기 바랍니다.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 느낌이 느껴질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작용을 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글의 설명에 따라 마음을 입술로 보냈습니다.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잠시 닿아있는 입술에 머물렀습니다. 잠시 머무르자 어떤 느낌인지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놓치고 있던 지금의 현상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사실 이 실험을 진행하기도 전에 윗입술과 아랫입술은 닿아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보내어 입술에 머물기 전에는 그러한 느낌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아차림은 원하는 대상에 마음이 머물러 집중함으로써 나타납니다. 집중의 성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처 모르던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집중이 강화될수록 알아차림의 영역도 넓어집니다. 알아차림은 집중의 도움을 받아 현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알아차림은 불교수행에서 강조되는데 알아차림이 반복적으로 성장할 때 지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알아차림이 없는 집중은 맹목적인 몰입에 가깝습니다.

초보자인데 뭐부터 할까요?

명상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다양한 명상의 종류를 살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명상법을 찾아보기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성향이 외향적이라면 동적 명상이 쉬울 수 있으며, 내향적이라면 정적 명상이 쉬울 수 있습니다.

다만, 명상의 효과를 위해서는 명상의 시간보다는 익숙함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5분 명상과 50분 명상 모두 심리적 · 생리적 결과를 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랜 시간보다는 그 방법에 익숙했을 때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래 하는 것보다는 자주 반복하여 방법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날을 정해 70분 명상을 하는 것보다, 하루 10분씩 매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 '멍 때리기' 집중에 포함되지만 대상 없어 마음 방황하기 쉬워
> 집중은 외부 아닌 '나' 향해야
> 명상 시간보다 익숙함이 중요

또한, 자신이 선택한 명상방법은 그 방법에 익숙해질 때까지 꾸준히 진행할 것을 권유합니다. 예를 들어, 등산을 할 때 다양한 코스가 있고, 사람마다 좋아하는 길이 다릅니다. 하지만 처음의 시작 지점이 다를 뿐이지, 어느 정도 오르면 비슷한 위치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떤 코스이든 자신이 꾸준히 진행하며 다양한 경험도 하고 고비도 넘기면 다음에 다른 코스로 올라도 문제가 없지만, 처음의 시작점을 자주 바꾸게 되면 끝까지 오르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를 맴돌 수 있습니다.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을 자주 바꾸기보다는 꾸준히 지속하고 익숙해진 후에 필요여하에 따라 다른 방법을 경험해 볼 것을 권합니다.

생애 첫 명상이라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다면 걷기명상을 추천합니다. 걸으며 자신의 발에서 나타나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또한 오른발이 바닥에 닿으면 '오른발'이라고 마음속으로 이름을 붙이고 왼발이 바닥에 닿으면 '왼발'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가능하고, 어느 때나 할 수 있으며, 느낌의 알아차림, 혹은 동작과 명칭의 일치를 통해 집중력을 향상시켜줍니다.

언제 하는 게 좋나요?

일반적으로 명상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등, 비교적 주변 환경이 조용하여 가능한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간대에 해야 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지만, 사실 명상에 적합한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하루 일과 중에서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시간을 활용하면 됩니다. 한편, 금방 밥을 먹어 배가 몹시 부른 상태일 때는 앉아서 하는 명상은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때는 혈액이 위장 계통으로 쏠리게 되어 상대적으로 뇌에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서 졸림 현상이 발생하는데, 좌선을 한다고 무리하게 앉아 있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졸음과 싸우느라 괴롭기만 합니다. 배고픔을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은 식전 명상도 별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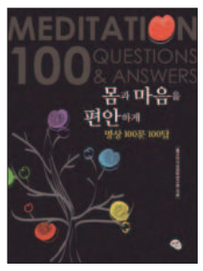
언제 명상을 하면 좋은가, 그것은 명상을 실천하는 주체인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잡무로부터 자유로운 이른 아침이 좋은 사람도 있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틈을 내어 명상을 하는 것이 좋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들기 전에 명상을 하는 것이 편안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하는가가 아니라,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시간대에 상관없이 명상의 효과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음악 틀어놓고 해도 돼요?

음악을 들으면서 명상을 해도 되지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명상을 처음 실천하는 사람의 경우, 음악을 들으며 명상을 하는 것이 더 편안하고 집중하기 쉽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다양한 자극이 차단되면서 집중도가 높아져 머릿속에 떠오르는 잡념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느낌들에 의존하여 명상을 할 때마다 항상 음악을 찾다보면, 습관이 되어 나중에는 음악 없이는 명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음악으로 인해서 연상되는 여러 가지 이미지나 생각들에 휩쓸려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악과 같은 외부적인 도구에 의존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꼭 음악을 활용하고 싶다면 자연의 소리를 그대로 녹음하거나 이에 약간의 악기 연주를 더한 정도의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가사가 있거나 요란스러운 음악은 명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감정을 흔들 수 있는 음색의 음악이나 신경을 건드리는 날카로운 음색의 음악도 좋지 않습니다.

한편, '음악명상'이라고 하여 음악을 이루는 소리나 가락, 리듬 등에 의식을 집중하는 명상도 있습니다. 이때는 음악 자체가 집중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실천하는 방법이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광의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심신을 힐링할 수 있는 모든 도구나 수단이 다 명상 실천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음악은 우리의 심신을 힐링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공저 : 박성식(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사상체질과 교수) 외 12명 / 올리브 그린 펴냄〉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전통과 미래, 그리고 한국불교의 자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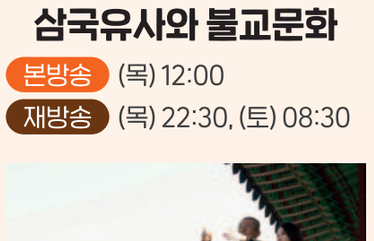
BTN 불교TV 방송시간안내



가족사진
본방송 (금) 12:00
재방송 (금) 20:30, (토) 16:00



불법(佛法)유턴
본방송 (월) 12:00
재방송 (월) 20:30, (토) 19:30



최광식 교수가 알려주는 삼국유사와 불교문화
본방송 (목) 12:00
재방송 (목) 22:30, (토) 08:30



죽음에서 배우는 삶
본방송 (수) 13:00
재방송 (수) 20:30, (일) 22:50



아름다운 사람들
본방송 (수) 09:30
재방송 (수) 21:30, (금) 15:30



김지원의 스님, 계십니까
본방송 (목) 09:30
재방송 (목) 21:30, (화) 15:30

BTN 채널안내 | olleh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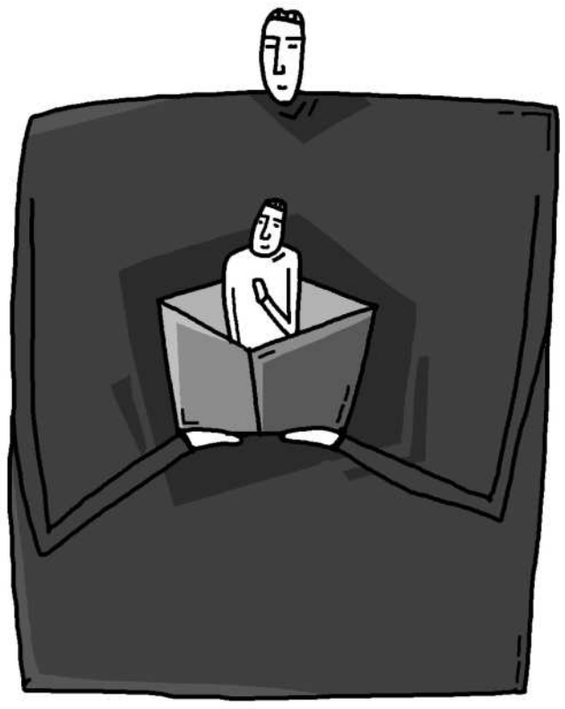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453 호 현대불교
2023년 9월 27일(음 8월 13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단번에 놓는다면 단번에 지옥고가 무너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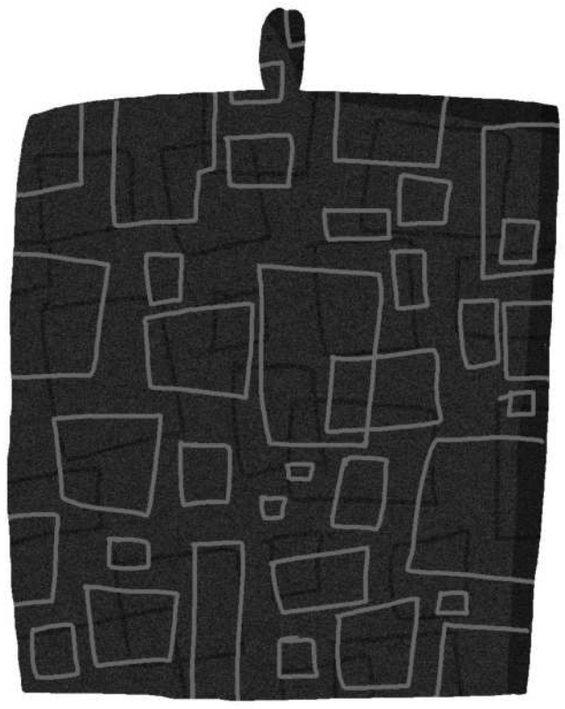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과 더불어 또 만났군요. 항시 같이 돌아가는 이치를 여러분은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체를 아신다면 역대 조사들과 더불어 나도 거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하고 나가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길 해 드렸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 남지 무슨 소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사도 둘이 아니다 하는 뜻을 몸으로써 실감하고 체험해 봐야 된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생활이 과학일 수도 있고 우리 한생각, 태어나기 이전 본성이 그대로 에너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량은 우리가 많은 마음을 내고 고정됨이 없이 행을 하는 그러한 쪽으로 비유해도 됩니다.

그런데 생사는 둘이 아니다. 물론 그렇죠. 영원한 생명의 본성과 마음 내는 자체가 어떻게 둘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낼 수 있고, 고정되지 않게 수많은 마음을 낼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둘이 아닌 까닭에 우린 몸도 있고 몸을 움죽거리기도 하고 상대성 원리도 돌아가고 이렇게 무진한 법이 우리들 살아나가는 데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아릴 수 없는 업보와 더불어 지옥고를 면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생이 다 그렇다고 봅니다. 인간으로부터, 수없이 날아다니는 짐승으로부터 모든 걸 따져 보십시오. 사생을 헤아릴 수 있겠나, 벌레로부터.

지난번에도 그런 얘길 했지만, 업보를 면하는 길은 어떠한 것이라야 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업식으로 인해서 업보가 되고 업보로 인해서 인과가 되고 인과로 인해서 이렇게 뭉쳐진 몸뚱이를 가지고서…. 저녁에 한 삼십 분 동안씩이라도 이 몸뚱이가 뭉쳐진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딴 데를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첫째, 공부를 하려면 그것부터 알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난번에 한 얘기를 반복하지마는 조금 더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몸 안을 가만히 볼 때에, 항상 말씀을 드려서 아시고 계시겠죠, 중생이 수십억 마리라고. 그런데 그 중생들이 말입니다, 나는 모두가 부처 아닌 게 없다고 하지만 그 부처 속에는 중생들이 수없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 중생들은 용도에 따라서 모두가 업이 된 것입니다. 업식으로 말미암아, 인과로 말미암아 인연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남에게 못 할 일을 했다 이런다면 그 업으로 인해서 만난 인연이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내가 짐승을 때려죽였다 하면 그 업으로 만난 인연이 되고 할 테니까요. 그러니 헤아릴 수 없이 그 고(苦)가 뭉쳐진 덩어리인 셈이죠, 선이고 악이고, 잘했든 못했든 우리가 살면서 지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살아나가는 이때만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린 사생을 거쳐서, 백지장 하나 사이를 넘어서 진화된 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모습을 바꿔 가면서 수십억 광년을 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업식을 통해서 인과가 되고 인과를 통해서 인연이 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인간까지 뭉쳐서 됐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면 헤아릴 수 없이 그렇게 오면서 벌레로 살다가 업을 짓던 것, 또 짐승으로 살다가 업을 짓던 것, 날아다니는 새로 살다가 업을 짓던 것, 인간으로 살면서 또 업을 짓던 것, 이렇게 지었던 모든 것이 한 생각에 나오는 게 모두가 업보에 의해서죠. 지옥고도 천차만별의 지옥고가 있다 합니다. 그것은 생각해 보면 아시듯이 우리 세상살이 살아나가는 데에도 지옥고가 천차만별로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땅속에서 사는 벌레들은 흑암지옥이라고 불린다고. 독사지옥도 그 중의 하나죠. 이러한 한 가지만 얘기하면 헤아릴 수 없는 그 지옥고를 생각하세요. 천차만별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주인공'을 생각해 봅시다. 이 몸속에 있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중생들이 제가끔 너 나가 있는 데서 너 나 없는 데로 들어서, 즉 무심도를 깨쳐서 다시금 너 나가 있는 데로 다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천차만별로 되어 있는 이 업보의 구덩이에서 용도에 따라 자기가 업 지은 대로 자꾸자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잘산다 못산다, 질병을 앓는다 가환이 온다 이러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니 남에게 무꾸리나 해서 그걸 제거시키려고는 아예 하지 마세요. 어리석으니까 말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인연으로 말미암아 뭉쳐진 건데, 지금 현실에 솔솔 그것이 한 찰나에 나오고 있는 거에 속지 말라 이겁니다, 모두가. 속지 않고 진짜로 믿고 놓을 수 있다면, 하나하나 용도에 따라서 나오는 대로 거기에다가 맡겨 놓으시라 이겁니다. 그럼 뭐가 어떻게 되느냐. 맡겨 놓는 대로 그것은 화해서, 즉 말하자면 생산이 되는 겁니다. 나와서 보살로 화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픈 것을 놓고 병이 나았다 했다면, 놓는다면 그것이 약사가 돼 버려요. 서로 때리고 치고받고 이래서 업보를 받은 게 악으로다가 돌아왔는데도, 그러니까 중생들이 자꾸 돌려서 내 마음을 충동질시키고 어려웁게 만들고 또 우환이 끼게 만들고, 때리고 주고받게 만들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데 그것을 놓는다면 바로 약사로 화한다는 얘깁니다. 하나 화했으면 다음에 또 나오는 걸 거기다 놓으면 또 화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없는 나날을 보임하면 바로 전체가 다 보살로서 화합니다. 보살로 화하면 그것이 광이 나서 삼십이상이 구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색깔 이 빛이. 예를 들어서 몸뚱이 물질 자체가 모두 금광으로서의 자력이나 광력이나 전력이 충만해서 같이 돌아가니까 어디 가서 섰어도 남한테 해롭게 안 하고 그 빛을 비춘다 이겁니다. 또 안으로는 삼십이응신으로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말을 안 하고 가도, 정직하고 진실하다면 그 집을 벌써 왕래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수십억 마리의 그 중생들이 다 화해서 보살로서의 활용을 한다면 이 우주에 차고도 남고, 아니 계신 데가 없이 찰나의 살림살이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한 번 놓는 데 지옥고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한 번 생각해서 놓는 데 지옥고가 찰나찰나에 무너지니 그 수없는 지옥고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고가 무너짐으로써 나의 밝은 본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육조단경에도 그랬듯이,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마음은 체가 없으니 여러분 앉아서 부산을 한번 갔다 와 보세요. 한 찰나의 살림이 아닌가. 그런데 만약에 물이 있어서 못 건너간다, 배가 있어야 한다, 또 뱃사공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은 비유를 해 놓으신 것뿐이죠. 여러분이 한번 자심(自心)을 연구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집을 갔다 오시라면 금방 한 찰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을 갔다 오시라고 했는데 강이 끼었다고 칩시다. 그러나 마음이 강이 끼었다고 못 갔다 오시겠습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옛날에 육조 스님도 말씀하셨듯이, 신수 대사가 말씀하신 거를 되받아서 "틀이 없는데 명경이 어딨으며, 명경이 없는데 먼지 앉을 데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을 했듯이, 우리 마음 자체는 한 생각 잘하면 이 세상을 다 주름잡을 수 있고 한 생각 잘못하면 구덩이에 빠져서 허덕인다 이겁니다. 우리 한 생각에, 마음을 깨쳐서 정신세계로써 정신통일을 하고 정신통일로써 이 세계를 우리 한 생각에 넘어설 수 있다면 여러분은 대인에 가깝

☞ 26면으로 계속



우리를 빼놓고 부처 보살이 따로 있다고 보지 마세요

☞ 25면에서 계속

고 자유인에 가깝고 부처입니다.

부처라는 것은 부처가 없는 것이 부처기 때문에 항상 보살로서의 활용을 할 수 있고 가만히 있으면 부처요, 한 생각을 했다 하면 법신이요, 활용을 했다 하면 화신입니다. 이것이 다 보살의 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빼놓고 부처님, 보살이 따로 있다고 보지 마십시오. 우리들 생활 속에서 그러한 연구를 하신다면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가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이라도 그것은 끊임없이 걸리지 않고 순조롭게 화합을 이루면서 허망함을 느끼지 않으면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보를 녹이는 방법이 놓는 방법이다, 맡겨 놓는 방법이다. 나를 발견하는 방법도 놓는 방법이다. 그러니 "첫째, 놓고 나를 발견하라! 나부터 발견하지 못한다면 모두 상대를 모른다. 상대를 모른다면 바로 한 치도 움죽거릴 수 없다. 무의 법에서 모두 유의 법으로 나오고 유의 법에서 무의 법으로 드니 이것은 한생각 무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항상 되풀이하는 것을 탓하지 마세요. 되풀이하는 말 자체를 새겨 봐서 그 말 자체가 없어지도록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좋게 해서 여러분의 귀만 즐겁게 한다면 잘못이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스스로서 절감하고 감응이 돼서 여러분 마음에서 스스로 한생각을 낼 때에 그것이 법이 됩니다. 여러분이 체험하고 차츰차츰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또는 허망함을 느끼지 않는 법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지 다른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업보를 지니고 나왔으면 팔자 운명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거는 모르는 소리, 모르면 그렇다 이겁니다. 바깥으로 끄달리면 더 업보를 지을 뿐, 그것을 무마시킬 수는 없고 녹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들어오는 대로 바깥에서 오는 경계도, 안에서 일어나는 경계도 모든 것을 거기에다 놓는다면 모든 업보가 무너지는 거죠.

지옥고가, 천차만별로 돼 있는 지옥고가 무너지게 되자, 고르고 골라서 씨를 뿌린 밭에다 물을 주면 싹이 모락모락 나오듯, 내 마음의 근본이 바로 모락모락 나오게 되죠. 그럼으로써 지혜가 생기고 남을 원망하지 않게 되고 묵묵히 걸어가게 되고, 한 발을 떼어 놓을 때에 무겁게 떼어 놓게 되고, 말 한마디 할 때 한번 굴려서 무겁고 지혜 있게 말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법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도 말하는 분들이 많죠. "저 스님은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다고 똑 떨어지게 말하지 않고, 항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얼버무려 놓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딴 사람들이나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내가 여러분이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나쁘다고 한 번만 말을 해놓고 한 번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다' 고도 아니 하고 '나쁘다' 고도 아니 하고, 강도도 강도가 아니라고 하지도 않고 강도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어찌 마음으로 '저건 강도다' 그러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건 선자고 이건 악자다'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러면 그분은 몸을 벗어도 그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요다음에 또 그렇게 곡경을 당할 테니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말 한마디 해서 법으로 딱 떨어질 땐 그게 무서운 말인데 어떻게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쁜 일을 했다가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좋은 사람일지언정 때로는 나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잘 파악하고 계시겠죠. 장차 좋은 것도 아니고, 장차 나쁜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한 찰나입니다.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항상 나쁜 짓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금방 어떠한 지경에 도달해 '나는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하고 돌아섭니다. 그렇게 돌아설 사람을 '이 사람은 나쁘다.' 그러고 꼭 찍어 놔야 옳겠습니까?

이건 그럴 수가 없죠.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길잡이로서, 여러분한테 부처님의 참 뜻, 이 좋은 법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말 한마디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은 못 믿겠지만 정말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 손이 손이 아닙니다, 손 아닌 손이 손이지. 손가락 하나 가지고도 하늘을 받칠 수가 있다는 그 사실! 하늘을 뚫을 수가 있다는 사실! 백지장 하나를, 산을 넘어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백지장 하나 넘어서기가 어렵다는 얘깁니다. 산을 넘어가는 거야 넘어갈 수가 있지만 백지장 하나 넘어서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니, 여러분이 그것을 다 놓고 그 백지장 하나 사이를 넘어선다면 여러분은 정말 대인으로서 남북통일도 가져올 것이고, 세계를 융화시켜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몇 년 전에 내가 이걸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모든 것을 면하려면…, 그러면 나쁜 건 왜 있습니까, 좋은 것만 있지. 그것은 우리의 손가락이 길고 짧듯이 이것이 아무 쓸모 없는 것 같아도, 쓸모없는 따라지가 붙었어도 이거는 붙어야만이 손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한쪽에선 승리가 되고 승리가 되면서 어떠한 조화를 이루고 또 발전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스님이 잘 아신다면 이거를 이럭하지 않도록 일러 주시지, 왜 일러 주질 않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게 하느냐 그러거든요. 잘못돼서 돈을 뭉청 잃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남한테 속았든지, 남과 동업을 했든지, 무엇을 했든지 자기가 한번 경험하는 반면에 자기는 평생 아니라 영원토록 남한테 속지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내가 말해서 만약에 속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건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또 속는 것도 그렇지만 일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거를 잘못해서 망가졌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몇천 불이라고 그럽시다, 그럼. 그것이 몇천 불 짜린데 망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 번 경험에 몇천 불이 아니라 몇만 불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일체 만법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는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론으로 또는 경을 보고 글 강의하듯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배워서 이것을 남의 말 하듯이 하면 그게 무슨 실감이 납니까?

석존이 여기 계셨어도 석존을 마시고 들어가야 돼. 부숴서 마시고 들어가야 돼. 그건 무슨 소리냐.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놓고, 모든 걸 보임을 하고 또 그 보임한 데서 다시금 내놓고, 만법을 내고 들이고, 움죽거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바로 부처님은 자기 안에, 아니, 부처님만 계신 게 아니지, 일체가 들어 계신 거죠. 그렇게 딴 데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바닷물을 삼켰느니 또 바닷물을 삼켰다가 뱉어 놨느니 또는 한마음에 들었느니 주인공에 들었느니 다 부쉈느니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부순 게 부순 게 아니라, 둘이 아닌 까닭에 마음과 마음이 둘이 한데 붙었으면 이게 둘입니까, 어디? 영과 영이 어떻게 둘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마음을 한데 종합해서 다 주워 모아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방귀 뀌었다 해도 그 방귀는 없습니다. 여러분 수십 분이 다 방귀를 뀌었다 해도 그 방귀라는 이름만 남지, 그냥 온 데 간 데가 없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나 모두 마음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끄달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그저 차원이 낮다고 이름 지을 수 있죠. 모든 것을 놓고 침착하게 에너지와 질량이 둘이 아님으로써 우린 천차만별로 돼 있는 이 법을 그대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원심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빙긋이 웃고 한 발 떼어 놔도 온 법계가 다 울린다는 얘기죠.

이 말 자체를 자꾸 되풀이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마다하지 마세요. 열 번을 되풀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열 번만 먹는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되풀이하고 계신대도 마다 안 합디다. 한 끼니만 걸러도 그냥 배가 고프다고 딴 때보다 막 퍼넣는 거죠. 반찬이 조금 소홀해도요. 그러나 배가 부를 때는 반찬이 잘 놓였어도 뜨적뜨적 천천히 먹는 시늉 해요.

이렇게 우리는 차이점이 나는 겁니다. 항상 밥과 김치를 먹어야 살듯이, 항상 했던 소리를 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불성을 가지고 있고, 항상 들이고 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서 납득이 되면은 자기 스스로서 나의 속도 알 것이요, 부처님 속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숙명통을 알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와서 "스님! 부모가 불쌍해서 천도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가난해서 돈을 모으다 보니깐 일 년 육 개월이 걸렸습니다." 하면서 "일 년 육 개월이 걸려도 돈이 모아지질 않아서 이렇게 그냥 왔습니다." 하고 눈물이 나는 걸 참으니까 눈물만 흐르고 침을 자꾸 삼키면서 말을 못 했습니다. 잇질 못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런 말을 했죠. "이거 봐. 없으면 없는 대로 천도하지 왜 그렇게 걱정 근심을 해? 그게 고야, 바로. 당신이 모른다면 내가 천도시켜 줄까?"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그래요. "내가 천도시켜 준다고 말 한마디 해서 믿어 줄까?" 그러니까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도한 줄 알고 가!" 그랬어.

여러분, 이거를 가만히 침착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삼십이응신으로서의 여러분 마음이 있다면,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다 오고 감이 없이 응해 드릴 겁니다. 또 본래 여러분 불성은 움죽거리지 않으면서도 만법을 들이고 내는 그 능력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놓지 않는다면 그 지옥고도 무너뜨릴 수 없거니와 그 업보로 인해서 천만 가지 다가오는 것에 끄달릴 것입니다. 그러면 "스님이 그건 천도시켜 줬죠?" 이러실 테죠.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진실하고 절실하게 왔기 때문에 그건 단번에 천도가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단번에 놓는다면 지옥고가 단번에 무너진다는 거.

항상 이렇게 하고 나가는 데에서 여러분이 느낄 때에 "부지깽이 하나라도 늘어 가면 늘어 갔지 줄지는 않어." 이 소리는 무식한 말이지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얘기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여기 다니면서, 이 공부를 하시면서 집안이 늘어 가면 늘어 갔지 줄어 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재산을 위해서 사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 업보를 하나하나 놓기 때문입니다. 그 업보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옥고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무너져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살림살이가 내 몸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나아지는 거죠. 스스로 말입니다.

그러니 이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사실. 지옥고를 무너뜨릴 수 없고, 내 업보를 없앨 수 없고…. 여러분, 항상 얘기 들어서 아시겠죠? 용광로에다 놓으면 다시 생산돼서 쇠가 나오고 그 쇠가 생산돼서 나오면 다시 이름을 받고 다른 물건이 돼서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몸 하나에서 하나하나 분기가 치밀어도 별거 별거 다 놓는다면 바로 그게 용광로에다 넣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산돼서 나오듯이 그 하나하나 업보로 뭉쳐진 중생이 보살로 화해서 여러분을 돕게 되고 조상, 친척, 자식들도 다 돕게 됩니다.

이 좋은 법을 만약에 모르고 기복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아니 놀러 다니는 것처럼 어떠한 대상을 놓고 빌거나 부적을 가지고 다니거나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 한 번 생각해서 놓는 데 지옥고가 찰나찰나 무너지니
> 그 수없는 지옥고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 그 지옥고가 무너짐으로써
> 나의 밝은 본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0년 10월 21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 품 구 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 품 구 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 품 구 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현불논단

전법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백도수
능인대학원대학 교수
한국불교학회장

중생 근기 맞춰 가르침 전한 부처님
사찰 활동도 중점 두는 대상이 중요
한 가지만 집중하면 다른 것들 잃어
균형과 변화의 틀 고려하며 전법을

생애주기별 전법, 또래 활동이 중요
출 · 재가 막론해 전문가들 동참하자
멀리 내다보고 전법의 틀 갖추려면
현재 처한 패러다임부터 점검해봐야

시대와 우리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제 추석 명절 차례상의 간소화를 넘어 차례상 차리기 거부가 일상화되고 있다. 비단 추석 명절만 아니라 제사상도 비슷한 양상에 놓여있다. 코로나19 이후 제수용품 판매 상가가 무너지고 편리함을 찾는 대중은 온라인 구매에 열중한다. 현재의 불교 모습은 어떠한가?

부처님은 11년간의 결혼생활과 6년 고행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 깨달음을 성취했다. 또한 중생구제를 위한 가르침을 포기하려다 범천의 권청으로 생각을 바꾸어 연못에 핀 연꽃을 보고 중생 근기에 맞춰 가르침을 전했다. 패러다임(사고틀)이나 행동틀의 전환이 지금 여기 절실히 요구된다. 자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하자.

역사 속에 널리 알려진 부처님의 생애는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달리 해석한다. 부처님의 생애에 시간, 장소, 사람(십대제자 · 신자 · 여성 · 외도 · 바라문 등), 동물, 식물, 천신, 음식, 자비 등의 관점을 적용할 수 있다.

이처럼 부처님의 생애를 무엇을 중심으로 보는가는 우리의 몫이다. 당시 부처님은 수행과 법담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제자들을 지도하셨다. 이처럼 지금 사찰 활동도 스님, 재가자, 불교대학, 기도, 수행, 관광,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등 어디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투입에 따른 효과와 효용 차이를 조사하여 사찰마다 환경을 고려한 활동 중심틀이 달라야 한다.

전법은 자본투여와 의지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상업을 하는 이도 자기의 능력과 상황, 조건을 따져 고객을 파악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교육을 시키고 전문가를 채용하고 양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처럼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중장년, 어르신의 생애주기별 대상의 전법에 있어 사고틀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종교단체는 한 가지만을 집중하면 다른 하나를 잃게 된다. 전통을 고수하면 창의적 개척과 시대적 대응을 놓치고, 수행에 전념하면 전법이나 의례에 소홀하게 되고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중장년, 어르신 중 하나를 강조하면 소외되는 대상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과 변화의 틀을 고려해야 한다.

생애주기별 대상의 전법은 또래 활동이 중요하다. 그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전법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체계를 갖춰 실천이론과 실천기술을 터득하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불교학자도 대학생 전법학, 단위 사찰 포교학 등 계층별 전법연구에 참여하고 전문가를 배출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승려도 대학생 전법 매뉴얼이나 어르신 전법 매뉴얼을 마련하고 매일 전법훈련 연습과 기술전수를 진행해야 한다.

독일의 박사 세미나는 학사 1학기부터 박사과정생 전체가 참여하기도 한다. 박사생이 발표자료를 준비하되 각자 잘하는 부분에 개입하여 서로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요즈음 불교대학에서도 신자에 맞게 강의를 잘하는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소리가 들려온다. 긴 시간을 내다보고 체계적으로 전법을 준비하는 것은 지금 여기 세상과 존재에 관련된 전법사고의 틀을 바꾸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30만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전법대상에 외국인 대학생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지금 여기 불교 패러다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불제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고 전하는 시대적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社說

진우 스님 취임 1주년에 부쳐

총무원장 취임 후 국가법령 개정 · 승려복지 성과 다수
"포교 분야 아쉬움"… 실사구시적 종책 등 이뤄져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9월 28일 취임한 진우 스님은 매일 매일을 초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했다. 매일 아침을 108배 정진으로 열고, 종무행정 처리와 각종 종단 행사, 사찰 법문을 다녔다. 틈틈이 시간을 쪼개 청소년 · 대학생들을 만나 소통을 했고, 장애인과 이재민 등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했다.

이 같은 초인적 행보를 할 수 있던 것은 모두 진우 스님이 취임 초 세웠던 원력 때문이다. 스님은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와 K-명상 개발 및 명상센터 건립을 '과거 · 미래 천년을 세우는' 불교 중흥 불사로 천명했으며, 이를 위한 행보를 1년 동안 이어왔다.

그렇기에 1년의 성과도 남달랐다. 진우 스님은 지난 5월 1일 문화재청과 협약을 통해 5월 4일부터 사찰 방문객의 무료입장을 본격 시행했다. 이는 60여 년간 이어진 해묵은 갈등을 해소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문화유산으로서 전통사찰의 가치를 제대로 보존 · 계승할 수 없게 만드는 국가법령에 대한 변화도 눈에 띄는 성과다. 지난 8월 24일엔 매장문화재법과 문화재보호법이 통과돼 탑과 사리, 사리장엄구가 사찰의 탑과 부도탑에서 발견될 경우 사찰 소유로 인정받게 됐다. 최근 개정한 종합부동세법시행령을 통해서는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는 종부세를 합산 · 배제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지난 5월 3일 종단 직영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을 개원해 승려복지 안정화의 전기를 마련한 것도 진우 스님의 1년 성과 중 하나다. 이를 통해 일평생 수행과 포교에 매진해온 스님들이 병고의 걱정을 덜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진우 스님은 1년간 성과보다는 아쉬운 점에 집중했다. 진우 스님은 본지와의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불교가 국민적으로 호응 받고 불자가 더 늘어나야 하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진척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포교 · 전법 분야에 힘을 쓸 것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최근 대규모 개각을 통해 2기 집행부를 새로 꾸렸다. 지난 1년이 불교중흥을 위한 밑그림을 그린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시간은 색을 입히며 작품을 완성해나가는 시간이다. 그렇기에 진우 스님이 내세운 '천년을 세우다' 불사의 완성은 꼭 이뤄야 할 일이다. 특히 그 안에는 최근 화두가 된 '포교 · 전법 중흥'도 담겨 있다.

이제부터 필요한 것은 '실사구시'적 종책들이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 종책과 전법이 나아갈 방향을 총체적으로 제시해줄 싱크탱크가 필요하며, 시대에 맞는 종무 행정 기관의 변화도 이뤄져야 한다. 특히 포교를 위해서는 포교 대상들에 대한 니즈(Needs)를 파악해야 한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불교에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맞춤형 전법이 가능해진다. 기존에 했던 구습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전법을 한다면 원력과 정재만 낭비할 뿐이다.

"중생의 아픔을 보듬고, 세상의 벗이 돼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전해주는 불교중흥의 새 역사를 열어나가겠다." 진우 스님이 지난해 11월 10일 열린 '통합종단 60주년 기념법회'에서 말한 내용이다. '세상의 벗이 되는 불교', 이는 한국불교의 지향점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진우 스님의 행보가 '세상의 벗이 되는 불교'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송마나의
시절인연

出家하기 좋은 가을날 아침

어찌하여 뜨거운 햇살은 화살처럼 나의 온몸으로 날아와 박히는가. 화살이 꽂힌 자리마다 불붙은 아픔이 가슴속으로 파고든다. 삶과 죽음에 관한 해답을 찾지 못한 고뇌가 얼마나 깊었으면 찔린 자국마다 진물이 흐르고, 정신이 영글지 못한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내려앉은 딱지마다 고름이 배어 나오는가.

그러다가 바람이 소슬하게 불어오면 집을 떠나고 싶어진다. 높은 산을 올라 유유히 떠도는 흰 구름에게 햇살로 쏘인 상흔을 펼쳐 보이고 싶다. 아니면 깊은 산속 암자에 숨어들어 무릎이 닳도록 절을 하고 싶다. 출가(出家)하고 싶다는 뜻이다.

티베트나 인도에서는 장자가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일정 시간이 흐르면 가족을 떠나 절이나 사원에 들어가 종교 생활을 한다. 그러나 출가하고 싶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별한 계급이나 경제력이 있어야만 출가할 수 있기에 그들은 선망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불가의 스님들도 출가하면 세속의 인연을 버리고 사찰에서 불도를 닦고, 가톨릭의 수사도 세간을 떠나 수도원에서 수행한다. 도인이라 부르는 그분들도



그림 · 최주현

대부분 가족을 떠나 산속에서 수련한다. 이렇듯 출가란 집을 떠나 참선이나 기도 또는 몸을 단련하면서 부처님의 길을 따르거나 신적 존재와 합일을 이루려는 것이다.

나는 그들이 부러웠지만 차마 가족을 외면하고 출가할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가을바람이 불어오면 늘 어딘가로 떠나야 한다는 마음이 술렁거려 잠시라도 집을 벗어나야 했다. 하늘과 맞닿은 티베트 오지의 사원에서 마니차를 돌리기도 하고, 설악산 봉정암을 올라 예불을 드려도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헛헛함은 가시지 않았다. 몸은 녹슬어 가는데 언제까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이곳저곳을 기웃거릴 것인가.

출가란 집을 떠나는 것도, 세상을 떠나 산속으로 가는 것도, 스님이나 사제가 되는 것도 아닐 터. 출가란 세상에 끌려다니는 마음을 끊는 것 아닐까? 집이란 고뇌와 번뇌, 갈애와 욕망이 이글거리는 내 마음 아닌가. 세상의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찬 마음.

그동안 출가를 물리적인 집을 떠나 구도의 길을 걷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마음속의 악취 나는 쓰레기를 비우는 것이 출가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음이 권력에 가 있으면 권력을 내려놓는 방법을 궁리하고, 마음이 돈에 가 있으면 소박하게 사는 삶으로 변화하고, 마음이 이성에 가 있으면 이성을 향한 마음을 끊어 내는 것이다.

어느 곳에서나 무상무념(無想無念)의 세계로 들어가 나의 진면목(眞面目)과 마주하는 것이다.

이제, 집 밖에서 방황하지 말자꾸나. 출가하기 좋은 가을날 아침이다. 〈작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 行禪 전문 신발 -
수 행 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그레이화이트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그레이블랙
Hit 어싱 슈즈 특판가 : 65,000원 (무료배송)
어싱전용 양말 증정 (재고 여부에 따라 무압박 양말 증정)
New
■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 효과
■ 일반인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기능성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25~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몽골서 ‘부처님 새 역사’ 기록

9월 4일 몽골불교協과 불교정상포럼, 희망나무심기운동 전개키로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국불교계와 몽골불교계가 몽골 나무심기 운동을 통한 미래 희망나눔에 나섰다.

한국불교계를 대표하여 세계불교계와 교류하고 있는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총재 목탁 스님)는 9월 4일 몽골불교협회와 불교정상포럼을 열고 양국 불교교류를 비롯하여, 희망나무심기운동 전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몽골불교협회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포럼에서는 몽골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몽골정부 대표들이 참석하여 한국과 몽골 불교교류 및 청소년 문화탐방 교류, 중소기업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특히 포럼에서는 양국 불교영화 제작을 비롯한 문화교류와 함께 몽골정부가 추진하는 몽골 전국토 희망나무심기운동이 구체적으로 담긴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몽골정부는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에 한국 · 몽골 불교동산에 약 2만평에 달하는 희망나무심기 부지를 제공키로 했으며,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는 2024년 5월 5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키로 약정했다.

한편, 이번 일정 동안에는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대표단 중 2명에게 양국 교류에 공로가 깊은 공로로 몽골국립대학 ‘Khangai university’에서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몽골국립대 교수협 의결을 거쳐 진행된 이번 수여식은 몽골정부 주선 하에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불교정상포럼 모습.


Khangai대학 박사학위 수여식.


희망나무심기 운동 전개하는 목탁 스님.



희망나무심기 운동 업무협약.

사단법인 : 세계 불교 법왕청 중앙정부.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WORLD BUDDHIST DHARMA-KING CENTRAL GOVERNMENT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03158 Jongno-gu, sambong-lo 68 shinyoung B/D 3F (chungjin-dong) Seoul, Korea
大韓民國나라사랑聯合協議會.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대표전화 02-733-5665 H.P 010-3618-6061
도메인 : 세계 불교 법왕청 .kr E-mail moktak1@naver.com

후원 모집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와 몽골불교협회가 진행하는 ‘희망나무심기 운동’에 동참해주실 보시공덕자를 모십니다. 여러분이 보시하신 나무는 몽골정부로 희사받은 2만평 부지에 숲을 이뤄 지구 사막화를 막고, 기후변화를 늦추는 녹색운동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은행 023501-04-214874 (세계불교법왕청)